

軍



Military History

2020.9. 제116호

史

-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 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 개화기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
- 『난중일기』의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 검토
-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서 평]

- 한국의 도성방위체계를 집약한 연구서

[자료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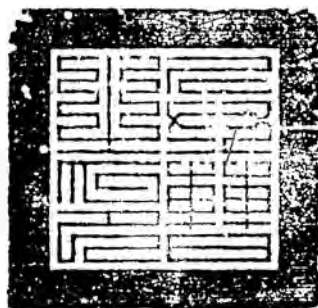
- 이춘범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

第116號
2020.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0. 9. 제116호

- | | | |
|-----|--|-----|
| 1 | ▶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 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 박희성 |
| 51 | ▶ 개화기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 | 강명숙 |
| 99 | ▶ 『난중일기』의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 검토 | 이수경 |
| 137 | ▶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 김명진 |



軍史



Contents | 2020. 9. 제116호

[서 평]

- 173 ▶ 한국의 도성방위체계를 집약한 연구서 송영대
- 백기인 저,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발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자료소개]

- 189 ▶ 이춘범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 주동완

부 록

- | | |
|------------------------|-----|
| 1. 연구소 동정 | 221 |
|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 223 |
| 3. 『軍史』誌 投稿案内 | 225 |
| 4. 연구윤리예규 | 228 |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50
<https://doi.org/10.29212/mh.2020..11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

- 전투일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

박희성*

1. 머리말
2. 전쟁준비와 1단계 작전
3. 남으로 전진과 2단계 작전
4. 재편성과 3단계 작전
5. 맺음말

1. 머리말

북한군, 즉 조선인민군에 관한 연구는 6·25전쟁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먼저 창군과 발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의 전략과 지휘방침, 전쟁수행 방법 등이 연

* 육군군사연구소 전쟁사연구과 책임연구원

구되었다.¹⁾ 다음으로 개전 당시 작전계획과 초기 작전수행은 연구자의 관심 분야였는데 전쟁의 배경과 원인, 침략의 주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북한군의 전쟁 전반기 수행과정이 밝혀졌으며,²⁾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가 연구되었다.³⁾ 해방 이후부터 창설 시기까지 북한군의 구성과정 등 다양한 모습도 밝혀졌고,⁴⁾ 간부양성교육, 정치훈련, 비정규전 교리 및 교범, 도하작전도 연구되었다.⁵⁾ 연대급 이하 조직편제와 간부분석에 관한 연구와⁶⁾ 포병과 기갑전도 별도 연구되었다.⁷⁾ 또한, 북한 공군과 해군 연구

- 1)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총서 5, 2006;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 2)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2), 2005;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 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 3)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 41, 2000.
- 4)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9, 2011; 김선호, 「북한 보안간부훈련 대대부의 간부 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 2017; 「해방 이후 북·중 군사협력 관계의 형성과 ‘혁명’의 경계」, 『군사』 102, 2017;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군사』 82, 2012; 「해방 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86, 2012; 「해방 직후 조선민주주의주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61, 200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 의미」, 『현대북한연구』 15(3), 2012.
- 5)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사학논집』 69-3, 2012;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2), 2011;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21(2), 2012;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83, 2012;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군사』 78, 2011.
- 6) 이성춘박희성, 「6·25전쟁 시 북한군 연대편성과 해외파 간부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3호, 2020.
- 7) 김경수, 「인민군 포병의 초기 성장과정 연구 : 창설기부터 한국전쟁기간을 중심으로」,

도 진행되고 있다. 비행사단 관련 내용 및 공군의 초기 전력 현황과 괴멸, 재건과정이 고찰되었으며,⁸⁾ 공군 간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도 해명되었다.⁹⁾ 북한 해군에 관해서는 먼저 수상함 위주의 북한 해군의 전쟁준비와 초기 해상전투의 모습이 밝혀졌고,¹⁰⁾ 이어서 해안포병연대의 작전도 분석되었다.¹¹⁾

그동안 국내 공간사나 여러 연구에서 기술되는 북한군은 대부분 국군의 작전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다. 국군의 어느 부대가 전투를 벌인 적군일 뿐이었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서술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군 부대별 작전 수행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할 수 있지만, 북한군 부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것은 북한군 부대별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군의 모든 부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주요 부대를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대한 연구성과는 꽤 있지만, 현재까지 사단 단위의 전투와 작전을 독립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 논문은 기존의 6·25전쟁 연구에서 간과된 주제를 새로운 형태로 처음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일련의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분석하려는 부대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이다. 제2보병사단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보병사단은 이른바 정예사단이었고, 개전 이전 실시한 검열에서는 최우수로 평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권주혁, 「한국전쟁 기갑전의 전투패턴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8)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 과정 고찰」, 『군사』 89, 2013.

9) 김선호,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현대북한 연구』 19, 2016.

10)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 제599군부대 창설과 전사 기록」, 『군사연구』 147, 2019.

11) 박희성, 「6·25전쟁 초기 북한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사총』 98, 2019.

가되었다. 북한군은 전쟁 초기 7개의 사단을 투입하였고, 그중 제2보병사단은 후방 예비대가 아닌 최전선 부대로 주력 부대였다. 그래서 개전 초기에 중요 축선인 춘천 축선에 투입되었다. 춘천을 점령한 후에는 신속히 기동하여 서울 남쪽에서 국군을 포위하는 주요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춘천 조기 점령에 실패하였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춘천 공격 실패, 곧 국군 입장에서는 춘천 방어 성공은 전쟁의 전체 양상을 바꾼 전투였다. 실패 결과 사단장까지 교체되는 굴욕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남진하여 낙동강 전선까지 투입된 6·25전쟁에서 큰 영향을 끼친 사단이며, 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을 살펴보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단 중 하나이다. 비록 춘천 전투에서 최초 계획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후 낙동강 전선까지의 공격은 부여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냈다. 그리고 예비대로 재편성 후 낙동강 도하라는 중요한 작전에 투입된 사단이다. 전쟁을 대표하고 특징지을 수 있는 보병사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군 노획문서(U.S NARA collection of the seized documents in the Korean War)인 RG242에 있는 북한군 제2보병사단 자료를 주로 활용했다. 북한 관련 사료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미군 노획문서이다. 노획문서는 평양, 원산, 함흥 등 북한 지역에서 입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대전 등 남한지역에서도 다수 확보되었다. 또한, 미 공군에 의해 주요 공항(김포공항, 홍남의 연포공항 등)에서도 입수되었다. 현재 미 국립문서기록청(NARA)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문서는 약 2,607Box 이상으로 추정된다.¹²⁾ 노획문서에 생각보다 많은 북한 자료가 있다. 그러나 북한군 관련 사료는 찾기 힘든 편이다. 특히나 실제 작전이나 전투와 관련된 가치 있는 사료를 찾는 작업은 정말 힘든 작업이다.

12)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511-515쪽.

또한,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있지도 않아서, 연구자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분류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더라도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사전 작업을 거쳐, 북한군 제2보병사단과 관련된 문서만을 분류했다. 이 문서들에는 전투명령 같이 기존 공간사에서 활용된 사료들도 있고, 공병부대의 활동상 같은 것들은 활용되지 못하고 묻힌 사료들도 있었다.

필자는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 RG242 자료 중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재정리하고, 기존 공간사 등에서 다룬 사료뿐만 아니라 다루지 않은 사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북한군 제2보병사단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계를 구분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북한군을 다루는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 단계 구분이 아닌 북한의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에서 간행한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에 따르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시기인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를 총 5단계로 구분했다.¹³⁾ 하지만 북한군 전체 단계를 이 연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기에 제2보병사단의 작전 투입과 실제 작전수행, 그리고 예비대 임무를 고려하여,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1단계는 함흥에서 춘천-가평 전투까지이며, 2단계는 한강 도하에서 황간까지이고, 3단계는 예비대로 재편성 및 낙동강 진출까지이다. 마지막으로 노획문서는

13)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제1차 작전(1950.6.25~6.29)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 서울 행방 및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기이며, 제2차 작전(1950.6.30~7.6)은 “한강도하와 적에 대한 연속적인 타격, 미제침략군 지상부대 선견대의 소멸”기이며, 제3차 작전(1950.7.7~7.20)은 “전선에서의 적에 대한 맹렬한 타격, 대전 해방작전의 빛나는 승리”기이며, 제4차 작전(1950.7.21~8.20)은 “공화국남반부의 넓은 지역의 해방, 조선인민군부대들의 락동강계선으로의 진출”이며, 제5차 작전(1950.7.21~8.20)은 “락동강계선에서의 인민군부대들의 영웅적 투쟁”기이다.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 사회과학원, 1981, 2-8쪽.

북한군이 서술하여 북한군의 일방적인 입장만 기록되었다는 사료상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서술에 각별히 주의했다.

2. 전쟁준비와 1단계 작전

가. 38도선으로 전개

북한군 제2보병사단은 철도경비대와 보안훈련소를 통합 개편한 나남의 보안간부 제2훈련소를 전신으로 창설되었다. 1949년 말부터 동해안에서 대대훈련으로부터 사단급의 공지협동훈련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전투훈련을 실시하였고, 산악전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다. 개전 당시 대부분의 병사는 6개월 이상의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1950년 초 검열단이 실시한 평가에서 북한군 7개 사단 중 최우수사단으로 선정되었다.¹⁴⁾ 사단은 경험 많은 소련군 교관들을 사단사령부는 물론 각 연대본부에 1명씩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순수 군사훈련에 비해 정치적 사상교육이 강조된 결과, 전술교리 훈련은 전체시간의 60%를 넘지 못했으며, 40% 이상을 공산당 선전교육에 치중했다.¹⁵⁾ 사단은 4연대, 6연대, 17연대와 포병연대(3개 포병대대)로 편성되었고, 대전차대대, 중기관총대대, 공병대대(251군부대), 통신대대, 의무대대, 수송대대, 교도대대, 기동정찰중대, 정보소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포병화력으로는 122mm 곡사포 12문, 76mm 견인포 36문, 76mm 자주포 16문, 45mm 대전차포 43문 등 107문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⁶⁾ <표 1>은 노획문서와 국군 전

14)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나남출판, 1996, 346쪽.

1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국방부, 2006, 433-444쪽.

16)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2005, 419-420쪽.

투상보¹⁷⁾를 통해 확인되는 주요 직위자를 정리한 현황이다.

〈표 1〉 주요 편제 및 직위자

부대명	단대호	직책	성명
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	김일성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참모장	강건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제2보병사단	235군부대	사단장	소장 이청송 => 최현
		참모장	현파
사단 공병부		제5과장(공병장)	리갑녕
사단 문화부		문화부대장	최봉철
4연대	238군부대	공병장	조병순
6연대	244군부대	연대장	김정
		공병장	박희만
17연대 ¹⁸⁾	242군부대	연대장	최례문
		공병장	박현(박복현)
포병연대	247군부대	연대장	만진동
사단직할 공병대대	251군부대	대대장	류병준
		참모장	정명순

17)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15쪽.

18) 1950년 상반기(3월~5월) 작성된 봉급수지 증빙서류들을 분석하면, 당시 17연대 소속의 군관과 하전사 및 전사들의 명단과 봉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연대장 9급 최례문은 '46.9.10. 임관하였으며 기본봉급 3,500원에 복무수당 1,350원을 더하여 4,850원을 수령했다. 기타 직책의 기본봉급은 대대장 2,500원, 부대대장 1,900원, 중대장 1,700원, 소대장 1,400원, 특무장 300원, 지도원과 부소대장 200원, 분대장 150원, 부분대장 100원, 전사 50원 수준이었다. 『봉급수지 증빙서』, 242군부대,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89. * 이하 각주부터 “NARA, RG242” 생략.

국내 공간사에 제2보병사단은 1950년 6월 12일 함흥을 출발하였고, 원산, 철원, 김화를 거쳐 화천으로 이동하였다¹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표 2>의 철도운송 계획표²⁰⁾를 보면 실제 세부 내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부대가 12일 동시에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시각은 6월 12일 23:50부터 14일 12:26까지였다. 첫 열차가 12일 23:50에 출발한 상황에서 출발일을 단순히 6월 12일이라고 공간사에서 기록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한다. 선덕에 주둔하던 17연대만 인근 부평역에서 출발하였고, 사단(-)은 함흥역에서 출발했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당시 사단의 부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노획문서로 남아 있는 철도운송 계획에는 4연대(또는 추가 부대)가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동일한 연대급인 6연대와 17연대의 계획을 통해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전 전 다수의 부대가 38선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철도를 활용하여 이동을 선호하였을 것이며, 철도운송은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다.

<표 2> 철도운송 계획표

부대 명칭	열차 번호	차판	구분대	역	시간		열차장
					도착	출발	
6연대 1대대	4312	20	1대대부, 1·2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함흥	6.12 1800	6.12 2350	1대대장
1대대	310	20	3중대, 반전차소대, 공급소대, 위생소대, 연76mm포중, 통신중대	"	2000	6.13 0125	3중대장
2대대	314	20	2대대부, 4·5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2200	0310	2대대장
2대대	3352	20	6중대, 연대참모부, 자동총중대, 120mm 포중대, 경비소대, 정찰소대, 위생소대, 공급소대, 반전총소대, 고사총소대	"	2300	0432	연작전참모

19)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66쪽.

20)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제2보병사단장 이청송 비준, 1950.6.,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08.

3대대	316	20	3대대부, 7·9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2400	0502	3대대장
3대대	3202	20	9중대, 연45mm포중대, 수의소, 운수중대, (고사총소대3분대)	〃	6.13 0200	0723	9중대장
6연대 후방부	3302	18	군의소, 후방부, 수계소, 피복수리소, 후방물자	〃	0300	0834	군의소장
6연대 계		138					
포연대1 대대	3404	20	1대대부 및 대대직속구분대, 3·4중대	〃	0400	0939	포연1대대장
참모부	4318	20	연참모부, 지휘중대, 운수소대, 수리소대, 1대1중대	〃	0500	1050	작전참모
3대대	3204	20	3대대부 및 직속구분대, 8·9중대	〃	0700	1226	3대대장
후방부	322	20	3대7중대, 후방구분대(군의소), 후방부물자	〃	1000	1500	7중대장
포연대 계		100	공병대대에서 적재한 2대대 4중대분을 포함시킴				
사단 참모부	3402	20	사참모부, 정찰중대, 경비소대, 정치보위소대, 경무부, 야전우편소, 교대1·2중대, 대대부및직속, 정치보위부, 검찰, 재판소	〃	1100	1612	작전1열과장
통신 대대	4324	20	통신대대, 교도대중기, 박격포중대, 반전총소대	〃	1300	1808	통신대대장
반전차 포대대	306	20	반전차포중대대	〃	1500	2024	반전포대대장
직속대 계		60	자동포대대8대와 (공병대대15대도 포함)				
17연대 1대대	3206	20	1대대부 및 1·2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부평	1700	2216	1대대장
1대대	4312	20	3중대, 반전차소대, 공급소대, 위생소대, 연76mm포중, 통신중대	〃	1800	2350	3중대장
2대대	310	20	2대대부 및 4·5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2000	6.14 0125	2대대장
2대대	314	19	6중대, 연대참모부, 자동총중대, 120mm포중대, 경비소대, 정찰소대, 위생소대, 공급소대, 반전총소대, 고사총소대	〃	2200	0310	작전참모
3대대	322	20	3대대부 및 7·9중대, 중기중대, 박격포중대, 45mm포소대, 통신소대	〃	6.14 1000	1500	3대대장
3대대	3402	20	9중대, 연45mm포중대, 수의소, 운수중대	〃	1100	1610	9중대장

후방부	3352	18	군의소, 피복수리소, 수계소, 후방부, 후방물자	〃	6.13 2300	0432	군의소장
17연대 계		137	매 대대에 고사소대 1분대씩 배속하였음				
자동포 대대	316	20	자동포대대	함흥	2400	0500	자동포 대대장
운수중대 및 후방	3202	20	식량, 건량	〃	6.14 0200	0723	식량과장
〃	3302	20	상동	〃	0300	0340	조직계획 부과장
〃	3404	20	기타물품, 화목, 연유	〃	0400	0939	군〇〇
〃	4318	20	탄약및자동차	흥남	0500	1054	운수중대장
군의 대대	3204	20	군의대대자동차(운수중대차포함)	함흥	0700	1226	군의대대장
계		120					

* 출처 :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김화에 도착한 제2보병사단은 6월 17일에 추곡리,²¹⁾ 장춘리,²²⁾ 원천리²³⁾ 지역에 집결했다.²⁴⁾ 6월 11일까지 이미 제5과장에 의해 사단 비상용 폭발물 및 부속품 통계표 작성을 완료²⁵⁾하는 등 어느 정도 전쟁준비는 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족함이 많았다. 6월 17일 16:00에 장거리에 무사히 도착한²⁶⁾ 17연대는 부대 지휘소를 비롯한 공병기술작업을 진행하였지만, 기술자재 부족으로 계획적인 작업이 되지 않았다. 이에 연대 공병장(工兵長)은 기술자재를 신청했다.²⁷⁾ 인원은 충원되었지만, 무기나 기타 장비 부족 현상은 사단 내 대부

21) 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22) 현) 화천군 상서면 장춘리

23) 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24)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23쪽.

25) 『師團非常用 폭발物 및 其의 附屬 品 統計表』, 제5과장 리갑녕, 1950.6.11., SA2009, Box7, Item#42.

26) 『工兵小隊集結區域到着에 關하여』,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6.18., SA2009, Box7, Item#42.

27)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242부대 공병장 박현, 1950.6., SA2009, Box7, Item#42.

분의 부대가 비슷했을 것이다. 이는 전쟁준비가 부실했고, 급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박명림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시작 후 인민군 하급부대가 상급부대에게 보내는 전투보고의 많은 요구들은 무기 부족상태를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어떤 부대들은 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장비를 요구하고 있었다.²⁸⁾ 이런 모습은 한강 도하와 김천에서의 재편성 등에서 보인다.

〈표 3〉 공병기술기재 신청목록

기재명	단위	편제수량	접수한 수량	부족수량 (신청수량)	비고
공병삽	개	518	200	318	
大刀끼	"	168	2	166	
大刀끼집	"	9	2	7	
철선절단가위	"	76	2	76	
가로켜는 톱	"	30	17	13	
주머니에 든 소도끼	"	282		282	
하계 위장복	"	120		12	
개인 위장망	"	1,500		1,500	
No.4 위장막	"	40	1	39	
No.5 위장막	"	15		15	
No.A 위장막	"	2		2	
No.E 위장막	"	3		3	
소삽집	"	1,800	1,700	100	
폭발도구	조	1	1	1	폭발기가 發電치않음
목공도구 No.2	"	1		1	
철공도구 No.11	"	1		1	
수리도구 No.68	"	1		1	
懷中전등	개	55		55	
휴대전등	"	3		3	
조명셋트	조	1		1	
지뢰탐지기	"	5	2	5	접수2조는 파손품

* 출처 :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28) 박명림, 앞의 책, 403쪽.

기초적인 공병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하장비 역시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다. 그 주된 원인은 1950년 4월에 소련에게 요청한 도하장비 5개 세트 중 1개 세트만이 도착한 것도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²⁹⁾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제2보병사단의 경우에도 한강 도하 시 작전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한강 도하를 위한 공병 부대의 준비는 개시 전 이미 종합되어 계산되었다. 6연대 공병장의 6월 19일자 보고에 따르면 연대의 도하 중량을 308.55톤으로 계산하였고, 폭약은 별도 산출했다.³⁰⁾ 이것은 전쟁 전 북한군이 남으로 진격하는 과정에 도하를 중요시했음을 알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강, 금강, 낙동강은 큰 극복과제였다.

〈표 4〉 6연대 도하 중량 산출 계산표

구분	종별	수량	중량(kg)	전체중량 (t)
인원	무장한 전사	1,200	800	96
마필	포마, 치중마	43	500	21.5
차륜	마차 및 우차	30	600	18.0
자동차	화물차 및 승용차, 포차	15	400	60.0
포	120mm 박격포	5	650	3.25
	76mm 연대포	4	1,600	6.4
	45mm 포	7	12	8.4
탄약	조격탄			15.0
	포탄			43.0
식량	식량			28.0
	마량			9.0
계				308.55

* 출처 :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29)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문당, 1981, 145쪽.

30)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6.19., SA2009, Box7, Item#43.

나. 공격준비

제2군단의 조공³¹⁾인 제2보병사단은 춘천-가평을 점령한 후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 동남쪽으로 진출, 국군의 예비전력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제1군단의 좌측방을 엄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³²⁾ 사단에는 직교,³³⁾ 565고지,³⁴⁾ 청평동³⁵⁾ 선을 확보하는 최근임무³⁶⁾와 이후 춘천 방면의 국군 병력집단을 격파하고 석장리,³⁷⁾ 계관촌,³⁸⁾ 강창리,³⁹⁾ 춘천 선까지 진출하는 차후임무⁴⁰⁾가 하달되었다. 또한, 오후까지 가평을 점령하는 1일차 목표와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둘째 날 아침부터 가평-서울 간 간선도로를 따라 진격하여 덕소리⁴¹⁾ 지역에서 한강을 도하하는 2일차 임무가 부여되었다.⁴²⁾

총참모부는 공격부대의 이동이 시작되자 정찰명령과 작전명령, 지령 등을 통해 공격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각 사단에 요구했다. 6월 18일에 하달된 정찰명령 제1호는 각 사단 정면의 국군 상황을 설명하고, 공격대기진지에 진입한 다음 공격개시 전까지, 그리고 공

31) 공격작전 시 주공의 성공을 돕기 위하여 여건 조성작전을 실시하는 전술집단(부대). 육군본부, 『군사용어』, 2017, 168쪽. 북한군 용어로는 보조타격 방향이라고 한다.

32)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423쪽.

33) 춘천 서북방 16km 집다리골, 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34) 춘천 북방 10km 세밀고개

35) 춘천 동북방 13km, 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36) [공격] 동급 제대의 기본역량을 소멸하고 그가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여 차후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임무.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017, 296쪽.

37) 가평 동북방 7km

38) 가평 동북방 9km, 달개지

39) 춘천 서남방 3km, 삼천동과 의암호의 접경지역

40) [공격] 동급 제대의 모든 역량을 소멸하고 그가 차지한 지대를 점령하는 임무.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87쪽.

41) 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2) 군사편찬연구소,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2001, 156-157쪽.

격개시 후 단계별로 수집해야 할 정보요구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제2보병사단에 하달된 정찰명령은 사단의 진출 방향인 춘천-서울을 연한 도로를 따라 한강을 도하하여 이천-수원 방면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공격개시 전에 관측과 야간 수색정찰로 확인해야 할 임무는 참호 및 관측소의 위치, 국군 주력의 위치와 보급체계 및 화력운용체계, 국군 포병의 진지와 화포의 구경 및 문 수, 38도선-춘천 간 도로상의 대전차포병 배치상황 등이었다. 그리고 공격개시 및 이후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국군의 예비대 편성 및 전선투입, 국군 부대의 철수 시점과 방향, 가평지역의 국군 규모,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국군 부대의 이동형태, 한강선 진출 시의 첩보 획득이었다.⁴³⁾ 공격부대의 기동이 완료될 무렵, 사단 단위로 작전명령을 작성하여 하달되었다. 274.1고지 북협곡에서 하달된 전투명령 제001호⁴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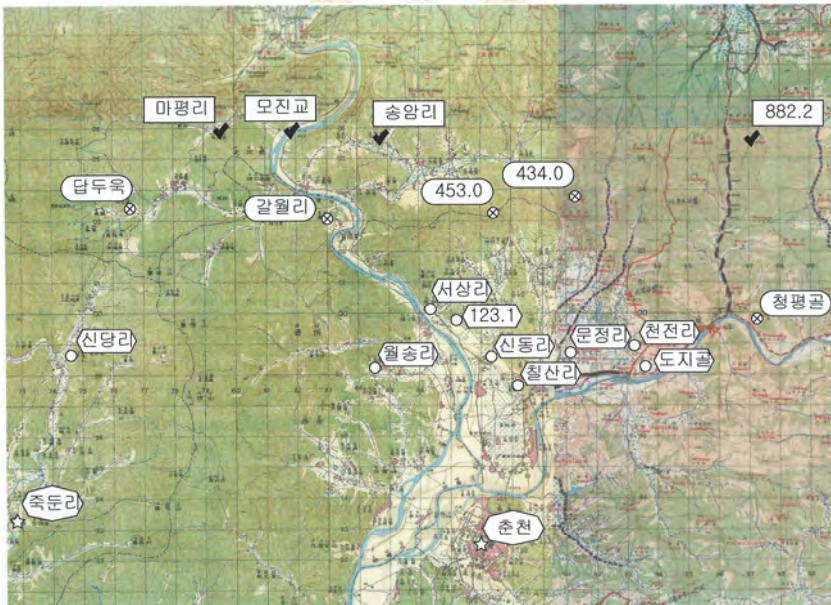
제2보병사단은 공격정면에 “105mm 야포 1개 대대로 증강한 제6사단 7연대 구분대들이 방어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사단은 882.2고지, 송암리, 모진교, 마평리 간에서 국군 방어를 돌파하고 완전소멸하며, 매 산봉(山峯)을 점령하고 답두옥, 갈월리, 453고지, 434고지, 청평골을 점령한 다음, 최근임무로 신당리, 월송리, 서상리, 123.1고지, 신동리, 칠산리, 문정리, 천전리, 도지골을 점령하고, 차후임무로 죽둔리, 춘천 방향으로 공격하여 당일 말까지 해당 지점 점령을 공고히 한 다음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승안리, 가평, 강촌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격 방향(북→남)을 기준으로 볼 때 사단 우익에는 제3보병사단이 서울 방향으로 공격하고, 좌익에는 제12보병사단이 홍천 방향으로 공격하기로 했다. 다음의 〈그림 1〉은 사단의 전투명령을 도식한 것이다. 지도는 1950년

43)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29-430쪽.

44) 『戰鬪命令 第001号』, 제2보병사단장 이청송, 1950.6., ATIS Document, No.201103.

당시 국군의 한글과 미군의 영문지도를 활용하였다. 유의할 점은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지도와는 달라 전투명령에 나오는 지도방안(방격)과는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좌우는 어느 정도 비슷하나 상하는 통상 약 2~3개 방안 차이가 나며, 고지나 지명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필자가 비교대조하면서 지형만 도식한 이유는 당시 정확한 요도가 없는 상황에서 적전술의 독도법을 적용하여 필자가 임의로 유추하여 선을 긋는 등 독도법 부호를 적용하면 오히려 왜곡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리된 지형도만으로도 제2보병사단의 작전실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제2보병사단 전투명령 지형도



이에 따라 제2보병사단은 주공⁴⁵⁾을 우측 302고지, 북한강 연안 춘천행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국군의 화점(火點)⁴⁶⁾들과 참호를 포착, 기동과 포위 기동으로써 급속히 돌파하여 매 고지를 점령한 다음 좌우 인접부대와 협동하여 춘천에 있는 국군을 완전 포위소멸 하려고 했다. 전투서열은 북한군의 공격 방향 기준, 우익에는 6연대를, 좌익에는 4연대를, 6연대 후방에 17연대를 배치했다.

〈그림 2〉 6연대 전투명령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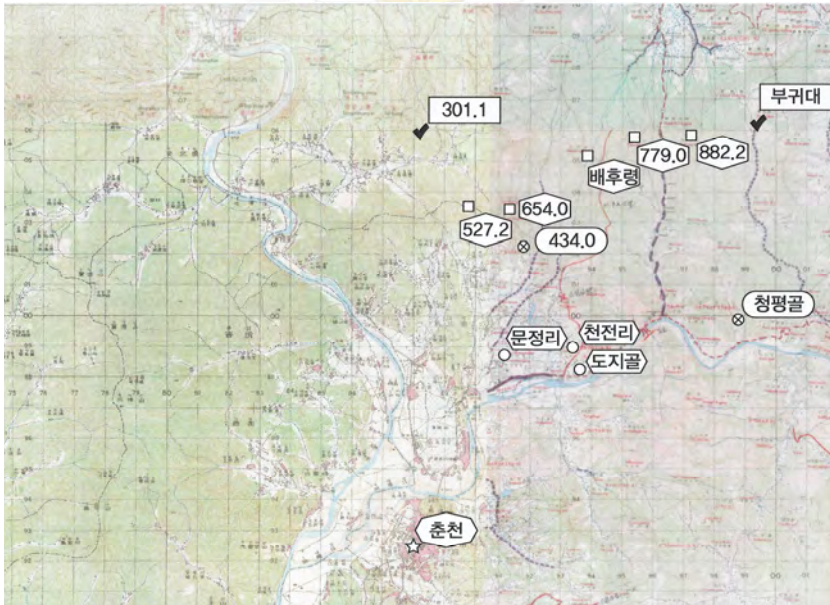
6연대는 반전차포(反戰車砲)대대 2중대, 공병대대 2중대와 함께 마평리, 모진교, 411.3고지 간에서 국군을 돌파하고, 302.5고

45) 공격작전 시 결정적 작전을 위해 운용하는 전술집단. 육군본부, 『군사용어』, 170쪽. 북한군 용어로는 주타격 방향이라고 한다.

46) 기관총이나 포 및 그밖의 사격무기들이 사격할 수 있도록 총구멍 또는 화구를 내고 옷설미를 씌운 축성물.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017, 340쪽.

지, 826.1고지, 석봉, 371고지에 있는 화점과 참호들을 완전소멸하고 매산봉을 점령하며, 최근임무로 탐주옥(답두옥), 갈월리, 453고지를 1·3대대로 포위소멸한 다음 점령계선을 공고히 하고 차후임무로 신당리, 월송리, 서상리, 123.1고지, 신동리, 칠산리를 1·3대대와 포위소멸한 다음, 춘천 방향으로 북한강 좌우 도로로 전진하여 금산리 소로로 죽둔리 방향으로 진출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제2대대는 647고지, 지암리에 있는 국군을 소멸하고 가평 방향으로 공격하게 하였으며, 포연대 2·3대대와 자동총대대가 지원하기로 했다. 17연대는 6연대의 뒤를 따라 전진하며, 점령한 계선을 공고히 확보하며, 계선에서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게 했다.

〈그림 3〉 4연대 전투명령 지형도



4연대는 공병대대 1중대, 반전차대대 1중대와 함께 301.1고지와 부귀대 간에서 방어를 돌파하고, 572.2고지 북경사면, 654고지, 배후령, 779고지, 882.2고지 북경사면에 있는 화점을 완전 소멸하고, 매 고지를 점령하고, 최근임무로 434고지, 청평리를 점령한 다음 차후임무로 문정리, 천전리, 도지골을 점령하고 계속 공세를 확대하여 춘천을 소멸하게 했다.

포병사격 준비완료는 6월 22일 24:00까지며, 준비사격 기한은 30분이었다. 포병 임무는 가까운 종심과 방어 일선에 있는 유생역량과 화점들을 진압할 것, 521고지 등에서 감시를 불허할 것, 사격 포와 간접진지에 있는 포들은 527고지 등에 있는 영구화점들을 진압하며 토목화점⁴⁷⁾들을 파괴할 것, 81고지 동북협곡, 배치리에 있는 자동포(自動砲) 진지를 압도하며 석봉, 치암리에 있는 반전차포 진지를 진압할 것, 국군의 장애물 구역과 지뢰매설지대 등 보병의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었다. 종심전투 시에는 보병과 자동포의 돌격을 점차 집중사격으로 호송할 것이며, 재생하는 목표와 새로 발견되는 목표들을 압도할 것, 춘천 방향으로 국군 예비대의 접근을 불허하며, 보병과 자동포로 하여금 점령한 계선의 고착을 보장할 것, 제2제대의 전투진입을 보장할 것, 국군의 남방 퇴각을 불허하도록 했다.

공병은 모진교를 확보하며 교량으로 보병의 도강을 보장할 것, 거례리로부터 내촌, 552고지 간 우마차가 통할 수 있는 종대로를 개방할 것, 유촌리, 373.5고지 동경사로, 764고지 북협곡으로 우마차가 통할 수 있는 종대로를 개방할 것, 정면에 있는 지뢰매설을 타개할 것, 종심에서 포병·자동포의 전진을 보장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교도대대, 반전차포대대는 사단 예비대였다. 반항공대책은 연대고사총소대와 함께 부대의 전투서열을 엄호하게 했다. 사단

47) 흙과 나무로 만든 화점을 말하며, 통상 야전축성에서 급조한 화기진지.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302쪽.

교환소와 탄환보급소는 화천에 두며, 후방 군의처도 화천에 두었다. 사단장 지휘소는 6월 22일 24:00부터 480고지 북협곡에 두었다.

6월 21일 04:00에는 271.1고지 협곡에서 예비명령 No.1이 하달되었다. 공격정면에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참호와 간단한 장애물로 둘러싸인 토목화점과 영구화점으로 방어가 구성된 상황에서 제2보병사단의 임무는 공격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익 명류동, 좌익 부귀대 일선에서 방어를 돌파한 후 춘천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하여 당일 말까지 북한강 구역에 진출해야 한다고 했다. 군관 지휘정찰은 21일 06:00부터 20:00까지 실시했다.

6월 24일에는 480고지에서 지령 제15호가 하달되었다.⁴⁸⁾ 공격선 점령은 24일 19:00까지 저녁식사를 완료하고 완전 전투준비를 하고 있을 것, 19:00부터 20:30까지 중대별(혹은 대대별)로 군무자 동원 대회를 조직 실시하여 이 기간에 중대장들은 간단한 전투준비상태 검열을 실시할 것, 20:30에 출발진지 점령 진출 개시(각 부대 집결 구역에서 출발진지까지 거리에 따라 시간을 조절할 것), 23:00에 출발진지 점령을 완료하게 했다. 공격출발계선 점령은 국군 방어선과 가까운 거리에 점령하며, 철저한 위장을 실시할 것, 최대의 은폐로 및 은폐지를 선택할 것, 출발진지 점령 후에는 휴식을 하되 휴식 시에는 철저한 경계를 조직할 것, 휴식 시의 경계 조직 시와 앞으로 경계와 휴식 조직 시는 각 연대장급, 각 대대장급, 중대에서는 소대장 중에서 1명씩 책임지고 직일군관을 지정하게 했다. 출발진지 점령시에 마필, 자동차는 출발진지에 정돈시키지 말 것을 하달하는 등 최종 공격준비 완료를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부대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병이 먼저 작전을 실시했다. 6월 24일 19:00부터 25일 04:00까지 공병 1중대는 4연대에 배속되어 연대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지뢰통로 6개소를 개

48) 『指令 第15号』, 제2보병사단 참모장 현파, 1950.6.24., ATIS Document, No.200767.

척했다. 공병 2중대는 6연대에 배속되어 연대장의 전투명령을 받고 연대 통과로 보장을 위해 전방으로 나와 24일 22:00부터 25일 04:00까지 지뢰를 해체하여 연대를 무사히 통과시켰다.⁴⁹⁾

다. 춘천-가평 전투

춘천-가평 전투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되었다. 전쟁 초기 중요한 전투 중 하나였던 춘천 전투에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가능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고 상세한 서술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공간사나 독립된 연구에서도 국군의 입장에서 주로 연구가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군과 북한군의 작전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가치가 높고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연구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노획문서에는 춘천-가평 전투 자료가 235군부대 공병장의 보고 이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차후 제2보병사단의 전투보고 등의 각종 문서가 확인되면, 그때 국군 제6사단의 전투상보⁵⁰⁾ 및 정기보고 등과 상호 비교하면서 춘천-가평 전투를 제대로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군 7연대는 좌측 제7사단과의 협조점으로 설정된 가평 적목리로부터 춘천 동북쪽의 764고지(계명산)⁵¹⁾ 남쪽에 이르는 방어정면을 담당하고 있었다. 북한군의 주공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 화천-춘천 방면에 3대대를, 조공의 공격으로 예상되는 양구-춘천 방면에 2대대를 배치했다. 그리고 화천-가평간 접근로에는 3대대 10중대를 방어정면에 배치하고, 11중대는 대대 예비로 춘천에 두고

49) 『報告書 戰鬪경과 報告에 關하여』,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6.29., ATIS Document, No.201103.

50)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8輯 5·6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337-420쪽.

51) 춘천시 북산면과 인제군 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

있었다.⁵²⁾ 공식적으로 춘천이 점령되고 소양강 도하를 한 날은 6월 27일이다.⁵³⁾ 제2보병사단은 6월 25일 04:00경 국군 7연대 방어지역에 대해 공격을 개시했다. 약 1시간에 걸친 공격준비사격이 끝나고 주공인 6연대가 국군 3대대 9중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했다. 또한, 조공인 4연대는 국군 7연대 2대대의 방어정면으로 공격을 했다. 최종 전투결과, 최근임무인 춘천을 27일 15시 완전히 점령하고 계속 진공하여 가평리를 28일 3시에 완전히 점령했다. 가평은 28일 17시에 출발했다.⁵⁴⁾ 하지만 춘천 전투에서의 비효율적인 전투지휘로 작전에 차질을 가져온 제2보병사단은 6월 28일 사단장이 이철송 소장에서 최현 소장으로 교체되었다.⁵⁵⁾ 춘천을 점령한 사단은 가평, 청평, 경안리⁵⁶⁾ 방면으로 압력을 가했다.⁵⁷⁾

춘천 전투 결과 국군 입장에서는 수도권 일원에 투입된 국군 주력이 포위될 위험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북방에서 철수한 국군 병력이 한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차후 작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군 입장에서는 초기 결전장으로서 서울을 목표로 정하고, 주·조공의 협공작전을 펼침으로써 목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조공의 작전 실패로 인하여 목적인 바인 국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다. 이로 말미암아, 작전상 전반적인 차질을 빚게 된 것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북한군은 그 이후로부터는 전 전선에 전투력을 균등하게 전개하여, 각 전투부대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진격하는 전법

52)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442쪽.

53)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11쪽.

54) 『報告 제7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6.28., SA2009, Box7, Item#43. 사단 공병장의 사료와 달리 예비대로 후속하던 17연대는 6월 28일 12시 5분에 춘천을 완전히 점령하였다고 보고되어 있다. 『종합전투보고』,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4., SA2009, Box7, Item#43.

5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51쪽.

56) 현) 광주시 경안동

57)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육군본부, 1958, 79쪽.

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⁵⁸⁾ 전쟁 후 소련의 평가에도 남동쪽에서 우회하여 서울에 위치한 국군 주력의 퇴로를 차단해야 했던 제2보병사단 등은 사단장의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험한 지형과 포병이 공격부대를 제대로 후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무를 완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⁵⁹⁾

3. 남으로 전진과 2단계 작전

가. 한강 도하 및 용인, 이천, 안성, 진천

제2보병사단은 한강 도하 후 기동로를 변경하여 7월 2일에 김량장(용인) 및 곤지암 방향으로 기동했다. 국군이 배치되지 않은 이천, 장호원, 진천, 음성 지역으로 은밀히 기동하여 국군의 후방을 차단하여 섬멸하고자 기도했다.⁶⁰⁾ 공병대대는 6월 28일 17:00에 가평을 출발하여 29일 19:00에 상팔리⁶¹⁾에 도착하여 30일 도하를 지원했다.⁶²⁾ 한강 도하 지점은 팔당리(양수리 포함⁶³⁾)였다. 처음

58) 김기옥, 「한국전쟁 초기, 춘천 홍천 전투가 전세에 미친 영향」, 『군사』 12, 1986, 47-48쪽.

59) Авторский Коллектив,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Издательство Полигон, 2003, С П 6, с.75. 1956년에 소련 국방성에서 비공식 발간되었던 이 책은 현재 국내에 두 번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韓國 戰爭』, 오비기획, 2002. (완역); 이은연 역, 『소련이 기술한 6·25전쟁 I』, 육군군사연구소, 2019. (육군군사연구소는 2017년 1차로 부록을 먼저 번역하여 발간하였고, 본문은 총 4권의 전집으로 2022년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6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323쪽.

61) 현) 가평군 하면 상판리

62) 『報告 제8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6.30., SA2009, Box7, Item#43.

63) 6연대 공병장 보고에는 양수리에서 한강을 도하했다고 되어있다. 『報告 공병소대 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관하여』,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7.12., NARA, RG242, SA2009, Box7, Item#43.; 17연대도 양수리에서 도하했다고 보

수행한 강행도하에 공병부대들은 새로 도하기재를 접수하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기재를 가지고, 유엔군 항공기의 비행 속에서도 사단의 전투역량을 전부 도하시켜 전투를 보장했다.⁶⁴⁾ 한강을 도하한 사단은 7월 3일 광주를 점령하였고, 이천에서 전투를 벌였다. 공병대대는 대부분을 도하시키고 포차(砲車) 일부와 자동포 및 독립대대 후방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⁶⁵⁾ 하지만 7월 3일에 도하를 위한 도하기재 지원과 도하를 위한 항공지원을 3일 19:00부터 5일 18:00까지 요구했다.⁶⁶⁾ 6월 29일 야간부터 개시된 팔당리 구역 한강도하는 도하기재 부족으로 인하여 7월 4일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보병부대 및 독립구분대와 소유하고 있는 무기, 고사기관총, 각종 포, 포차 등은 완전 도하하였으며 탄환과 연유도 다수 도하했지만, 자동차 30대, 마차 40대, 연유 20톤, 식량 80톤, 탄환 68톤, 자동포대대는 도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도하기재인 A3 공기선 2개조와 뗏세루(Π C II, 접이식 상륙정) 15척으로는 많은 시일이 경과할 수 있으며, 특히 자동포는 도하기재가 없어 도하가 불가능했다. 이에 사단 공병장은 상급부대 공병장에게 자동포를 도하할 수 있는 엠 누바 뺨(H2II, 중철주(重鐵舟)세트)를 보내주기를 요망했다.⁶⁷⁾ 결국 제2보병사단장은 점령한 지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도하장비의 부재로 인하여 도하가 지연되어 뒤늦게 따라온 야포와 자주포를 집결시키고, 부대를 재정비한 후 7월 3일 아침에 공격을 재개하였다.⁶⁸⁾ 소련은 북한군의 도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북한군은 여러 큰 강들을 도하해야 했다. 하지만 준비

고되어 있다. 『종합전투보고』, 박현 242군부대 공병장, 1950.7.4., SA2009, Box7, Item#43.

64) 『工兵戰鬪報告』, 238군부대 공병장 조병순, 1950.7.7., SA2009, Box7, Item#43.

65) 『報告 제1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66) 『報告 제9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67) 『報告 제11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4., SA2009, Box7, Item#43.

6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173쪽.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도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도하장소에 도착하는데도 도하를 감행하기도 했다. 도하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졌고, 도하장비가 부족하여 보병과 경장비들은 보트와 뗏목으로 도하했고, 전차와 자주포 등은 노획한 선박이나 교량이 복구된 후에야 도하가 가능했다.⁶⁹⁾

한강을 도하한 제2보병사단은 광주-김장량리 방면에 4연대를 투입하고, 6연대를 곤지암과 임원리 방면으로 우회토록 했다. 이어 안성-진천-청주 점령 전투에는 포병을 중앙에 배치, 도시에 포격을 가한 후 국군의 측방으로 기동하여 타격을 가하는 전술을 사용했다.⁷⁰⁾ 주력 4연대는 7월 1일 02:00부터 06:00경에 한강 도하를 끝마치고 광주, 김량장리,⁷¹⁾ 안성에 있는 국군 잔병과 전투했다. 그리고 7월 6일 아침 진천에 도착했다.⁷²⁾ 6월 28일 춘천을 점령한 17연대는 가평, 마석우리⁷³⁾를 지나 양수리에서 도하하여 광주를 지나 고산리⁷⁴⁾와 왕산리를 지나 7월 2일 21:00에 고림리⁷⁵⁾에 집결했다.⁷⁶⁾ 17연대는 7월 1일 아침 남한산성 동쪽 595고지 부근에서 이천지구 전투사령부와 치열한 전투를 전개했다.⁷⁷⁾ 제2보병사단은 7월 6일 짧은 시간 포병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한 후 안성으로 진격을 시작하였으며, 국군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17:00 무렵 안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7월 7일 10:00까지 예하부대를 정비하였다.⁷⁸⁾ 17

69) Авторский Коллектив, Война в Корее, 1950-1953, с.102-103.

7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31쪽.

71) 현) 용인시 중앙동

72) 『報告 공병소대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관하여』, 244군부대 공병장 박희만, 1950.7.12., SA2009, Box7, Item#43.

73) 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74) 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75) 현) 용인시 모현읍 왕산리

76) 『종합전투보고』,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4., SA2009, Box7, Item#43.

77)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48쪽.

7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186쪽.

연대 공병대대는 7월 5일 19:00에는 167.8고지를 떠나 김량장리를 통과하고, 안성읍에 7월 7일 02:00에 도착하여 연대장 감시소를 설치했다. 7월 7일 14:00에 행군을 개시하였고, 7월 8일 13:00에 니리에 도착했다.⁷⁹⁾ 제2보병사단은 춘천 전투 동안 상당한 병력손실을 입었으며, 제2차 작전과정에서도 유엔군 항공폭격으로 보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인명손실에 대한 병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량마저 부족했으나, 야음을 이용해 운반된 탄약은 충분하게 보급되었다.⁸⁰⁾

안성 지역으로 진출한 후 제2보병사단은 동남방면으로 진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⁸¹⁾ 안성 방면과 장호원 방면에서 남진하던 사단은 협조된 공격으로 진천을 점령하고 청주 방면으로 남하할 계획이었다. 선두부대들은 7월 7일 진천 북방 4km 지점에 도달하였고,⁸²⁾ 진천 전투가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군 수도사단과 벌어졌다. 진천 동쪽을 남북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 병력을 배치한 국군 1연대 경계부대에게 포병의 지원하에 전차 10여대와 함께 많은 병력이 공격을 가했고 후퇴시켰다.⁸³⁾ 7월 10일 국군에게 진천을 잠시 탈환당하기도 하였다.⁸⁴⁾ 7월 10일 12:00부터 415고지 일대에 대한 1연대의 반격이 실시되었고 결국 제2보병사단은 고지를 탈취당했다. 이 415고지 반격점령은 수도사단이 개전 이후 최초로 반격에 성공하여 고지를 확보한 것이었다.⁸⁵⁾

제2보병사단은 진천을 점령유지하고 있던 7월 10일부터 금강 도

79) 『工兵戰鬪報告』, 242군부대 공병장 박현, 1950.7.8., SA2009, Box7, Item#43.

80)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3, 434쪽.

81)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187쪽.

82)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94쪽.

83)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704-706쪽.

84)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국방부, 1951, B17쪽.

85)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706쪽.

하작전을 준비했다. 금강 교량이 파괴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상부에 전차와 자동포를 도하 할 수 있는 H2Ⅱ 세트 48개 또는 A3 공기선 20조를 보내주기를 건의했다.⁸⁶⁾ 7월 11일 먼동이 트기 시작하자 사단은 전 병력으로 반돌격⁸⁷⁾을 전개했다. 동시에 415고지를 우회하여 국군 1연대 CP가 있는 고지 후방 오창리에 침투하였다. 결국 15:00경 고립무원이 된 415고지의 1연대가 고지를 넘겨주고 철수하게 만들었다.⁸⁸⁾ 또한 진천 남쪽 1km 105고지에서는 4연대에 배속된 공병대대 1중대와 연대 공병소대가 작전 중에 강력한 국군 병력과 교전을 벌였다.⁸⁹⁾ 하지만 사단장의 결정적이지 못한 행동과 보병과 포병간 협조체제 미비로 인하여, 7월 10일 진천을 점령한 제2보병사단은 12일까지 국군의 공격에 의해 진격이 지연되었다.⁹⁰⁾

진천 지역으로부터 청주로 기동한 제2보병사단은 공격 방향 기준으로 북한군 제1군단의 좌익을 엄호하면서 청주, 보은 방면으로 공격하도록 되어 있었다.⁹¹⁾ 청주 전투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고, 국군 수도사단이 방어를 실시했다. 당시 수도사단이 추정한 제2보병사단의 전투력은 병력 12,000명이며, 122mm 12문, 76mm 13문, 45mm 대전차포 43문, 82mm 박격포 78문, 자동포 13문이 있었다.⁹²⁾ 물론 이 수치는 전투개시 전 수도사단의 자체 추정치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병력면에서만 봐도 최초 개전 시 병력 추정치로, 제2보병사단은 이미 춘천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86) 『報告 제1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 SA2009, Box7, Item#43.

87) 방어시 방어중심에 침입한 적을 맞받아가면서 진행하는 돌격으로써 적의 돌격에 반대하여 진행하는 전투행동.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123쪽.

88)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707쪽.

89) 『報告 戰死者 및 負傷者數 報告에 關하여』, 조병순 238부대 공병장, 1950.7.12., SA2009, Box7, Item#43.

90)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203-204쪽.

91) 군사편찬연구소, 같은 책, 199쪽.

9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14쪽.

제2보병사단은 7월 11일 청주 서쪽에 도달했다. 21:30에 113고지 남경사면에서 지휘소를 이동하여 행군하였으며, 공병대대 교도중대 1소대를 사단 전초로서 파견하여 행군로 수색과 국군이 파괴한 도로와 폭격으로 파괴된 도로를 수리 복구하여 포차 및 마차를 통과 시켜 사단행군을 보장하였고, 12일 04:30에 대락리⁹³⁾ 지점에 도착하여 사단장 지휘소를 구축했다. 또한, 연대에 배속된 공병 제1·2 중대를 12일 16:00까지 철수시켜 사단 예비대로, 1개 소대를 반전차 추격대로 파견했다.⁹⁴⁾ 진천으로부터 이동한 사단은 미호천 북쪽에 진지를 구축 중, 국군 수도사단의 경계선을 파악하고 남일면 방향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13일 전차를 선두로 하여 강행도하하여 미호천 남안에 진출하였고, 교전 결과 수도사단은 13:30에 청주 남방 유관리⁹⁵⁾로 철수했다.⁹⁶⁾

기록에 의하면 제2보병사단은 청주를 7월 13일 점령하였고,⁹⁷⁾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도 7월 13일 오후 늦게 청주를 점령하였다고 되어있다.⁹⁸⁾ 이후 4일간 교전이 벌어졌다. 사단은 14일 아침에 정찰 활동을 실시하고 오후부터 고은리⁹⁹⁾와 부강리¹⁰⁰⁾ 방면으로 병력을 남하시켰다. 14일 사단은 수도사단이 요지인 431고지에 병력을 배치하기 전에 먼저 고지를 점령하였나, 수도사단 1연대가 고지를 공격하여 빼앗겼다. 그리고 279고지-280고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한 국군 8연대와 교전을 하였다. 15일에는 8연대와 진지 교대를 한 17연대 및 1연대와 교전을 하였고, 결국 15시경 청주방면으로 후퇴하

93) 현) 청주시 다락리

94) 『報告 제12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18., SA2009, Box7, Item#43.

95) 현)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유관리가 고은리에 통합됨)

96)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19-20쪽.

97)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18쪽.

98)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예프 보고서』 1, 204쪽.

99) 현)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

100) 현)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였다. 또한 항공기의 공격으로 청주에서 남하하던 전차 13대 중 9대가 파괴되었다.¹⁰¹⁾ 사단은 병력을 증강하여 다시 남하를 시도했다. 그동안 손실이 컸던 17연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였고, 431고지를 방어하던 8연대와 3연대도 보은 방향으로 철수하였다.¹⁰²⁾ 사단 지휘소는 7월 14일 대락리를 출발하여 16일 청주에 도착하였으며, 19일 청주에서 약 12km 전방에서도 국군과 교전이 있었다.¹⁰³⁾

나. 청주에서 황간까지

청주를 침공한 제2보병사단은 영동, 김천, 성주, 도평동을 경유하여 창녕으로 주력을 지향했다.¹⁰⁴⁾ 7월 18일 10:00 사단 참모부는 청주에서 행군전투명령을 하달하였다. 사단은 퇴각한 국군이 회인¹⁰⁵⁾과 보은 계선에서 집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사단은 증강무기와 함께 퇴각하는 국군을 추격¹⁰⁶⁾하여 19일 미명기에 계선의 적을 소멸하고 19일 미명까지 보은 계선에 도달하여 만월리,¹⁰⁷⁾ 대안리 계선까지 진출하고자 했다. 출발준비 완료는 18일 17:00까지였으며, 출발점은 성남리였다. 행군로는 청주, 행정리,¹⁰⁸⁾ 문산리,¹⁰⁹⁾ 묘암리,¹¹⁰⁾ 회인, 보은, 대안리,¹¹¹⁾

101)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21-22쪽.

102)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같은 책, 23-24쪽.

103) 『報告 제14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19., SA2009, Box7, Item#43.

104)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92쪽.

105) 현) 보은군 회인면

106) 퇴각하는 적을 따라가면서 소멸하는 공격전투의 한 형식으로써, 공격성과 확대와 퇴각하는 적에 대해서 실시한다.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296쪽.

107) 현)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108) 현) 청주시 가덕면 행정리

109) 현) 청주시 문의면 문산리

110) 현) 청주시 문의면 묘암리

111) 현) 보은군 내북면 대안리

만월리 순이었다. 출발점 통과는 사단장의 지시에 따라 하게 했다. 교암리¹¹²⁾, 변원리¹¹³⁾ 계선에 집결하게 하였으며, 공격개시는 특별 명령에 의하여 실시하게 했다.¹¹⁴⁾

7월 18일 주간에는 부족한 탄환을 보충하며 대오를 정돈하게 하였으며, 행군 시는 도로 좌우측으로 1열 종대로 하되 보병 뒤에 포병이 따라서며, 자기 구분대의 중강무기와 기재 일체는 타 구분대 서열 내에서 행군하지 못하게 했다. 정황이 있을 시 수시로 포병, 전차, 자동포가 행동(전방에 진출)할 수 있게 행군 질서를 엄격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좌우측 경계(도로에서 약 2km)는 1개 중대 병력으로 선정하되, 연대참모부에서 열대대장행군관을 운용하게 했다. 행군은 종대로 통과함을 엄금하며 철저한 수색과 정찰감시로 통과하며 주력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으며,¹¹⁵⁾ 7월 20일 사단은 이동을 재개했다. 남일면에 집결하고 있던 사단은 공병대대 기준으로 18:00에 출발하여, 7월 21일 17:00에는 피발령¹¹⁶⁾ 남쪽에 도착했다.¹¹⁷⁾ 7월 22일에는 보은면 소재지, 23일에는 석봉산, 24일에는 청산¹¹⁸⁾을 지났다.¹¹⁹⁾ 보은 점령완료는 23일이었다.¹²⁰⁾

상급부대 명령들도 접수되었다. 23일에는 대전 점령에 대해 제1군단을 치하하는 김일성 명령 제026호가 하달되었다.¹²¹⁾ 같은 날 전선사령부에서는 식료품 및 폭발물에 대한 경각성 제고에 관한 명

112) 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113) 현)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114) 『行軍戰鬪命令』,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18., ATIS Document, No.201103.

115) 같은 사료.

116) 현) 피발령. 충북 보은군 회인면에 있으며, 청주에서 보은으로 넘어오는 고개.

117) 『報告서』,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7.16, SA2009, Box7, Item#43.

118) 현) 옥천군 청산면

119) 『戰鬪綜合報告 제15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5., SA2009, Box7, Item#43.

120)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I, 사회과학원, 1981, 327쪽.

121) 『명령 제026호』,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7.23., ATIS Document, No.201103.

령이 하달되었다.¹²²⁾ 제2보병사단은 계속 이동했다. 7월 25일 21:00 청산면을 출발하여 상용리¹²³⁾에 7월 26일 04: 30에 집결했다. 행군 중 공병은 폭격당한 자동차를 폭파하였고, 반전차 지뢰를 해체하여 행군로를 보장하기도 했다.¹²⁴⁾ 7월 26일에는 “국군과 유엔군은 대구를 중심으로 수 개의 방어선과 수다한 방어진지를 구축한다”는 전선사령부 지령 No.5가 접수되었다.¹²⁵⁾ 27일 17:00 용암리에 도달했다. 공병은 경찰을 통해 용암리와 원천리¹²⁶⁾간 지뢰를 해체하여 행로를 보장했다.¹²⁷⁾ 27일에는 황간 측방에서 미 제1기병사단과 전투를 벌였다.¹²⁸⁾ 또한, 28일 새벽부터 황간 서측에서 거센 공격을 하였지만 저지당했다.¹²⁹⁾

황간 전투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영동에서 철수한 미 제1기병사단이 주방어부대였다. 사단 공병부대는 용석리부터 황간까지 국군이 매설한 반전차 지뢰 14개를 해체하였으며, 황간교에 전기폭파 장치가 된 폭약 2개 상자와 그 지주에 장치된 폭발제를 제거하고, 또한 파괴된 도로 3개소와 황간교 및 교량을 복구 수리하여 황간까지 전차 및 자동포를 통과시켰다. 31일 03:00에는 매설된 반전차지뢰 11개를 해체했다. 공병경찰 성원들은 31일 김천 방향으로 가는 길을 정찰했다.¹³⁰⁾ 그동안 공병은 전투를 보장하기 위

122) 『命令 제108호 식료品 및 폭발물에 對한 경각성 제고에 對하여』, 전선사령부 총사령관 김책, 1950.7.23, ATIS Document, No.201103.

123) 현)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124) 『戰鬪報告 제16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6., SA2009, Box7, Item#43.

125) 『指令 No.5』,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1950.7.26., ATIS Document, No.201103.

126) 현) 영동군 황간면 원천리

127) 『戰鬪報告 제17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28., SA2009, Box7, Item#43.

128)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 국방부, 2008, 6쪽.

129) 군사편찬연구소, 같은 책, 192쪽.

130) 『戰鬪綜合報告 제18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7.31., SA2009, Box7, Item#43.

하여 공병정찰조, 지뢰해체조, 도로수리조, 도하기술적 보장대, 사단지휘소 구성대, 반전차 구축대, 이동장애물 설치대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왔다.¹³¹⁾ 황간 전투 이후에는 공병대대가 먼저 황간 및 김천 방향 정찰을 실시했다. 7월 30일 10:00에 파견된 도로정찰대는 국군의 화력으로 인하여 황간 시가지 밖에 17:00까지 중지했다. 그 후 어둠을 이용하여 계속 정찰을 하여 황간-신촌¹³²⁾-내동¹³³⁾까지 가용한 도로 및 교량을 확인했다. 그리고 교량에 설치된 폭약을 발견하였고, 발견한 지뢰도 해체했다. 내동과 노천리 서쪽 고지와 장성리 니촌 고지 등에 있는 전투력 미상 국군을 발견하고, 율음리 방향에서 포음을 청취했다. 전차가 내동산 밑 길에 있는 것도 확인했다.¹³⁴⁾ 7월 28일에는 제1군집단지휘부 사령관의 7월 6일자 제51호 명령인 노획무기 및 부상병들의 무기 취급에 대한 명령이 접수되었다.¹³⁵⁾ 또한, 사단장은 7월 29일에 총사령관 제108호를 이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금지했다.¹³⁶⁾

131) 『戰鬪綜合報告 제23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12., SA2009, Box7, Item#43.

132) 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133) 현) 영동군 .매곡면 노천리

134) 『정찰情況報告서』,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31., ATIS Document, No.201103.

135) 『命令 第51號 命令』, 1군단집단 사령관 김웅, 1950.7.26., 『命令 No.18 로획武器 및 부상兵들의 武器取扱에 對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28., ATIS Document, No.201103.

136) 『命令 제19호 命令移牒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7.29., ATIS Document, No.201103.

4. 재편성과 3단계 작전

가. 김천에서의 재편성 및 지례 방어작전

국내 기록으로 김천은 8월 2일 점령되었다.¹³⁷⁾ 제2보병사단은 8월 1일부터 4일까지 김천 일대에서 작전을 실시하였다. 공병은 국군이 파괴한 교량 및 도로 또는 매설한 반전차 지뢰를 수리 및 해체하여 전차 및 자동포, 포차 등을 통과시켰다.¹³⁸⁾ 8월 3일에는 공병대대 도로수리중대를 먼저 김천 시내 약 100m 전까지 진입시켰고, 김천 전까지 교량은 파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¹³⁹⁾ 하지만 정찰보고에 의하면 대구 방향 도로에 있는 교량은 파괴되었으며, 철교도 파괴되어 보병이 겨우 통과할만하다고 했다.¹⁴⁰⁾

8월 3일 하달된 전선사령부의 전투명령 제121호에는 “8월 6일 내로 대구와 부산을 해방시키라”고 명령되었다.¹⁴¹⁾ 그리고 전선사령부의 명령에 따르면 상주, 김천, 안동 계선에서 퇴각한 국군은 동해안의 태백산맥과 낙동강 및 왜관과 대구 사이를 이용하여 기동 또는 진지방어로서 북한군 공격부대에 반돌격을 실시할 기도와 새로운 부대를 출동시키려고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각종 군사정찰을 조직하여 적정을 제때에 수집해야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¹⁴²⁾ 전선사령부 명령 제122호도 하달되었다.

137)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25쪽.

138) 『戰鬪綜合報告 제20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6., SA2009, Box7, Item#43.

139) 『工兵部長동지 앞』 1,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8.3., SA2009, Box7, Item#43.

140) 『工兵部長동지 앞』 2, 공병대대장 류병준, 1950.8.3., SA2009, Box7, Item#43.

141) 『戰鬪命令 第121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3., 『命令 No.45』,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3., 『命令 No.25』,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42) 『命令』, 전선司令部, 1950.8.3., 『命令 No.27』,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검열결과 각 군단 지휘소와 각 사단 지휘소들은 전선으로부터 25~50km의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지휘체계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명하고, 지휘소를 군대 전투서열에 가까이 두게 했다.¹⁴³⁾

김천 점령 후, 집단군의 제2제대로서 집결하여 집단군장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부대를 재정리 및 보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8월 4일 부분전투명령을 하달하여 4연대는 279.4고지에, 6연대는 대지에, 17연대는 응전에, 포구분대와 전차 및 자동포는 부곡동에, 사단참모부와 직속대는 약수 동남협곡에 각각 집결하게 하였다. 반항공대책을 위하여 반항공을 조직하고 엄밀한 위장대책과 항공감시를 하게 하였으며, 모든 운수기재를 이용하여 탄약과 포탄 및 전투물자의 수송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전투 개시 이래 낙오한 전투성원을 급속히 수집하여 부대를 정리할 것이며, 보충인원을 신속히 전투성원으로 편입시켜 전투훈련을 실시하여 언제든지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게 했다.¹⁴⁴⁾ 이런 기본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부대정리공작계획도 하달되었다.¹⁴⁵⁾ 8월 2일자 포탄 및 기타 군수품 물자 절약에 관한 최고사령관 명령 제050호도 하달되었다.¹⁴⁶⁾ 8월 4일에도 전선사령부 명령으로 공격 전면에서 활동하는 인민유격대들을 속히 모집 장악하여 사단의 보충대대로 편성하라고 했다.¹⁴⁷⁾ 사단 예비성원 조직에 관한 전선사령부의 명령 No.84도

143) 『戰鬪命令 第122號』, 전선참모부, 1950.8.3., 『命令 No.70』,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3., 『命令 No.23』,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6., ATIS Document, No.201103.

144) 『部分戰鬪命令』,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4., ATIS Document, No.201103.

145) 『部隊정리 期間에 戰鬪준비를 爲한 日日工作計劃』, 제2보병사단장 최현 비준, 1950.8.4., ATIS Document, No.201103.

146) 『命令 第50호 포탄 및 기타 군수품 절약의 건에 關하여』,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1950.8.2., 『命令 No.29』,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47) 『命令』, 전선사령부, 『命令 No.71 전선사령부 명령이첩에 關하여』, 제1군집단 사령관 김웅, 1950.8.4., 『命令 No.23』,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6., ATIS Document, No.201103.

10일에 이첩 하달되었다. 이것은 명령 78호로 기하달된 예비대대 조직에 관한 명령의 보충이었다.¹⁴⁸⁾ 전선사령부에서는 7일에 전선을 증원하기 위한 예비대 조직에 많은 기술 인재와 지휘관들이 필요하다며, 자동포대대 중 남은 인원들은 전부 평양조직보충국으로 파견하게 했다.¹⁴⁹⁾

미군 3~4개 사단이 대구, 김천, 대전 방향으로 반돌격할 계획으로 공격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대구 방향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한 제2보병사단에게 8월 8일 19:00까지 출발준비를 완료하고, 20:00에 약수를 출발점으로 하여 행군로를 거쳐 정해진 계선을 점령하여 방어진지를 구축할 임무가 주어졌다.¹⁵⁰⁾ 행군로는 제 4·17연대는 광명리, 상원리, 지례, 내배리(여배리)이며 행군 조절점은 No.1 공명동, No.2 상원리, No.3 지례, 출발점은 약수로 했다. 방어구역은 4연대는 538.3고지, 335.0고지, 상원리, 금평동, 두상 등의 방어 전연을 차지하고, 중심은 송천리 전 지역에서 주요 개소마다 방어를 실시할 것이며, 김천대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반돌격할 준비를 하게 했다. 또한, 4연대에서는 연대 76mm~45mm 반전차포대대 2중대와 공병대대 1중대 및 전차대대로서 증강된 1개 대대를 김천 남단 약수와 응전 남쪽 무명고지 양계선에 배치하고 왜관으로부터 대도로를 통한 반돌격을 불허하며 적을 소멸하게 했다. 17연대는 화신평(하신평), 무명고지, 중리, 1032.2고지를 전연으로 하고 평촌리 일대를 계선으로 한 방어구역을 차지하고 지역요소마다 방어 조직을 하며, 광성동, 금암동, 왜관 방향으로 반돌격할 준비를 하게 했다. 6연대는 단독행군 중대로서 8일 20:00 정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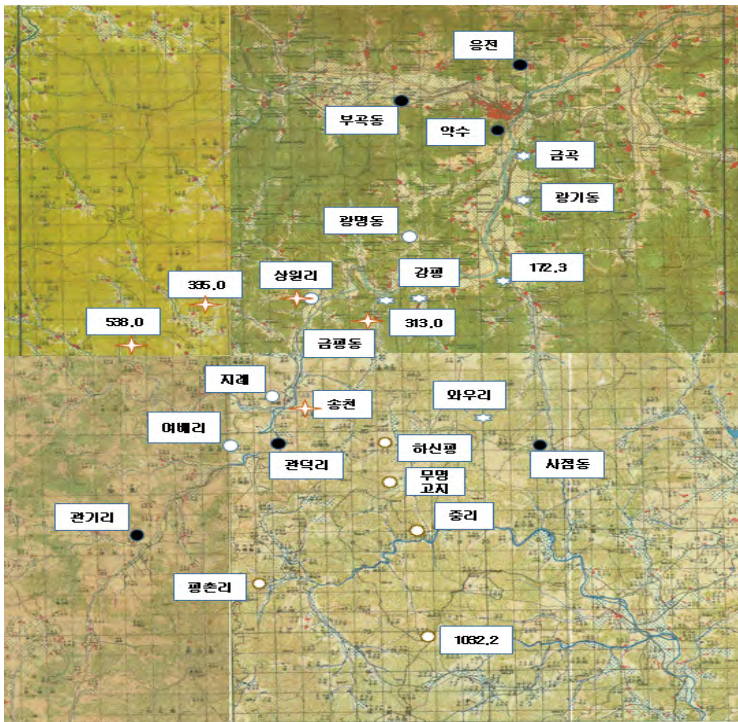
148) 『戰鬪命令 제32호』, 전선사령부 총참모장 강건, 1950.8.5., 『命令 No.29』,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49) 『戰鬪命令 제135호』, 전선사령관 김책, 1950.8.7., 『命令 No.28』,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150) 『行軍戰鬪命令 No.26』,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쪽.

에 금곡을 출발하여 광기동, 대평으로 행군하여 303고지, 강평, 172.3고지, 막리를 전연으로 하고, 와우리 일대를 방어구역으로 설정하고 김천과 대구 방향으로부터의 반돌격을 불허하며 완전히 소멸하게 했다. 사단 지휘소는 관덕리에 두었으며 사단 후방은 광기리에 위치시켰다.¹⁵¹⁾ 행군중대는 17연대를 사단 전위대로 하고 4연대를 사단 주력으로 한 행군서열로서 전위대의 출발선 통과는 8월 8일 20:00 정각이었다.¹⁵²⁾

〈그림 4〉 김천 및 지례 작전 지형도



151) 『行軍戰鬪命令 No.26』,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2쪽.

152) 같은 사료, 2-3쪽.

제2보병사단에서 8월 11일에 보고한 현재 사단 전투력은 <표 5>와 같이 군관 694명, 하사 1,475명, 전사 4,884명으로 총 7,053명이었다. 개전 이래 전사자 총수는 4,813명으로 참전 초기 사단의 총병력은 11,796명이었다.¹⁵³⁾ 이 인원통계는 부대별 세부인원과 최초 인원, 전사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재편성간에 신대원(新隊員)¹⁵⁴⁾은 3차례 보충되었으며, 1차 810명, 2차 910명, 3차 60명으로 총 1,780명이 보충되었다.¹⁵⁵⁾

〈표 5〉 인원 통계

구분대	군관	하사	전사	계	비고(전사자)
제235군부대	79	86	158	323	244
238(4연대)	106	271	974	1,351	789
242(17연대)	132	345	1,133	1,610	1,245
244(6연대)	96	203	1,062	1,361	483
247	112	219	605	956	824
268	14	24	219	257	223
256	23	66	103	192	169
235(저)	3	28	23	54	51
251(공병대대)	3	59	184	273	243
253	30	51	198	279	229
235(우)	7	16	47	70	63
266	36	37	144	217	166
262	26	70	14	110	84
합계	694	1,475	4,884	7,053	4,813
			최초 인원	11,796	

* 출처 : 『新隊員 접수 統計』

153) 『人員統計』, 1950.8.11., ATIS Document, No.201103, 2-3쪽.

154) 새로 입대한 대원 또는 입대한지 오래되지 않은 대원 = 신입병사 ↔ 구대원. 정보사령부, 『북한 군사용어집』, 184쪽.

155) 『新隊員 접수 統計』, 1950.8.10., ATIS Document, No.201103.

재편성간 부대관리 및 군기강화도 전개되었다. 8월 12일에는 위
술경무관 제도 조직 및 강화에 관한 명령이 하달되었다.¹⁵⁶⁾ 8월 13
일 사단장은 명령 No.28호에서 부대의 전투보고는 매일 2차례씩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6연대에서는 부대가 집결
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전투보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
다.¹⁵⁷⁾ 14일에는 8·15해방 5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하여 최고사
령관은 추가규정량의 특별식사 조직이 승인되었고,¹⁵⁸⁾ 대구에서 호
열자¹⁵⁹⁾가 유행하고 있으니 예방주사 실시와 음수, 숙박 등을 금지
하며 지방민과 접촉을 절대 금지할 것이 지시되었다.¹⁶⁰⁾ 16일에는
제1집단 문화사령관의 지령으로 포로살상 엄금이 지시되었다.¹⁶¹⁾

나. 도하작전 준비 및 낙동강 도하작전 개시

제2보병사단은 차후 작전으로 낙동강 도하를 준비했다. 주 담당
은 공병으로, 공병장은 은석동¹⁶²⁾에 위치하고 있었다. 공병 역시 8
월 4일부터 부대인원을 보충·정리하고 각종 전투기재를 정비했다.
6일 현재 북한군 제15보병사단은 선산에서 2km 떨어진 덕곡¹⁶³⁾에
있으며, 국군이 낙동강을 건너 방어하고 있어 아직 선산 시내에는

156) 『命令 No.30 衛戍경무官 制度 組織 및 強化에 관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2-3쪽.

157) 『命令 No.31 定期戰報報告制度 強化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3., ATIS Document, No.201103.

158) 『命令 第114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14., 『命令 No.32』,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4., ATIS Document, No.201103.

159) 胡熱者, 콜레라

160) 『電報命令號』, 전선사령관 김책, 1950.8.15., 『命令 No.34』,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15., ATIS Document, No.201103.

161)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제235군부대 문화부 문화부대장 최봉철, 1950.8.16., ATIS Document, No.200790.

162) 현)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163) 현) 구미시 선산을 덕곡마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¹⁶⁴⁾ 공병의 6일 선산 방향 정찰보고에 의하면 선산을 거쳐 2km 가면 강촌이 있는데 이 지점에 낙동강 도하장이 있었다. 강폭은 500m이며 물넓이는 150m, 깊이는 3m, 토질은 모래, 얇은 곳은 1m로 이곳은 자동차는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파악했다. 선산까지 도로는 완전했다.¹⁶⁵⁾ 이후 8일에는 정찰내용이 종합보고 되었다. 공병은 앞으로 행동할 남행 국도 방향으로 선산, 왜관, 성주에 도로상태 및 도하구역 정찰성원을 파견했다. 이미 파악한 선산 지점이 도하 가능 지점이며, 낙동강을 도하하기 위하여 김천 시내에서 도하기재를 수집하고 있으며, 청주에 보관한 공병대대의 도하기재도 차량 35대로 동원하여 운반했다. 또한, 이미 보유한 각종 폭약 이외에도 노획한 반전차지뢰와 폭약을 소유하고 있었다.¹⁶⁶⁾ 8월 8일에는 도하중대의 김천강 정찰 결과, 양안 통행로는 견고하며, 도하 통로는 파괴되지 않았고, 물넓이는 100m, 수심은 0.3m로 저수에는 가마니가 깔려있고, 전차도 통과하는 등 도하는 양호하다고 보고되었다.¹⁶⁷⁾

관덕리에 있던 사단 지휘소는 8월 13일 09:00에 이동을 시작하여, 23:00에 사점동으로 이동했다.¹⁶⁸⁾ 8월 15일에는 부대의 이동 및 행군 시 서열에 정비성을 보장하며 행군 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정리원이 조직되었다.¹⁶⁹⁾ 이어서 낙동강으로 이동

164) 『情況에 依하여』,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6., SA2009, Box7, Item#43.

165) 『工兵部長 동지앞 報告書』, 1950.8.6., SA2009, Box7, Item#43.

166) 『戰鬪綜合報告 제21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녕, 1950.8.8., SA2009, Box7, Item#43.

167) 『金泉江 偵察 결과보고에 關하여』, 251군부대 부대장 류병준, 1950.8.8., ATIS Document, No.201103.

168) 『戰鬪綜合報告 제24호』, 235군부대 공병부, 리갑령 공병장, 1950.8.13., SA2009, Box7, Item#43.

169) 『命令 No.35』, 第2步師參모部, 崔현 師團長, 1950.8.15., ATIS Document, No.201103.

이 시작되었다. 김천과 지례에서 휴식 및 재편성, 방어작전을 마친 사단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었고, 김천 및 사점동으로부터 고령 및 합천까지 부대 행군을 마쳤다.¹⁷⁰⁾ 8월 17일부터 사단은 전선에 투입되어 국군에 맹공을 개시했다.¹⁷¹⁾ 17일 창녕으로 이동간 공병은 1개 공병중대를 사단 전위대로 파견하여 공병정찰 및 지뢰 해체, 도로수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성주에 있는 사단 도하기재 및 지뢰와 폭발물을 창녕으로 운반하였다.¹⁷²⁾ 공병대대는 17일 19:00에 출발하여, 18일 18:00에 도착하였다.¹⁷³⁾

이후 제2보병사단은 다시 구 지휘소이던 합천을 출발하여 대곡리에 도착하였고, 관하 각 부대들은 낙동강 강행도하 조직을 위한 준비를 했다.¹⁷⁴⁾ 그리고 미 제23연대를 공격하기 위해 도하가 가능한 지점(내재 나루터·적포교·삼발머리 나루터)에서 도하준비를 했다.¹⁷⁵⁾ 그리고 8월 31일 22:00경 낙동강을 도하하여 강행도하로써 미군을 공격했다.¹⁷⁶⁾ 이로써 낙동강 돌출부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미 제8군은 창녕과 영산을 북한군에게 빼앗기면 대구와 부산 간 도로가 차단됨으로써 전체 작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사수하고자 예비대를 투입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였다.¹⁷⁷⁾

170) 『命令 No.42 部隊行軍實施 결과에 關하여』, 제2보병사단장 최현, 1950.8.20., ATIS Document, No.201103.

171)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B33쪽.

172) 『戰鬪報告 제25호』, 235군부대 공병장 리갑령, 1950.8.17., SA2009, Box7, Item#43.

173) 『行軍에 關한 報告』, 251군부대 참모장 정명순, 1950.8.18., SA2009, Box7, Item#43.

174) 『戰鬪報告』, 235부대 공병장 리갑령, 1950.8.27., ATIS Document, No.201103.

175)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국방부, 2008, 242쪽.

176) 『戰鬪보고 낙동강 도하에 關하여』, 238군부대 공병장 조병순, 1950.9.5., SA2009, Box7, Item#43.

177)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243쪽.

5. 맺음말

제2보병사단은 북한군의 주요 공격부대였다. 6·25전쟁 전에 함흥에서 출발하여 화천에 전개하였고, 전쟁발발 시에는 춘천-가평 축선 공격을 담당했다. 한강 도하 이후 7월에는 광주, 용인을 거쳐 안성과 이천으로 이동하였으며, 진천과 청주를 점령했다. 이후 보은을 거쳐 황간을 점령하고, 김천에 도착했다. 8월 김천에서는 예비대로 휴식과 재편성을 실시했다. 더불어 지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면서 차후 작전인 낙동강 도하작전 준비에 매진했다. 그리고 8월 하순 김천을 떠나 합천과 고령으로 이동하여 낙동강 도하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우리 공간사와 여러 책자에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고 정리되지 않은 제2보병사단의 6·25전쟁 초기 작전을 살펴보았다. 단순히 기존 국내에서 활용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다루었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은 새로운 사료들을 확인하여 꼼꼼히 분석하여 보충했다. 예를 들어 개전 직전 전투명령은 공간사에서도 다루어진 사료이지만 공간사 집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되어 활용되었던 것을 이 연구에서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또한, 공간사가 국군 기준으로 서술되면서 그 서술에서 제외될 수밖에 사단 기록들을 추가했다. 한강 도하작전 시 모습을 확인하였고, 남으로의 이동과정에서 수행한 전투기록들도 확인했다. 예비대로 지정되어 김천에서 재편성하는 내용도 살폈고, 낙동강 도하작전을 준비하는 활동도 다루었다. 이러한 사단 작전수행의 재구성은 단지 제2보병사단을 이해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단의 작전수행을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군의 주요 사단이 어떻게 작전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6·25전쟁 시 북한군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

군 작전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전쟁 전체를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방식의 기초 연구들이 쌓여야지만 6·25전쟁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내실화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수행한 연구는 매우 협소한 범위의 연구임에도 학술적 의미가 있는 ‘사료 중심의 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6·25전쟁 연구가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전쟁 당시 북한군 작전에 대한 사료 정리라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는 방법론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초기 연구자들과 공간사 집필자들은 북한군 관련 사료 활용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RG242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사와 연구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취사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사료는 강제로 나누어져 책의 이곳저곳에 활용되었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살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리고 집필과정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활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공간사와 연구결과가 한 번 나오게 되면, 이후 연구자의 대부분은 그 결과물과 각주를 손쉽게 재인용 했다. 그리고 사료 확인도 기존에 확인되어 공간사나 연구서에 나온 그 사료만 반복해서 활용하고, 관련된 더 많은 사료를 찾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다. 기초 사료를 찾고, 분석하는 작업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RG242 사료지만 각각의 연구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되어진 결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되지 못했고 연구에 관심 주제로 거론되지 못했던 북한군 부대 단위의 작전내용을 정리했다. 이 논문을 통해 최소 북한군 제2보병사단은 함흥에서 낙동강까지 이러한 작전들을 수행했다고 알 수 있게 되었고, 차후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활용해 자신들의 연구에 필요한 사료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연구는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기초 연구들이 쌓여야만 더 큰

규모의 분석과 이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6·25전쟁의 전체와 국군의 세부 전투를 연구하는데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기존 연구서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연구된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서술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필자 역시 북한군 제2보병사단의 모든 사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용한 사료만을 분석하였고, 다양한 부대의 작전을 다루지 못하고 일부 부대(특히 공병)을 주로 서술했다는 한계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원고투고일 : 2020. 7. 2, 심사수정일 : 2020. 8. 13,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한국전쟁, 제2보병사단, 북한군, 조선인민군, 공병작전

〈참고자료〉

북한군 제2보병사단 기동로(1950.6~8)



〈참고문헌〉

1. 사료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08, 『제2사단 철도수송 계획표』

－ 第2師團 鐵道輸送 計劃表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67, 『지령-제2보사참모 부, 1950.6.24』

－ 指令 第15号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89, 『봉급수지 증빙서(전도금청 산명세서, 군관봉급명단 외), 조선인민군 제242군부대(1950.5.3)』

－ 軍官俸給名單, 戰士下戰士支給俸給合計算書 등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0790, 『제235군부대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1950.8.16)』

－ 지령 포로살상 엄금에 대하여

NARA, RG242, ATIS Document, No.201103, 『부대정리기간에 전 투준비를 위한 일일공작 계획』

－ 鬪命令 第001号, 報告書 戰鬥경과 報告에 關하여, 行軍戰鬥命令, 명령 제026호, 정찰情況報告서, 命令 제108호 식료品 및 폭 팔물에 對한 警戒성 제고에 對하여, 命令 第51號 命令, 戰鬥命令 第121號, 命令 No.18 로획武器 및 부상兵들의 武器取扱에 對하여, 命令 제19호 命令移牒에 關하여, 命令 No.45, 命令 No.25, 命令, 命令 No.27, 戰鬥命令 第122號, 命令 No.23, 部分戰鬥命令, 命令 No.29, 部隊정리 期間에 戰鬥준비를 爲한 日日工作計劃, 命令 第50호 포탄 및 기타 군수品 절약의 건에 關하여, 命令 No.71 전선사령부 명령이첩에 關하여, 命令 No.84 사단 예비성원 조직에 關하여, 戰鬥命令 제32호, 戰鬥命令 제135호, 命令 No.28, 行軍戰鬥命令 No.26, 人員統計, 新隊員 접수 統計, 命令 No.30 衛戍경무官 制度 組織 및 強化에 關하

야, 命令 No.31 定期戰鬪報告制度 強化에 關하여, 命令 第114號, 命令 No.32, 電報命令號, 命令 No.34, 命令 No.35, 金泉江 偵察 結果보고에 關하여, 命令 No.42 部隊行軍實施 結果에 關하여, 戰鬪報告

NARA, RG242, SA2009, Box7, Item#42, 『사단비상용 폭발물 및 부속품 통계표, 조선인민군 235군부대, 1950.6.11』

- － 團非常用 폭발物 및 其의 附屬品 統計表, 工兵小隊集結區域到着에 關하여, 工兵技術器材申請에 關하여

NARA, RG242, SA2009, Box7, Item#43, 『보고접수철(235군부대 5과), 1950.6』

- － 渡河를 爲한 人員 및 戰鬪器材 重量計算表, 工兵戰鬪報告, 종합전투보고, 報告 제7호, 報告 제8호, 報告 제9호, 報告 제10호, 報告 제11호, 報告 제12호, 報告 제14호, 戰鬪綜合報告 제15호, 戰鬪報告 제16호, 戰鬪報告 제17호, 戰鬪綜合報告 제18호, 戰鬪綜合報告 제20호, 戰鬪綜合報告 제23호, 報告 공병소대인원통계 및 부상자통계에 關하여, 報告 戰死者 및 負傷者數報告에 關하여, 報告서, 工兵部長동지 앞 1, 工兵部長동지 앞 2, 情況에 依하여, 工兵部長 동지앞 報告書, 戰鬪綜合報告 제21호, 戰鬪綜合報告 제24호, 戰鬪報告 제25호, 行軍에 關한 報告, 戰鬪보고 락동강 도하에 關하여

2. 단행본

군사감실, 『6·25사변사』, 육군본부, 1959.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 국방부, 2005.

_____, 『6·25전쟁사』 3, 국방부, 2006.

_____, 『6·25전쟁사』 4, 국방부, 2008.

_____, 『6·25전쟁사』 5, 국방부, 2008.

_____,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보고서』 1, 국방부, 2001.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5 현대편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원, 1981.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나남출판, 1996.

육군기록정보관리단, 『6·25戰爭史料 第1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_____, 『6·25戰爭史料 第2輯 수도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_____, 『6·25戰爭史料 第28輯 5·6사단 戰鬪詳報』, 육군본부, 2013.

육군본부, 『군사용어』, 2017.

육군정보국, 『괴뢰군연혁』, 육군본부, 1958.

장준익, 『北韓人民軍隊史』, 서문당, 1991.

전사편찬회, 『韓國戰亂 一年誌 1950~1951』, 국방부, 1951.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용어집』, 2017.

최완규, 「조선인민군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군사』, 경인문화사, 2006.

3. 연구논문

고재홍,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의 전쟁지도체계 연구」, 『현대북한연구』 8(2), 2005.

고재홍, 「북한군의 비상시 평시 군사 지휘체계 연구」, 『통일정책연구』 14권 2호, 2005. UCI : G704-001526.2005.14.2.010

권주혁, 「한국전쟁 기갑전의 전투패턴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경수, 「인민군 포병의 초기 성장과정 연구 : 창설기부터 한국전쟁기간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광수, 「한국전쟁 개전 당시 북한군의 작전계획과 웅진전투」, 『군사』 41호, 2000.

_____,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 1945~1990」,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총서 5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 경남대학교출판사, 2006.

_____,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 수행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김기옥, 「한국전쟁 초기, 춘천 흥천 전투가 전세에 미친 영향」, 『군사』 12, 1986.

- 김선호, 「해방 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 『역사와 현실』 61, 2006.
 UCI : G704-000054.2006..61.001
- _____, 「해방 직후 북한 보안국의 조직과 활동」, 『역사와 현실』 86, 2012.
 UCI : G704-000054.2012..86.008
- _____, 「해방 직후 북한 무력양성기관의 조직과 운영」, 『군사』 82, 2012.
<http://dx.doi.org/10.29212/mh.2012..82.179>
- _____, 「한국전쟁 이전 북한 공군 간부의 구성과 정치연합체제의 구축」, 『북한연구』 19(3), 2016.
<http://dx.doi.org/10.17321/rnks.2016.19.3.002>
- _____, 「북한 보안간부훈련 대대부의 간부 구성과 당·군의 정치연합체제 출현」, 『역사문제연구』 38, 2017.
- _____,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유일지도체제의 기원」, 『현대북한연구』 22(3), 2019.
<http://dx.doi.org/10.17321/rnks.2019.22.3.002>
- 박희성, 「북한 해군의 6·25전쟁 준비와 초기 전투 : 제599군부대 창설과 전사 기록」, 『군사연구』 147, 2019.
- _____, 「6·25전쟁 초기 북한 해군의 해안방어 작전 : 원산 제588군부대 작전을 중심으로」, 『사충』 98, 2019.
<http://dx.doi.org/10.16957/sa..98.201909.29>
-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윤경섭, 「한국전쟁기 북한군 ‘인민군최고사령관’제도 도입의 과정과 의미」, 『사림』 65, 2018.
<http://dx.doi.org/10.20457/SHA.65.10>
- 이상호, 「한국전쟁기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과 북한문서의 노획」, 『역사와 현실』 109, 2018.
<http://dx.doi.org/10.35865/YWH.2018.09.109.493>

- 이성춘·박희성, 「6·25전쟁 시 북한군 연대편성과 해외파 간부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 3호, 2020.
<http://dx.doi.org/10.2143/HS21.1.3>
- 이신재, 「6·25전쟁기 북한 공군의 성장 과정 고찰」, 『군사』 89, 2013.
<http://dx.doi.org/10.29212/mh.2013..89.197>
- 장성진,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2), 2011. UCI : G704-001615.2011.14.2.002
- _____,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군사』 78, 2011.
<http://dx.doi.org/10.29212/mh.2011..78.129>
- _____,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 의미」, 『현대북한연구』 15(3), 2012.
- _____, 「북한군 창설기 군 간부 양성교육에 대한 고찰, 1945~50」, 『한국군사학논집』 69(3), 2012.
<http://dx.doi.org/10.31066/kjmas.2012.68.3.008>
- _____, 「6·25전쟁 초기 북한군의 비정규전 교리와 그 함의」, 『통일정책연구』 21(2), 2012. UCI : G704-001526.2012.21.2.004
- _____, 「한국전쟁 이전 소련군 교범을 활용한 북한군 전투훈련 과정 연구」, 『군사』 83, 2012. DOI : 10.29212/mh.2012..83.1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문당, 1981.
- 한성훈, 「조선인민군의 당-국가 인식과 인민형성-동원, 징병, 규율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89, 2011.
UCI : G704-000024.2011..89.003

(Abstract)

The Opera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 Combat Situation report, From Hamhung to the Nakdong River -

Park, Hui-seong

It is hard to study the reality of North Korean Army.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above all, one of the the biggest reason is not easy to find and access to North Korean Army's documents. However, in order to study the Korean War correctly, research on the North Korean Army is also very essential. Thus far, it is true that there are few studies focusing on the North Korean Army. Most were studied piecemeal in the course of studying the operations of the Korean and U.N. forces. For this reason, I selected one unit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analyzed it in detail. The unit is the Nk 2nd Infantry Division, which I have found the most documents. The 2nd Infantry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s Army was the main offensive unit during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

The 2nd Infantry Division stationed in Hamheung befor the war broke out, and then moved to the train and developed in Hwacheon during the early stage of war. And attacked Chuncheon on June 25, 1950. However, as the battle of Chuncheon was failed and the fitst mission had been changed. The 2nd Infantry Division went through Gapyeong and crossed the Han River from Paldang. In July, it moved to Anseong and Icheon through Gwangju and Yongin, then occupied Jincheon and Chongju.

Afterwards, it took over the Hwanggan through Boeun and arrived at Gimcheon. In Gimcheon in August 1950,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not allocated directly into the front line, but performed the task

as the reserve forces, took a rest and need reorganization. It also carried out defense operations against the Korean and the U.N. armed forces. After that it worked hard to prepare for the cross-border operation of the Nakdong River. Finally, The 2nd Infantry Division was allocated into the Nakdong River in late August.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2nd Infantry Division, North Korean Army, Korean People's Army, Engineering Operation.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51-98
<https://doi.org/10.29212/mh.2020..116.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개화기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

강명숙*

1. 머리말
2. 국가 독립과 군사력에 관한 이해
3. 군사개혁에 관한 이해
 - 가. 일본 군사개혁에 관한 긍정적 이해
 - 나. 조선왕조의 군사개혁에 관한 비판적 이해
4. 침략전쟁에 관한 이해
 - 가. 청일전쟁에 관한 이해
 - 나. 러일전쟁에 관한 이해
5. 맺음말

1. 머리말

윤치호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윤치호가 미국 유학이후

* 자유기고가

귀국하여 활발한 개혁활동을 전개하였으나 ‘105인 사건’ 이후 소극적 종교 활동과 교육 활동에 종사하다가 1938년 이후 변절하여 친일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치호가 일제 말 친일파가 된 이유를 살피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심 논의는 기독교¹⁾와 사회진화론²⁾이었다. 그의 개혁사상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신봉하는 기독교를 믿었기에 제국주의적 성격을 극복할 수 없었고, 제국주의 이론인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기에 힘의 논리에 매몰되어 미약한 조선의 독립을 유보하고, 선진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근대화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치호의 사상은 원천적으로 제국주의적이며 친일은 그의 사상적 귀결이라 보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1910년 이전 개화기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에 저항하는 개혁활동을 전개하였다. 단순히 기독교 신봉자이고 사회진화론자여서 독립을 유보했다는 이 시기에 관한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제3세계의 국가가 독립을 지키려면 제국주의의 침략을 극복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근

1) 유영렬, 「開化期 尹致昊 研究」, 고려대박사학위논문, 1985; 이희환, 「尹致昊의 開化思想 研究」, 檀國大 석사학위논문, 1983; 양현해, 「윤치호와 김교신 : 근대 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기독교」, 한울, 1994; 유불란, 「“우연한 독립”의 부정에서 문명화의 모순된 긍정으로 : 윤치호의 사례」, 『정치사상연구』19-1, 한국정치사상학회, 2013; 김도형, 「한말 일제하 기독교 지식인 윤치호(1865~1945)의 '文明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2) 유영렬, 엮음; 「정용화, 문명개화론의 뒷 : 『윤치호일기』를 중심으로」, 『國際政治論叢』41-4, 韓國國際政治學會, 2001; 우정렬, 「윤치호 문명개화론의 심리(心理)와 논리(論理) : 근대 자유주의 수용과 노예로의 길」, 『역사와사회』통권33, 국제문화학회, 2004; 정용화, 「근대적 개인의 형성과 민족 : 일제하 한국자유주의의 두 유형」, 『한국정치학회보』40-1, 2006, 한국정치학회; 박정심, 「한국 근대지식인의 '근대성' 인식. 1, 문명·인종민족담론을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52, 2007, 東洋哲學研究會; 김정일, 「문명론과 인종주의, 아시아 연대론 : 유길준과 윤치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와역사』통권78, 한국사회사학회, 2008; 우남숙, 「미국 사회진화론과 한국 근대 : 윤치호의 영향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11-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2; 육연옥, 「윤치호와 양계초의 교육사상 비교 :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대적 군사력의 강화는 조선 국왕의 안위와도 연관되어서 어느 세력보다도 조선왕조가 앞장서서 추진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왕조의 군사 개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개화파의 과제이자 목표였을 것이다.

윤치호는 국가의 근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개혁가이므로 당연히 군사개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일기 여러 곳에 군사문제에 관한 생각들을 기술해 놓았다. 이에 그의 일기에 산재하는 군사개혁에 관한 기술들을 모아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를 살펴보려 한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조선왕조가 추구하던 군사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원하려했는지를 살피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는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나 구상을 다룬 글은 거의 없다. 윤치호의 일본에 관한 이해를 다루는 글에서 일본인의 상무정신을 장점으로 보았다는 짤막한 논의³⁾가 있을 뿐이다. 독립협회에 관한 연구 중에도 군사개혁에 관한 논의는⁴⁾ 극소수이다. 그러나 이들 글에서 다룬 자료들은 그 생산시기가 윤치호의 활동기간과 다르고 윤치호가 활동한 시기에도 논설이나 성명미상의 글들이어서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관한 이해나 구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외에는 개화파 박영효의 건백서에 나타난 부국강병론을 살핀 글⁵⁾이 있어 개화파의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의 범주는 부분적으로 그려 볼 수 있다.

이 글은 개화기 윤치호의 사상을 살피는 것이므로 개화기에 해당하는 1883년부터 1906년까지의 일기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다.⁶⁾

3) 박지향, 『꽃과 칼을 동시에 사랑한 민족: 윤치호가 본 일본』, 그린비, 2010, 68쪽

4) 김운태, 「한말 1890년대 말 근대화 민중운동; 근대화 자강개혁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8, 1999.

5)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국정개혁에 관한 건백서」에 나타난 부국강병론」, 『군사』 34, 국방부군사연구소, 1997.

6) 윤치호의 일기는 1883년부터 1943년까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일기는 비어있다. 이 중 1907년부터 1912년까지 일기는 윤치호

일기 이외에는 윤치호가 기록한 서간집⁷⁾과 일제시기 개화기를 회상하는 신문이나 잡지의 글들이 있는데 이들에서는 군사문제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

2. 국가 독립과 군사력에 관한 이해

제국주의시대 제3세계는 군사력이 있어야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이룰 수 있기에 군사력에 대한 윤치호의 이해는 근대적 개혁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윤치호의 군사문제에 대한 이해는 그가 무관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윤치호의 아버지 윤웅렬은 제2차 수신사의 별군관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군사제도를 둘러보았으며, 귀국하여 별기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별기군 훈련에 앞장섰다. 뿐만 아니라 임오군란을 피해 일본으로 피신하였던 윤웅렬은 귀국하여 함남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윤웅렬은 함남 병영에서 500명 정도의 신식 군인을 키웠고 이 군인들은 1884년 5월 ‘친군 전영’과 통합되었다.⁸⁾ 윤웅렬은 갑신정변에 연루되어 유배당했다가 복귀한 1895년에도 경상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으며, 1898년과 1903년에는 군부대신으로 재직하여 조선의 군사문제를 다루는 최고위직에 있었다.⁹⁾ 윤치호는 가족적으로도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군사적 근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가 기록하였으나 일제가 105인 사건으로 윤치호를 조사하면서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아 행방을 모른다. 1912년부터 1915년까지 일기는 감옥살이로 기록하지 않았다.

7) 윤치호 지음, 윤경남 옮김, 『(국역)佐翁 윤치호 서한집』, 호산문화, 1995.

8)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5, 72-74쪽; 111쪽

9) 김도형, 앞글, 51-52쪽

먼저 살펴볼 문제는 윤치호의 일본 유학이다. 윤치호의 일본 유학은 별기군 훈련에 참여한 윤웅렬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학 시기는 유영렬은 1882년부터, 이광린은 1881년부터 도진샤(同人社)에 다닌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런데 윤치호 자신은 처음 군사학교로 유학했다고 기술하였다. 윤치호는 김옥균을 믿을 수 없어 갑신정변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김옥균을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학 초기 군사학교에 다녔다고 기술하였다.¹¹⁾ 군사학교에 다녔다는 또 다른 기술은 1919년 삼일운동 때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타로(宇都宮太郎)를 방문한 때였다. 윤치호는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조선인 만세시위자들을 폭도로 다루는 것에 항의하려 조선군 사령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사령관 우쓰노미야가 군사학교 학생이었던 윤치호를 기억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조선인을 학대하는 조선군 사령관에 대한 아쉬움을 금치 못 하였다.¹²⁾ 이로 볼 때 윤치호의 일본 유학은 별기군 창설에 참여한 윤웅렬이 별기군 교관 양성 프로그램에 아들을 참가시켜 군사학교에 보낸 것을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윤치호는 군사학교를 그만두고 1881년 7월부터 도진샤에서 일본어를 공부하였다. 윤치호는 군사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군사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았으며 사건이 일어나거나 생각날 때마다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내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

10) 유영렬, 앞 글, 1985, 137쪽;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59, 연대국학연구원, 1988, 172-173쪽;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29, 한국근현대사학회, 2004, 125쪽

11) “1884년 혁명은 잘못된 지도자 아래 있었던 열혈 청년들의 조급한 행동이었다. 내가 군사학교에 있는 동안 도쿄에서 김옥균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기에 나는 그를 결코 믿지 않는다.” 『윤치호 일기』, 1893. 10. 31.(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www.history.go.kr>

12)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미야(宇都宮太郎)장군을 방문했다. -중략- 장군은 내가 군사학교에 재학 중일 때인 1881년 도쿄에서 나를 만났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윤치호 일기』, 1919. 4. 16. (밑줄은 연구자가 친 것임)

유학을 마쳤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증서서원 교사로 있을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해 말기부터 귀국문제가 논의되고 있었다. 윤치호는 귀국 이후 할 일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 생각들을 정리하여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기고하였는데 내용을 요약한 일기문의 한 대목은 아래와 같다.

“오가는 생각들(『노스차이나 데일리 뉴스』에 기고했다.)1. 마라톤(Marathon) 전투와 살레니(Salaenis; 살레니가 아니고 살라미스(Salamis) 해전으로 추정 - 연구자) 전투는 그리스의 독립을 보존시켰다. 사라센의 유럽 정복은 찰스 마르텔(Charles Martel-샤를르 마르텔; 연구자)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것들은 역사의 주요한 분기점이었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윤치호는 페르시아 전쟁 중 마라톤과 살라미스 해전에서 아테네가 승리하였기에 그리스 발전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였고, 중세 유럽에서도 프랑크 왕국의 샤를르 마르텔이 사라센의 우마미야 왕조를 격퇴했기에 유럽 발전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성공적으로 방어해야만 국가를 지킬 수 있고 개혁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한국도 근대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 독립해야 하며, 그를 위해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국가는 군사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근대화에 매진하면 근대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군사력의 양성을 근대화의 기본으로 생각하였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도해야 하는 국왕이 문제였다.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군대양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선의 국왕인데 주인공인 국왕의 결단력과 실천력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윤치호의 고민이었다.¹³⁾

윤치호는 국정개혁에서도 군사문제를 중시하였다. 중서서원에서 같이 공부한 일본인 친구 나가미(永見)가 귀국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에도 조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군사력과 신문발행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이라 하였다.¹⁴⁾ 제국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을 근대국가의 첫 번째 조건으로 본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귀국에 대한 희망이 생긴 9월에도 반복되었다. 윤치호는 귀국을 앞두고 조선 개혁의 10개 항목을 일기에 적었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을 궁내부 개혁 즉 왕실 개혁이고 두 번째로 할 일이 군사력 양성이라고 하였다.¹⁵⁾

군사력을 중시한 예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로 가는 길에도 있었다. 일본의 위협에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한 고종은 왕실의 안녕을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얻고자 민영환을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춘생문 사건’(1895. 11. 28)으로 숨어있던 윤치호는 신변이 안정되자¹⁶⁾ 러시아 사행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민영환을 수행하여 러시아로 갔다. 윤치호는 러시아로 가는 길에 일본에서 의화군을 만나고 일본의 군사제도와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질

13) “좋은 개혁일지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잘 규율되고 훈련된 군대 없이 조선에서 그 개혁이 수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아무도 왕을 제외하고는 충성스런 군대를 조직할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훌륭한 군대를 양성할 수 없고 국왕은 허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15.

14) “조선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효율적인 군대, 애국적인 신문, 철저한 교육 체제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24.

15) “내가 기회를 갖는다면 조선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왕실의 비용은 품위와 안락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감축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내시와 궁녀들은 해고되어야 한다. 2. 작은 규모의 규율 잡힌 군대가 지체 없이 조직되어 신정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윤치호 일기』, 1894. 9. 28.

16) 『윤치호 일기』, 1896. 1. 24: 1. 26.

문을 하였다.¹⁷⁾ 윤치호는 군사력 부족으로 부왕(父王)의 안위마저 위태로운 나라의 왕자가 일본의 군사력에 무관심한 것을 책망하려던 것이다. 윤치호는 최소한의 안위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의 군사력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본의 앞선 군사력에 관심 없는 왕자에게도 실망하였던 것이다.

윤치호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외교의 부질없음도 질타하였다. 윤치호는 을사늑약 직후 일어난 외교적 국권회복 운동을 부질없는 행동이라 하였다. 윤치호는 2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의 희생, 그리고 많은 전비를 들여 러일전쟁을 치루며 얻은 조선 침략의 기회를 조선인들이 주장하는 몇 장의 외교적 호소문 때문에 일본이 버릴 것으로 보지 않았다. 외세의 호의로 국가의 독립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 것이다. 국가가 독립하려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군사력을 보유하려면 “훌륭한 정부”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¹⁸⁾

이로 볼 때 윤치호는 근대 국가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였고 제국주의 침략을 방어해야만 근대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제국주의의 침입을 막아낸다면 일본에서 근대화가 가능했던 것처럼 조선에서도 근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⁹⁾ 윤치호는 군사력을 키워 제국주의의 침략을 물리친다

17) “9시에 우리 공사관으로 돌아가면서 나 혼자 의화군을 찾아갔다. (중략) “왜 저하는 일본어와 일본의 군사체제를 배우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나는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나는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 늘 두려워하고 있소.” 『윤치호 일기』, 1896. 4. 17.

18) 『윤치호 일기』, 1905. 11. 27.

19) “현재의 전쟁은 서방의 재창조적인 문명과 동양의 퇴락해 가는 야만주의 사이의 전쟁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성공은 조선의 구제와 중국의 개혁을 의미할 것이다. 그 반대라면 반도의 왕국은 중국의 타락이라고 하는 밑바닥 없는 땅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고, 중국은 제국이 아무런 혁신도 필요 없다고 하는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동양 전체를 위해 일본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면 조선의 근대화는 자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윤치호는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독립을 위한 군사력 양성을 개혁의 제1 과제로 여기고 있었다.

3. 군사개혁에 관한 이해

가. 일본 군사개혁에 관한 긍정적 이해

일본어 교육을 어느 정도 마친 윤치호는 1882년 6월부터 자유로운 신분으로 일본에 머물면서 김옥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²⁰⁾ 1883년 1월 김옥균과 함께 오자와를 방문하여 일본 군사제도에 관해 들었다. 윤치호는 오자와의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날 오전에 고우장(古愚丈:김옥균)과 같이 가미즈키(上月)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다시 오자와(小澤)를 방문하다. 인사를 나눈 뒤 고우장이 물었다. “지금 귀국의 병대는 모두 얼마나 되는가.” 오자와(小澤)가 대답하기를, “상비(常備) · 예비(豫備) · 후비(後備)를 합하여 10만 명 가량이나, 상비병은 4만이다”고 하였다.

고우장이 물었다. “귀국 병제는 대개 어느 나라의 제도를 본떴는가?” 오자와가 대답하기를, “유신 이전에 여러 번(藩) 중 삿슈(薩州)는 영국의 병제를, 기슈(紀州)는 독일의 병제를, 막부(幕府)는 불란서의 병제를 채용하였다. 그 밖의 허다한 번(藩)들이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 입임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한결같지 않았다.

명치정부(明治政府)에서도 육군에서는 불란서의 병제를, 해군에서는 영국의 병제를 채용했다. 지금에 와서는 널리 각국 병제를 모아서 편리하면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일본군제(日

20)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59, 연대 국학연구원, 1988, 177-180쪽

本軍制)라고 부를 만하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병대(兵隊)의 훈련 등은 각국이 모두 대동소이하지만 양병(養兵)하는 정신은 크게 차이가 있다. 전일에는 불란서군(佛蘭西軍)의 정신이 심히 정예로웠으나 지금은 자못 무디어졌고, 독일군(獨逸軍)은 지금 정신이 심히 날카로운데 그것은 무력으로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또한 일본 병대가 독일군의 정신을 배우게 되길 원한다”고 하였다. 고우장이 “과연 그러하겠다”고 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3. 1. 3.

기록한 내용으로 볼 때 윤치호는 일본이 받아들인 서구의 군사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계를 주름잡는 영국의 군제는 나가사키 근처에 위치한 사쓰마 번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고, 도쿄에 위치한 막부와 주변의 기슈 번은 육군을 중시하여 각각 프랑스와 독일 병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았다. 당시 일본군은 프랑스의 군인정신보다 독일군의 정신을 중시하였는데 그 이유를 1871년 독일이 프랑스에 승리하여 독일을 통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군사부분에 관한 윤치호의 이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런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할 만큼의 이해력은 가지고 있었다할 것이다.

윤치호는 지역의 번주들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일찍부터 유럽의 군사제도를 받아들였음을 주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의 봉건 번주들은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의 군사제도, 프랑스 혁명 당시 대불동맹을 분쇄한 나폴레옹의 군사제도 그리고 프랑스 군대를 제압하고 조국을 통일한 독일 군사제도 등 우수한 군사제도를 다투어 수용했음을 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보인 군사제도들을 일본의 봉건 번주들이 수용하여 실험함으로써 일본 군사제도 속에 주요한 경험으로 자리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일본은 각국 군사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육군은 독일의 군사제도를 해

군은 영국의 제도를 이용하여 근대적 일본군대를 형성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일본의 군사력은 윤치호가 유학하던 시기 이미 자신들에게 맞는 군사제도와 작전력을 형성하였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일본의 무사정신이 군사제도 형성에 미친 영향도 중시하였다.

“1. 한 ‘민족(nation)’으로서 조선인들은 미래가 없다. 그들의 기질에서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그들이 중국인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일본인과 같은 무사도(武士道) 정신과 민족적 명예심으로 충만한가? 아니다! 비록 더럽더라도 그들은 중국인들처럼 부지런한가? 아니다! 비록 게으르지만 그들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용맹한가? 아니다! 그들은 비록 교활하다 해도 기민하고 상술에 밝은가? 아니다! 비록 단순하다 해도 그들은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 있나?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야만인에게 더 나은 점—두려움 없음과 호전적 정신과 같은—조차도 없는 야만인이다.” 『윤치호 일기』, 1894. 11. 1.

위의 인용문은 청일전쟁 중반 일본의 승리가 굳어지던 시기 한국인을 중국인 일본인 인디언 그리고 아프리카인들과 비교한 글이다. 윤치호는 중국인은 더럽지만 인내심이 많고 근면하며 상술에 밝다고 보았다. 유럽인들에게 정복되어 모든 것을 빼앗긴 인디언마저 용맹했다고 보았는데 한국인들은 그것마저 없다고 한탄하였다. 조선인은 유교의 지배 속에서 기본적인 인간성도 상실한 반면 일본은 무사도를 기반으로 호전적 정신을 갖추고 군사력을 키워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을 침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호전적 무사정신이 일본의 조선 침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무사들이 사회의 중심이었기에 무사들의 호전성을 불교나 유교 또는 신도(神道) 등이 종교적 신조로 강조

하면서 문약의 폐해를 극복했고 보았다.²¹⁾ 바꾸어 말하면 무사중심 사회가 종교마저 무사의 호전성을 종교적 덕목으로 가르쳤기에 일본사회가 명예를 중시하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무사도를 종교 정신으로 승화시켜 전투적 용맹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전통적 무사정신이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의 정신적 토대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칼과 목욕문화라 하였다.²²⁾ 청국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게 만든 것이 일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며 나아가 근대화의 원동력이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윤치호는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한 것은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일본인들의 노력이 서양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한 덕분이라 보았다.

“2.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들 덕에 오늘의 일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서양인들은 그들이 선생으로서 어디를 가든 간에 자신의 의무를 가장 정직하고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이 그들의 영원한 명예라고 한다. 그러나 선생의 성공 여부는 주로 가르치는 능력과 가르치는 열성에 달려 있다. 아무리 가르치는 사람이 충실하려고 할지라도 일본 국민들의 놀라운 애국심, 기사도와 같은 명예심, 기민한 지성, 높은 야망, 그리고 과감한 용기가 없었다면 일본인들이 3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렇게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요구한다고 되

21) “일본은 행복하다! 일본의 봉건적 경쟁과 칼 때문에 불교, 유교, 신도 등 일본의 종교는 일본을 작은 중국이나 인도로 바꾸어 놓지 못하였다. 일본의 종교는 일본의 호전성을 더 단련하여 일본이 극동의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 『윤치호 일기』, 1900. 12. 18.

22) “생각하면 할수록 칼과 욕조가 일본 문명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신념이 더 확고해진다. 칼은 명예를 빛나게 만들고 욕조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 『윤치호 일기』, 1905. 7. 20.

는 것이 아니다. 이런 특징은 오랜 봉건시대를 통하여 생산되고, 간직되고, 성숙되어 온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위의 인용문은 근대화의 성공 조건은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학생이 올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각 지역의 번(藩)들이 경쟁을 통해 서구 열강의 군제를 채용하고 실험하여 서구 열강 군대의 장단점을 알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각각의 번들이 상무정신을 장려했기 때문에 서구의 군사제도를 수용하려 하였고 각국의 제도를 사용해 봄으로써 각각의 방법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알맞은 방법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일본 군사력은 일본인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 얻은 것이며 그런 노력을 추진하게 만든 요소는 무사도와 무사전통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무사전통이 일본사회의 애국심, 기사도, 명예심, 기민한 지성, 높은 야망, 그리고 과감한 용기를 키우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전통적 일본사회의 기본 조직인 막부와 번을 움직인 무사들의 상무정신이 제국주의 침입을 막고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든 기반으로 보았다. 윤치호는 근대화에 성공하려면 독립해야 하고 독립하려면 군사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나. 조선왕조의 군사개혁에 관한 비판적 이해

1) 유교 문치주의의 영향에 대한 비판

문제는 조선의 군사력이었다.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고 개혁하려면 군사력이 필수인데 당시 조선의 군사력은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력이 약화된 이유를 유교의 문치주의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조선 왕조 500

년 동안 유교의 문치주의가 상무정신을 말살하여 군사력이 쇠퇴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유교의 폐해를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① “평화란 진실하고 정의로운 원칙 위에 기초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배자의 학정과 피지배자의 노예근성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런 평화는—그 오랜 불명예스러운 세월 동안 조선과 중국을 멍멍하게 하여 잠자게 한 종류의 평화—비겁함, 반역 행위, 속임, 나약함, 타락—실로, 조선을 뚜렷이 하데스(Hade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로 만든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나는 조선이나 중국과 같이 반쯤 개화된 나라에서는 전쟁 혹은 전쟁을 좋아하는 것만큼 사내다움과 애국심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일본을 보라.” 『윤치호 일기』, 1894. 6. 20.

② “유교와 전제주의가 윗돌과 아랫돌이 되어 사람을 짐승 보다 낮게 하는 모든 기질을 그 사이에서 같이버려 가루로 만들었다.” 『윤치호 일기』, 1894. 11. 1.

위의 인용문들은 청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기술한 것이다. 인용문 ①에서 윤치호는 청일전쟁에서 싸우는 일본인들의 과감성에 놀라고 있었다. 전쟁 전 국제사회 여론은 일본이 패배할 것으로 보았는데 전쟁이 시작되자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본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구가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인들의 용감성과 사내다움이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심으로 나타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보았다. 반면 평화로운 조선은 비겁, 반역, 속임수, 나약, 타락들이 난무하여 제국주의 침입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윤치호는 잘못된 평화는 펼쳐버릴 것을 주장하였다.

윤치호는 유교의 근본적 폐해는 하나님의 지배(정의와 공의)를 허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을 용납하지 않아 사회가 전제화되는 것이라 보았다. 그러므로 유교는 백성들의 정의감을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마저 없애버렸다고 본 것이다.²³⁾ 인용문 ②에서는 유교와 유교가 만든 전제주의가 인간성을 갈아버렸다고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유교 때문에 정의로운 지배가 없어졌으며 그 결과 인간성이 말살되어 애국심이 없어졌고 국가를 지킬 군사력도 기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치호는 유교가 인간성을 말살하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제적 폭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²⁴⁾ 윤치호는 유교가 조선을 폭정으로 몰아 국가를 지킬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유해한 종교내지 사상으로 인식하였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물리치려면 일본과 같이 전투력을 길러야 하고, 전투력을 키우려면 상무정신을 고양해야 한다고 보았고,²⁵⁾ 이를 위해 유교의 문치주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윤치호에게 일본의 군사력은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낸 면에서 조선개혁의 모델이었다. 윤치호는 제국주의 침입을 막아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의 군사적 발전을 조선의 군사적 개혁의 모델로 받아들인 것이다.

23) “3. 외국인 교사들은 그들이 가르치려는 인재가 부족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프게도 중국과 조선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실패에서 입증되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지배자나 피지배자의 진정한 애국심 결핍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체제가 백성들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유교는 어떤 인종이든 자만하게 하고 이기적이며 노예근성을 가지도록 조야하다.” 『윤치호 일기』, 1894. 9. 27.

24) 8. 낮은 자존감, 낮은 야망, 낮은 삶의 이상. 사실 조선에서는 모든 것이 낮다. 조선의 이 낮고 물질만능주의적이고 역겹고 더러운 생활수준은 대부분 유교 때문이다. 9. 억압 탄압 암울함은 조선인의 정치 가정 생활의 초석이다. 10. 유교는 왕을 국가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아버지를 가정에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시어머니를 며느리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남편을 아내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남성을 여성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고, 주인을 하인에게 군림하는 폭군으로 만들어 가정과 국가에서 모든 자유와 기쁨의 정신을 말살했다. 유교는 폭정의 체계라고 불릴 만하다. 『윤치호 일기』, 1904. 5. 27.

25) “5. 5백 년 동안 수치스러운 유교 때문에 군인보다 지식인이 더 존경을 받는다. 따라서 반미개(半未開)한 국가의 전통적 수구적 영향력을 깨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군인정신이다.” 『윤치호 일기』, 1897. 11. 11

2) 외세의 영향에 관한 비판

운요호사건으로 개항한 이후 제국주의 침입에 대항하려는 조선의 군사적 노력은 지속되었다. 왕실 경비를 위해 친위대를 강화했으며, 이어 전통 군대를 개편하고 별기군을 설치하였다. 임오군란 이후에는 청국 군제를 도입하였으며 갑신정변 이후에는 최초의 육군사관학교인 연무공원을 설립하여 미국식 군사제도 도입에도 노력하였다. 갑오개혁기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정비하였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러시아 군사교관단을 통해 러시아 군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후에도 중앙군과 지방군의 정예화를 도모하였으며 특히 평양으로 천도하려던 시기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통합하려 하였다.²⁶⁾ 조선의 군사개혁은 왕실 경비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우선 개혁사업으로 인식되었고 또한 추진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독립을 지킬 만한 군사력을 획득하지 못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주변국들의 침략경쟁이 치열하여 경쟁국들은 중립화론으로 기회포착을 노리고 있었다. 조선의 군사력이 미약한 이유는 근대적 전투에 필요한 근대적 무기를 갖지 못하였고, 근대적 무기의 사용과 작전에 미숙할 뿐 아니라 근대적 무기를 생산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치호는 조선 군대의 전투력 부재 원인을 이런 부분에서 찾지 않았다.

① “(4) 인하여 병대에 관한 일을 아뢰기를, “폐일언하고 마땅히 모든 군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 사람이 통솔케 하고 한 교사로 훈련케 한다면, 사병의 마음이 일치되고 기예를 온전히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가령 청국의 기예를 배우고 서양의 기예를 배우더라도 그 귀착점은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영(左營)의

26) 심현용, 앞 책, 2005.

병대는 전영(前營)을 비방하고 전영의 병대는 좌영의 병대를 비웃어 서로가 역시(逆視)하여 문득 적대적인 국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보통의 모습이어서 신이 그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평시에 이와 같으니, 만약 전장(戰場)을 당하면 저들은 반드시 사사로운 원망을 품고 공의(公義)를 버리게 될 것이니, 그러하고도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옹드려 주상의 재가를 바라건대, 모든 군영을 하나로 통합하여 군심(軍心)을 일치토록 하여 뒷날의 국용(國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4. 1. 1.

② “지금 좌·우영의 병대는 비단 재주가 없을 뿐 아니라 교만하고 나태하기 짝이 없어 군대를 기르는 의미를 막막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쓸모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인의 위동(威動)을 억누르기 어려워 능히 병대를 혁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러하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듣건대, 위안스카이(袁世凱)도 ‘조선 병대는 교만하고 나태하여 쓸모가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가 이미 병대가 쓸모없음을 알았다면 무슨 까닭에 고집을 부려 혁파하지 않고 한갓 다른 나라 인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하지 말라. 위안씨는 조선 병대의 쓸모없음을 말하면서도 근일에 그가 군사수를 늘릴 것을 청했는데 내가 듣지 않았다”고 하셨다. 이에 아뢰어 청하기를, “3영(三營) 병대를 통합하여 1인을 시켜 가르치게 하고, 1인으로 장관을 삼아서 군심(軍心)을 일치케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더니, 상께서 옳다 하셨다.” 『윤치호 일기』, 1884. 1. 18.

인용문 ①과 ②는 윤치호 미국 공사관의 통역과 조선 정부의 관리를 겸임하던 시기 고종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내정간섭이 극심하던 시기 청국 주도로 이루어진 군사개혁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당시 군제는 청국 주도로 새롭게 선발 양성한

친군 좌·우영과 이전 전통 군인들로 재편성되었으나 일본 군사학교 출신 교관이 훈련하는 친군 전영²⁷⁾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조직적으로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병대 배후세력의 다름이 훈련방법의 차이를 낳았으며, 배후세력의 갈등이 군대조직의 통합도 방해한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이런 갈등과 부조화가 전투력의 부재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을 걱정하였다. 더구나 청국이 키운 친군 좌·우영의 전투력은 형편없어 비난 대상이었는데 청국이 두려워 해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윤치호는 새로운 교관(미국인 교관)이 오는 것을²⁸⁾ 계기로 친군 좌·우·전영을 통합하여 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 윤치호는 청의 봉건적 군사훈련으로는 근대적 군대 양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고 불성실한 좌우영 군사들을 새로운 통합 훈련으로 쇄신할 것을 희망한 것이다. 군사개혁을 주도한 청국의 봉건성이 조선 군대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고 쇄신을 건의한 것이다.

윤치호는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때에도 아래와 같이 조선 군대를 비판하였다.

“조선의 지금 사세는 위로 임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아래로 쓸모 없는 사람이 조정에 가득하다. 백성들의 어려움은 물이 말라버린 곳에 있는 고기와 같고 도적의 횡행함이 숲속에서 벌떼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 군대는 있으나 단지 이는 오합(烏合)의 무리이며 재물이 없어 개미독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못하였다.” 『윤치호 일기』, 1885. 6. 20.

영국은 1885년 4월 15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검하였으나 조선 정부에 정식으로 알린 것은 5월 19일이었다. 그리고 세상에 공론화된 것은 윤치호의 일기로 보아 6월로 보인다. 조선은 외국의 영토

27) 심현용, 앞 책, 2005, 109-112쪽.

28) 『윤치호 일기』, 1884. 1. 18.

침입을 1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정식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영국은 거문도 점거 이전 중국과 일본에 양해를 구했지만 정작 조선에게는 아무런 사전이해를 구하지 않았다.²⁹⁾ 영국의 이런 행태는 조선을 독립국으로 보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윤치호는 이런 국제적 도발에 분노하였으며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국정개혁의 1차적 목표로 추진되던 군대개혁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영토 유린을 전혀 모르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는 때늦은 통보를 받았으나 영국에게 철수를 종용하는 것 이외에 어떤 방법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³⁰⁾ 반면 영국은 조선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군사시설을 만들면서 임대나 매매를 요구하였다. 윤치호는 아무런 군사적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조선 군대가 “개미 둥”만큼의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더구나 청국의 종주권을 지원하던 영국이 조선 영토를 유린하고 청국이 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조선 군대의 무력감을 더욱 실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군사개혁은 갑오개혁기에도 개혁의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겨 전투력의 강화를 이루지 못하였다. 윤치호도 참여한 정권에서 일어난 개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일일예비비 대부분을 허비한 4,000명의 병사(?) 또는 공병(工兵)은 가슴 속에 있는 뱀이나 다름없다. 조정과 궁중은 병사의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5. 8. 21.

위의 인용문은 갑오 개혁과정에서 훈련대에 편입되지 못한 대규

29)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군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점검과 균열」,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5, 140-149쪽.

30) 한승훈, 앞글, 140-183쪽

모 인원(5200여 명)을 공병과 마병대와 치중병대로 나누어 신설대로 편성한 것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투부대(제3훈련대까지 편성, 1개 훈련대는 1,600명 정도로 구성) 인원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인원을 지원부대로 편성한 것³¹⁾에 대한 비판이었다. 일본이 주도한 군사개혁에서 전투부대와 지원부대의 인원이 거의 동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전투부대의 인원을 줄이고 지원부대에 인원을 과다하게 배정한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개혁은 전투력의 강화가 우선인데 일본은 자국의 필요를 위해 조선 군사의 거의 절반을 지원부대로 편성한 것이다. 윤치호는 조선의 군사개혁이 일제의 필요에 따라 왜곡되어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쓸데없는 지원부대 양성에 쓰게 되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외세의 간섭으로 조선 군대의 전투력은 저하되고 일본에게 필요한 지원부대로 편성되어 일본에 이용당하는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런 왜곡은 아관파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러시아공사관에 기거하던 고종이 환궁(1897. 2. 20.)한 직후에도 조선의 군사력은 강화되지 못하였다. 고종의 안위문제로 경찰과 경비대의 기강과 전투력이 중요한 시기였고 거국적인 필요에 따라 많은 예산을 들여 러시아 교관단을 초청하고 그들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윤치호는 한마디로 당시 경찰과 군인들이 쓸모없다고 비판하였다.³²⁾ 군대양성이 국가정책의 핵심이지만 군사력의 강화를 외세에 맡겨 예산만 낭비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군사개혁의 실패는 러시아가 철수한 후 자체적 군사개혁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금 서울에는 군인이 만 명 이상 있다. 황제도 예외일 수 없고, 모든

31) 심현용, 앞 책, 2005, 191-193쪽

32) “4. 경찰과 군인들은 여전히 경솔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윤치호 일기』, 1897. 2. 22.

사람들이 군인에 대한 죽음의 공포 속에 놓여 있다. 황제의 평양 군인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편견이 평양과 서울 군대 사이의 상호 적대심을 키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1. 4. 24.

다수의 시정잡배들로 구성되어 기강이 문란한³³⁾ 평양진위대는 국왕의 배려로 한성에 올라와 조련하고 연조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상을 받으므로³⁴⁾ 사기가 충천하였다. 게다가 평양의 지리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진위대 편제를 중앙 친위군 대대와 같이 만들었다.³⁵⁾ 이후 평양군을 평양부로 만들고 진위대 증설을 계획하였을 뿐 아니라³⁶⁾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하여 행궁을 세워고³⁷⁾ 천도를 준비하였다. 황제의 평양진위대에 대한 관심이 훈련이 부족한 평양진위대 군인들을 부추겨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으며 중앙군과 대립하여 군대의 통합도 방해하였다. 황제의 두드러진 편애가 군조직의 부패를 부추기고 통합을 방해한 것이다.

근대적 군사전문가가 없던 조선은 군사개혁을 외세에 의지하였다. 그러나 잦은 외세의 변화와 국내 세력의 갈등으로 근대적 군대를 만들지 못하고 인적 조직적 문제만 양산하였다. 더구나 군대개혁을 주도한 국왕마저 자신의 안위에 급급할 뿐 개혁의 비전이 없어 우왕좌왕하여³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윤치호는 조선은 군대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지만 비전과 전문성이 없어 제대로 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33) 《고종실록》, 1896. 12. 18; 1899. 4. 30.

34) 《고종실록》, 1899. 9. 29; 10. 3; 1901. 11. 9; 11. 30; 12. 1.

35) 《고종실록》, 1899. 10. 12.

36) 《고종실록》, 1900. 9. 4; 9. 18.

37) 《고종실록》, 1902. 5. 6.

38)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바로는 황제는 공격무기와 수비무기로서, 유럽의 소총과 대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하다고 믿는 화살과 활을 제조하는 데 수십만 달러를 썼고, 분명히 지금도 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2. 12. 4.

그리고 군사개혁을 주도한 외세의 영향력이 국내세력과 연결되어 군대의 통합도 방해함으로써 조직적 통일도 이루지 못했다고 보았다. 결국 외세가 주도한 조선의 군사개혁은 시간 인원 재정을 낭비하여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3) 군인들의 기강해이에 관한 비판

더더욱 조선 군대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군인들의 기강해이였는데 기강해이를 주도하는 것은 부패한 국왕과 관료들이었다. 독립협회의 구국상소를 준비하던 윤치호는 국가적 심혈을 기울여 양성한 군대가 외세 침입에는 무능하고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조롱하였다.³⁹⁾ 국왕의 안위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형성된 러시아 교관단의 훈련으로도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봉건적 부패 관행만 일삼는 공인된 폭력배로 본 것이다.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의 부정부패가 군대에도 만연함을 지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부패한 군대가 평양 진위대였다. 훈련이 부족한 이들은 황제의 편애 속에서 행패를 부리며 가족들마저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고, 심지어 군인들 자신이 밤에는 도둑으로 변할 정도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⁴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편성된 군대가 국가를

39) “박사(서재필-연구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처럼 참을성 있게 억압을 견뎌내는지 물었다. 나는 외국의 적에게는 소용없지만 국내의 적에게는 효과적인, 군인들이 주는 일반적인 공포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치호 일기』, 1898. 2. 7.

40) “평양에 있는 군인 숫자는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400명이었다. 규율이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아주 난폭하게 행동한다. 경찰은 군인이 두려워서 감히 평양 도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전직 노동자나 재소자인** 군인들은 신발을 신고 감리서나 군수 집무실에 곧장 들어오고, 연회 도중에 무회를 데리고 나간다. 군인들과 그의 친구나 친척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는다. 감히 법이 군인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군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라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군인들이 밤낮으로 경비를 서고 있는 서울에서 사람들은 밤에 감히 돌아다니지 못한다. 군인이 도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조선의 다음 전염병은 제멋대로인 군인이 될 것이다.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괴롭히는 불법적 “도둑”이 된 것을 비판하였다. 황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대를 만들었으나 제대로 훈련하지 못해 수탈만 조장하였다. 윤치호가 보기에 조선 군대는 국권 수호 조직이 아니라 황제의 권위에 기생하는 또 하나의 부패한 수탈 조직이었다.

윤치호는 군인들이 벌이는 수탈의 내용을 원산 상인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원산 상인 김정님은 아들의 구제국 취직과 퇴직에 9,000냥을 지출하여 파산했다고 하였다.⁴¹⁾ 군대가 관리하는 구제국은 직원이 들고나는 모든 과정에서 수탈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황제도 구제국 수탈에 참가한다고 들었다. 황제가 주도하는 군대 개혁은 근대적 군사력의 획득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수탈의 통로라고 윤치호는 이해하였다.

윤치호가 보기에 더욱 문제되는 것은 백성들이 군인들의 폭력이 무서워 부당한 세금에 항의도 못하는 것이었다. 군인들의 무력이 백성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는 효과적인 폭력 장치가 되었다고 보았다. 개혁의 핵심부분으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군대가 부패한 권력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전략한 것이다. 군대가 제국주의 침략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정권의 수탈에 참여하여 국민의 개혁 의지마저 저하시키고 개혁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조선 군대는 지속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침입에는 무능하고, 왕실과 관리들의 전제적 수탈의 통로가 되었음에 윤치호는 절망하고 분노하였다.⁴²⁾

윤치호는 근대 국가에 있어 군사력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당시 조선에서도 군사개혁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된 개혁이 조선 군대를 부패의 소굴로 만들뿐 아니라 개혁자금도 고갈시키고 있었다. 윤치호는 가마를

황제의 치명적인 맹신 덕분이다.” 『윤치호 일기』, 1901. 3. 7.

41) 『윤치호 일기』, 1902. 9. 11.

42) 『윤치호 일기』, 1905. 7. 4.

타고 거드름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군인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⁴³⁾ 조선 왕조의 군사개혁은 전제적 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개혁의 명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수탈 방법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근대화의 첫 번째 조건으로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의 확립을 생각하였고, 제국주의 시대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이는 독립도 근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가장 확실하게 진행되던 군대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제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 군인들은 구제국이나 군인회 등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불법적으로 수탈하고 있었고 황제도 거기에 가담하고 있었다. 조선 군대는 국방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고 전제적 정권을 연장하는 국가폭력으로 전락했다고 본 것이다.



4. 침략전쟁에 관한 이해

가. 청일전쟁에 관한 이해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본 군사제도를 이해하였던 윤치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중국에 돌아와 중서서원의 보조교사로 있으면서 청일전쟁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청일전쟁이 시작되기 전 국제 여론은 일본이 패배할 것으로 보았다. 윤치호도 당시 여론에 찬성하였는데 이유는 전쟁 승패는 전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43) “조선의 관료 집단은 대령과 장군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긋지긋한 음모를 꾸미는 용감한 장군들이 가마를 타고 황급히 여기저기를 다니는 모습을 보면 슬퍼지거나 헛웃음이 나온다.” 『윤치호 일기』, 1904. 10. 20.

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서서원의 교장이던 알렌도 일본의 패배를 주장하였다. 알렌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단적으로 수준 미달이라 보았다. 사회적 수준을 상징하는 정치 분야에서 근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른 분야도 그와 비슷하게 제대로 발달되지 못했다고 보았고, 여러 면에서 후진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국력으로 청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본 것이다.⁴⁴⁾

윤치호도 일본군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유는 일본군의 조선 주둔 경비가 하루에 25,000 달러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있을 전면전에 들어갈 비용은 주둔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당시 일본의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기에 일본은 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청국은 전투를 피하고 있어 전쟁의 장기화가 일본의 전쟁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⁴⁵⁾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쟁 초반 일본은 전투마다 승리하였다. 일본은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하므로 일본 천황의 생일(1894. 11. 3.) 전후 전투를 정리할 것으로 보았다.⁴⁶⁾ 예상대로 일본의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전쟁수행을 위해 전비모금에 나서고 있었다. 일본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었으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중국의 근대화는 부족해 보이지만 대국이어

44) “1. 일본인들은 정당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다. “왜냐하면 윤 선생도 알다시피, 영국이 입헌정부를 완성하는데 거의 1천년이 걸렸소. 몇몇 해외에서 공부한 일본인들은 헌법을 이해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느냐 말ियो. 그런 정부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요. 그것은 성숙에서 오는 것이지요. 이를 운영할 사람도 없이 지상(紙上)의 헌법이란 아무 쓸모가 없지요.” 『윤치호 일기』, 1894. 6. 25.

45) 『윤치호 일기』, 1894. 7. 30.

46) “4. 일본의 대 계획은 ① 천황의 생일(11월 3일) 이전 조선에서 중국군을 추방하는 것, ② 베이징 점령, ③ 중국 동해안 지역에 상당한 부지의 땅을 획득하는 것.” 『윤치호 일기』, 1894. 9. 20.

서 전쟁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⁷⁾ 결국 전쟁 초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일본의 승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⁸⁾ 윤치호는 전쟁 승리는 전투력도 중요하지만 국력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볼 때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투력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력 신장을 위한 근대화 추진도 제국주의 침략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다. 윤치호에게 근대화와 독립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상호 보완되어야 할 개념이었다. 이면에서 윤치호가 독립을 유보하고 근대화에 매몰되었다는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의 패배가 여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윤치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3. 일본인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따금 누군가가 그들에게 퇴짜를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다.” 『윤치호 일기』, 1894. 6. 25.

“결국, 이 전쟁으로부터는 러시아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전쟁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강이 며칠 안에 개입하여 너무나 신이나 떨어질 줄 모르는 그 싸움꾼들을 떼어 놓을지도 모른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윤치호는 누군가 나타나 청일전쟁의 승패

47) 『윤치호 일기』, 1894. 8. 15; “중국은 매우 큰 괴물이라서 설사 일본이 수도를 약탈하여 각종 금은보화를 실어가거나, 1억불의 배상금을 금화로 지불하기를 강요한 다 해도 결코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8. 18

48) “전쟁 초기 일본이 선수를 잡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 중국의 수적인 우세로 승리한다는 것이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개전 초기에 중국이 준비되지 않았던 상황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본은 이제 중국을 패배시킬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상실했다고들 믿고 있다.” 『윤치호 일기』, 1894. 9. 16.

를 가로채거나 전쟁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윤치호는 일본이 패배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대상은 청국이 아니기를 희망하였다. 일본이 전투에서 승리한다 하여도 국력의 열세로 전쟁에서는 패배할 것으로 보았고 청국이 승리하여 조선을 지배하게 되면 조선의 근대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국이 간섭하여 청과 일본 어느 국가도 조선지배에 나서지 못하기를 바란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영국 상선(the 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 of London Co.) 까우성호(高陞吳, the S.S. Kwoshing)가 격침을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군함이 아닌 상선 그것도 영국 선적의 상선을 일본이 격침시켰으므로 영국이 청일전쟁에 개입할 빌미가 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홍장도 이것을 노리고 병력 수송에 영국 상선을 이용하였고 선전포고도 미루고 있었다. 윤치호는 청국도 일본도 모두 원치 않았고 영국이 나서서 이들의 조선 지배 경쟁을 무마시키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청일전쟁 시기 문명국지배 하의 근대화 논의⁴⁹⁾는 영국의 전쟁 개입을 통해 청국과 일본의 조선 지배를 막으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까우성호 격침을 재빨리 수습하였고 전쟁은 본격화되었다. 아산과 평택 전투에서도 일본이 승리하였다. 당시 청군은 양무운동과 이홍장의 노력으로 군비 면에서 일본을 압도하였으나⁵⁰⁾ 전투에서는 참패하였다.

- ① “상하이의 영자 신문들은 헤네켄 선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고승호가 일본군에 의해 격침되었고, 무장한 일본 해군들은 물에 빠져 발버둥치

49) 유영렬,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그의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론과 관련 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4, 102-107쪽

50)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東洋史學研究』 88, 동양사학회, 2004, 131-168쪽; 조세현, 「水師에서 海軍으로 : 청말 양무운동 시기 함선과 대포의 해외구매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 56,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12, 103-137쪽

는 청군들을 충격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반면 물에 빠진 청군들도 일본군을 향해 끝까지 총을 쏘았다고 전한다.”『윤치호 일기』, 1894. 8. 7.

② “얼마 전 한 중국 전함이 일본 선박에 어뢰정을 쏘았다. 그런데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일본군이(중국 전함을 나포하여-연구자) 어뢰정을 열어 보니 어뢰에 폭약이 없었다. 이같이 무책임하고 게으른 중국에 반해 일본의 육군과 해군의 철저함과 효율성은 매우 훌륭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일본군의 조직과 기동력 기술적 완벽성 등 일본 전함에서 행하는 훌륭한 규율은 우방과 적국 모두의 찬사를 받고 있다.”『윤치호 일기』, 1894. 8. 15.

위의 인용문 ①은 일본 군함의 활동을 평가한 것이다. 윤치호는 풍도해전을 목격한 헤네켄(Major von Hanneken)이 전하는 소식을 보고 일본군은 기동력과 작전 수행의 정확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거대한 상선을 격침하고 물에 빠진 수많은 청군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음을 들은 것이다. 인용문②의 전반부에서도 윤치호는 일본군은 철저하고 효율적이며 기민하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았다.

반면 청군은 전쟁 초기부터 수많은 군인과 전쟁 물자를 상실하고 군함도 격침당했다. 초반부터 대패한 원인은 인용문 ②에서 보듯 어뢰에 장전도 하지 않고 쏘는 어리석은 전투 때문으로 보았다. 청군 지휘부의 준비 부족과 전투 자세의 부실함 즉 청군 지도부의 봉건적 나태함이 패배의 원인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인용문 ①에서 청국 병사들은 지휘관들과는 달리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일본군에게 항전했다는 기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청군이 전쟁 초반 일본에 패배한 것은 병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도부의 봉건적 무능 때문으로 보았다. 청군이 ‘양무운동’을 통해 근대적 함대는 보유했지만 청군 지도부의 봉건성이 근대적 군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윤치호는 이후 전투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었다. 평양전투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대파하였음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⁵¹⁾ 그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청군을 몰아내고 조선과 청국의 연합전선도 파괴하였다.⁵²⁾ 이후 압록강 전투에서도 일본 전함 8척이 격침되거나 피격을 당했는데도 승리했다고 하였다. 윤치호는 양국 전함의 손실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었다.⁵³⁾ 이후 벌어진 랴오하 주변의 찰오리엔청(九連城) 전투에서도 일본은 승리하여 만주침공에도 안착하였다. 웨이하이웨이 전투를 통해 북양함대의 본거지도 압박하였고⁵⁴⁾ 결정적인 뤼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뤼순항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다.⁵⁵⁾

전쟁 초반 패배할 것이라던 국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청일전쟁을 지켜보던 윤치호는 일본의 군사력은 단순한 군비의 근대화를 넘어 전투력의 근대성을 획득해 동양의 맹주를 굴복시켰다고 보았다. 반면 청군은 전쟁의 후반에도 전투에 어

51) “지난 밤 ‘머큐리(Mercury)’ 지는 도쿄에서 보낸 전문을 토대로 중국군의 강력한 거점인 평양을 3개 군단으로 나누어 진격한 일본군은 9월 15일 밤(8월 16일) 2만 명의 청군을 거의 불구화시켰다고 보도하였다. 『윤치호 일기』, 1894. 9. 18; 2만 명의 중국 병사들 중 1,600명이 사살되고 나머지는 항복했다는 보도이다. 3명의 장수가 포로로 잡혔다. 『윤치호 일기』, 1894. 9. 19; “평양전투에서 일본 측 장교 11명, 사병 154명이 전사했다. 장교 30명과 사병 521명이 부상을 당했다. 중국 측에서는 2,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부상자 수는 엄청나다.” 『윤치호 일기』, 1894. 9. 22.

52) 유바다, 「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동학학보』51, 동학학회, 2019, 305-339쪽

53) “11척의 일본 전함과 14척의 중국 전함 간의 전투가 압록강 입구에서 벌어졌다. 전투는 4~5시간 지속되었다. 5척의 일본 전함이 가라앉고 불타버렸다. 3척의 일본 전함이 파손되었다.” 『윤치호 일기』, 1894. 9. 22.

54) 『윤치호 일기』, 1894. 9. 24; 1894. 10. 30.

55) “이달 23일 여순 항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중략- 중국의 지브롤터에 해당하는 여순 항의 함락으로 3,000만 냥의 가치에 달하는 해군기지를 일본에게 내어 주게 되었다. 적어도 2만 명의 병사가 30시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방어했던 이 웅장한 설비를 갖춘 기지가 함락됨으로써 모든 이들의 믿음을 허구로 만든 것 같다.” 『윤치호 일기』, 1894. 11. 27.

려움을 겪어 청군 지도부는 외국인으로 교체되었다. 윤치호는 청군 지도부가 바뀐 이유를 전쟁 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들었다.⁵⁶⁾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봉건성이 작전을 어렵게 만들어 패배했다고 본 것이다.

윤치호는 청군의 전쟁 수행과정을 보면서 근대 무기의 소유가 근대적 전투력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입된 근대 군함으로 군비를 갖추더라도 조직과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적 근대화나 운영체제가 없다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보았다. 이런 면에서 청국의 근대화는 잘못된 것이며 조선이 청국의 근대화를 수용하는 것은 청국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으로 오히려 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윤치호는 청국의 조선 지배를 극렬히 반대하였고 차라리 일본이 승리하기를 희망하였다.⁵⁷⁾ 그러나 윤치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청일전쟁의 무효화였다.

나. 러일전쟁에 관한 이해

1) 일본이 강요한 협약에 대한 비판

러시아가 조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 철병과 조선 문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미국과 영국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얻은⁵⁸⁾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1904년 2월 8일 중국 뤄순과 조선 제물포에서 동시에 러시아를 기습하였다. 수적 열세에 몰린 제물포의 러시아 함대는 전쟁 물자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⁵⁹⁾ 스스로 침몰하였고, 뤄순에서는 러시아 전함 2척과

56) 『윤치호 일기』, 1894. 9. 24; 『윤치호 일기』, 1894. 11. 7.

57)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조선 문제에 대한 그 지긋지긋한 간섭을 접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승리할 경우 이미 짓밟힌 조선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윤치호 일기』, 1894. 7. 24.

58)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318-322쪽.

59) 심현용, 「러일전쟁시기 러·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 활동」, 『아시아문화』21,

순양함 1척이 격침당했다. 선제 타격으로 서해를 장악한 일본군은 중립화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회피하려던⁶⁰⁾ 조선 황궁을 1904년 2월 9일 점령하였다. 기습전을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압박하여 공수 동맹을 전제한 ‘한일의정서’(1904. 2. 23.)를 체결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주둔지와 전쟁 물자 확보에 열을 올렸다. 1904년 4월 하순 외부 관리로 임용된 윤치호는 ‘한일의정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한일의정서에 따르면, 일본은 조선 정부에 내정 개선을 충고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조선인의 이익을 위해 조선에 훌륭한 정부를 도입한다는 생색나지 않는 과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지금 일본이 그 분야에서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일본의 충고는 대부분 자국의 이익, 오직 그것만을 위한 것이었다. 즉 조선 전역의 전략상 중요한 지점을 위압적으로 점거하는 것이다. 황해도, 평안도, 충청도 연안의 어업권 확대 요구, 일본 신디케이트(syndicate)에게 현재 국가나 사적인 집단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모든 토지를 개간할 권리, 토지 위에 남아 있는 숲에서 벌채할 권리, 어디서든 물고기를 낚고 사냥을 할 권리를 이양하라고 지긋지긋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한 입에 조선을 집어삼킬 권리를 이양하라고 조르는 것이다. 일본인의 충고는 또한 조병식(趙秉式), 박의병(朴義秉), 현영운, 권중석(權重奭), 박용화(朴鏞和) 같은 악당을 추천하고 후원하는 데서만 어느 정도 그 본질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하영 씨는 고쿠부(國分象太郎)가 홍순욱(洪淳旭)을 성진의 감리로 임명하라고 요청했다 한다. 이것 또한 충고다. 광범한 평양 지역의 껍질을 벗긴 악당 홍순욱은 이 저주받은 나라에 제대로 된 황제가 있다면 교수형에 처할 인간이다. 이런 인간이 ‘충고’의 대상인 것이다. 또 일본인은 이미 충분히 넓은 역 부지에 남대문 외곽에 있는 2,000평이나 되는 소중한 구역을 침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허가받지 못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2005, 14-17쪽

60)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원충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4, 257-258쪽.

한다면, 강제적으로 점거할 것이다. 이것 또한 ‘충고’다.” 『윤치호 일기』, 1904. 4. 26.

윤치호는 ‘한일의정서’에 규정한 조선 개혁에 대한 일본의 “충고”는 오직 러일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상 거점 확보와 어업권 확대, 토지 개간권, 삼림 채벌권 등 조선의 물자를 침탈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전쟁 수탈을 수월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수형에 처할 인간”들을 조선의 관리로 임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일본이 조선 내정개혁에 대한 “충고”라고 조소하였다.

윤치호는 이런 상황에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 관리들을 통렬하게 비난하였는데 대상에 아버지 윤응렬도 포함되어 있었다. 윤치호의 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아래와 같다.

① “이용익(李容翊)에 반대해 조선의 폐해인 내장원(內藏院)을 폐지하고, 적절한 기반에서 군부(軍部)를 재조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소를 황제에게 올린 우리 아버님은 내장원과 군부 양쪽 부서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징표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알겠게도 우리 아버님은 양쪽 부서에서 모두 직위를 갖고 계신다. 아버님은 내장원의 수장이지만 이용익처럼 황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 쓰기 때문에 감히 폐지나 남용, 도입이나 개혁을 하지 못하신다. 직위에 대한 아버님의 열정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탐내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수치심을 버리신 것 같다.” 『윤치호 일기』, 1904. 4. 9.

② “군부대신 군무총장(軍務總長) 내장경(內藏卿) 등 세 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 직위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심신이 쇠져를 이 없다고, 잘못된 정부 때문에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등등 말이다. 하지만 마치 어린 아이가 장난감 세트를 갖고 즐거워하듯, 그는 분명히 세 종류의 관직 생활을 상당히 즐기고 있다. 관직,

돈, 그리고 젊은 첩이 그가 열정적인 사랑을 쏟아 붓는 대상이다. 이 세 가지가 주어진다면, 그 밖의 다른 것은 전혀 돌보지 않을 것이다.” 『윤치호 일기』, 1904. 6. 28.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침략자들은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며 조선 침략을 버리고 있는데 조선은 아무런 개혁도 못하고 일본의 “충고”에 놀아나고 있었다. 윤치호는 아버지 윤웅렬이 군부대신, 원수부 군무총장, 내장원경을 지내고 있어⁶¹⁾ 개혁을 주도할 위치에 있고 개혁안을 제출했는데에도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아버지가 고종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관직을 누리려고 수치심도 버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혁은 안하고 불평만 하면서 관직과 돈 그리고 첩을 즐기고 있다고까지 하였다. 윤치호는 조선 관리들의 표준 이상인 아버지마저 관직이나 탐하는 썩은 관리로 보고 개혁에 나서지 않는 것을 비판하였다.

안위가 가장 염려되는 고종은 일본의 혁혁한 승전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일본 연락선 격침에⁶²⁾ 기뻐하면서 점쟁이를 만나 러시아 승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대궐 주위에 술을 얹어 묻거나 지도책이나 삶고 있다고 들었다.⁶³⁾ 일본은 전쟁을 시작하자 여러 척의 러시아 군함을 침몰시키고 마카로프 장군의 기함도 침몰시켜 러시아 해군을 꺾지 못하게 만드는 전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일본

61) 김영희, 『좌옹 윤치호전쟁 약전』, 좌옹 윤치호 문화사업위원회, 1999, 32쪽

62) 블라디보스톡 함대의 활약으로 일본군의 병력 철도엔진 무기 수송에 타격을 주어 1904년 여름 일본군 작전에 많은 차질을 주었다고 한다. 김현철, 「러일 전쟁기 황해해전과 일본해군의 전략전술」, 『군사』51,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4, 264-265쪽.

63) “나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황제가 일본 지도를 가마솥에서 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본과 일본의 대의명분을 저주하는 특이한 방법이긴 하다. 황제는 어제 받은, 원산항에서 러시아의 어뢰선이 일본의 작은 연안 연락선인 오양환(五洋丸)을 격침시켰다는 보고 때문에 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할 것이다. 제물포에서 전쟁이 발발해 끔찍한 연속 폭격이 퍼부어질 때, 훌륭한 군주는 점쟁이를 만나느라 바빴다.” 『윤치호 일기』, 1904. 4. 26.

우편선을 격침했다고 흥분하는 고종을 목격하면서 절망하였다. 더구나 러시아 전과에 흥분하여 러시아를 위한 푸닥거리나 하고 불탄 궁궐 재건에 매달리는 고종을 보면서 윤치호는 일본의 침략을 방어할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일본의 침략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었다. 블라디보스톡 함대를 격파하고⁶⁴⁾ ‘황해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격상시키는 제1차 한일협약(1904. 8.)을 강요하였다.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충고”에서 “고문정치”로 만들어 직접적으로 조선 수탈을 자행하려는 것이었다. 윤치호는 외부대신 서리로 이 협약에 조인하게 되었다. 윤치호는 어려운 순간에 병가를 낸 외부대신 이하영을 비난하면서 외부대신 서리가 된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다.⁶⁵⁾

“오후 4시에 하야시가 궁으로 왔다. —중략— 하야시는 협정서에 서명하겠다는 황제의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하야시의 말이 끝나고 심상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 “만약 귀하가 ‘일본 정부의 일본 대표’라는 문구를 바꾼다면 협정서에 서명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소.” 물론 하야시는 즉시 그 문구를 바꾸는 데 찬성했다. 그래서 그 협정서 문제는 실제로 해결되었다. 심상훈은 하야시에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알리고, 내일 각료들의 자문을 구할 것이며,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협정서에 서명하도록 파견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치호 일기』, 1904. 8. 22.

“오후 2시에 각료회의가 열렸다. 심상훈이 내게 각료회의에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일본공사관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나는 각료들이 그 협정서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 진행되어 각료

64) 김현철, 앞의 논문, 2004, 264-265쪽.

65) 『윤치호 일기』, 1904. 8. 21.

들이 협정서를 검토하고 통과시켰다. 그런 다음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일본공사관에 보냈다.” 『윤치호 일기』, 1904. 8. 23.

위의 인용문들을 보면 윤치호는 이 협약의 의미를 조선 관료들에게 알리고 조금이라도 침략을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조선 관리들은 고문정치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별로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심상훈은 조약 내용보다 조약 체결자의 신분을 문제 삼았다. 다음날 열린 각료회의도 내용 검토 없이 비준하려 하였다. 윤치호의 요구로 내용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다. 일사천리로 조약에 조인하고 일본공사관 보내고 말았다. 윤치호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형편을 혼자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후부터 윤치호는 전쟁의 진행과정과 결과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

2) 전쟁 경과에 대한 관심과 염려

제물포해전이나 일본군의 궁궐 점령도 언급하지 않았던 윤치호가 러일전쟁의 전투과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만주의 찰오리엔청(九連城) 전투였다. 찰오리엔청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은 축하연을 열어 조선 관리들을 초청하고 일본의 전승을 자랑하였다. 축하연에 참석한 윤치호는 자신의 감정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오늘 일본인들은 이달에 구련성(九連城)을 함락시켜 러시아를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지상전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영광스러운 일본인들이야! 일본인들은 동궐인 창덕궁에서 개최한 가든파티에 조선 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그보다 좀 더 하위의 관리들을 초대했다.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〇〇에 가서 일본인들의 환성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을 보았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황제가 뇌보헌(賴寶軒) 같은 굴에서 지내기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을 방치해야 하다니 정말 슬픈

일이다. 황제의 실정(失政)이 나라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붕괴시키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픈 일은 황제에게서도, 비굴하고 부패한 신하에게서도, 아니면 끔찍하게 생기를 잃은 대중에게서도 조선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치호 일기』, 1904. 5. 6.

윤치호는 만주 공격을 성공적으로 시작한 일본에 부러움과 질서를 금할 수 없었다. 윤치호가 참여한 일본군의 전승자축연은 그것을 확인시키는 자리였다. 윤치호는 일본군이 만주 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반면 조선 황제의 지위는 더욱 위태롭게 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고종은 아름다운 궁전을 버려둔 채 뇌보헌에서 불타버린 경운궁 재건에 몰두하고 있었다. 윤치호는 대책 없는 황제를 보면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한편 마카로프 장군 사후 뤼순 항에 갇힌 러시아함대는 1904년 6월 20일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6월 23일 이후부터 8월 10일까지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뤼순 항에 다시 갇히게 되었다.⁶⁶⁾ 뤼순 항에 갇힌 러시아군은 지원군을 기다리면서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 여러 번의 공격에도 뤼순 항을 점령하지 못한 일본 해군은 육군의 뤼순 공격을 제안하였고(1904. 4. 12.) 뤼순 항 봉쇄를 선언하였다.(1904. 5. 26.) 발틱함대의 출항으로 시간이 급해진 일본군은 뤼순 점령을 위해 육로로 진격하였다.

만주 전투를 위해 제1군은 조선을 지나 평양에서 랴오둥 반도로, 4월 중순부터 2군은 랴오둥 반도에서 남산을 거쳐 뤼순에 근접한 다롄까지 진출하였다. 제3군은 7월 30일부터 뤼순 항 점령 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치호는 랴오양 전투를 언급하였다. 1904년 7월 말

66) 양옥, 「뤼순포위전과 만주 대접전」, 『국방저널』509, 2016. 56-59쪽.

부터 뤼순 항을 공격했지만 러시아의 항만 포대를 극복할 수 없었던⁶⁷⁾ 일본은 육군 중심으로 뤼순항의 주변을 공격하여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과 제3군의 작전 결함으로 뤼순 점령은 매우 어려웠다.⁶⁸⁾ 일본군은 활로를 찾기 위해 랴오양 전투를 시작하였는데 거기서 승리한 것이다. 윤치호는 만주 전투의 중심인 셴양과 랴오양의 거리를 명기하여 랴오양 전투의 중요성을 환기하였다. 일본군이 러시아의 요충지 셴양(沈陽; 奉天)을 노리고 있으며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파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투지 랴오양이 조선인의 이주가 많음을 상기시켜 전투 과정에서 희생당했을 조선인들을 걱정하고 있었다.⁶⁹⁾ 그리고 전쟁에 지는 무기력한 러시아보다 전쟁에서 이기는 근대적 일본의 지배가 한국에 유리할 것으로 보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윤치호가 그 다음으로 거론 한 것은 뤼순 함락이었다. 전투에서 어려움을 겪던 일본은 제3군의 지휘부를 교체하고 작전을 전면 수정하여 1904년 11월 26일 제3차 공세를 시작하였다. 일본은 포격의 정확성을 살려 전력을 드러낸 뤼순 항 203고지 탈환에 성공하였다.(1904. 12. 5.) 이후 203고지를 이용해 뤼순 항을 공격함으로써 12월 8일에는 18척의 러시아 함대를 전멸시켰다.⁷⁰⁾ 함대를 모두 잃어버린 뤼순함대의 사령관 스테셀은 참모들과 협의도 없이 1905년 1월 1일 투항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의 뤼순 항 점령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67) 양옥, 앞글

68) 양옥, 앞글

69) “일본이 랴오양(遼陽)을 점령했다! (랴오닝성에 있는 도시로 셴양에서 약 7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동베이(東北)지방에서는 한인이 가장 먼저 이주한 곳이다.) 어떤 경우든 선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러시아인보다는 일본인이 전반적으로 조선인에게 평화와 번영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윤치호 일기』, 1904. 9. 4.

70) 양옥, 앞글

“뤼순항이 그저께 항복했다. 일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란 말인가! 그렇게 거대한 사건들, 조선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거대한 사건들이 우리 조선과 랴오둥 반도를 분리하는 좁은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황제와 대신들은 밤낮으로 유치한 의식, 웅졸한 음모, 자신들의 지긋지긋한 권력 아래 있는 비참한 수천만 명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매달려 있다. 이런 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뤼순 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은 선양에서 쿠로파트킨(1848~1925) 장군을 공격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점점 더 확고해져가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5. 1. 3.

일본군은 뤼순항의 지리적 장점과 러시아의 방어망을 극복하고 뤼순을 점령하였다. 윤치호는 일본군의 뤼순 점령을 “거대한 사건”으로 보았다. 조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투에서 일본은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뤼순 점령 다음 남은 것은 만주의 지상군을 몰아내는 것인데 그 전투는 러시아 지상군의 마지막 보루인 센양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뤼순 점령을 마친 제3군도 이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일본 육군이 모두 센양 전투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고 일본의 승리는 그만큼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조선 지배가 코앞에 닥쳤는데도 고종황제와 관료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매몰되어 어떤 준비도 없었다. 윤치호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다.

뤼순 전투가 정리되자 센양전투가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센양을 지키려 하였으나 일본의 포위망을 뚫을 수 없어 9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많은 전쟁 물자를 포기하고 퇴각하였다.⁷¹⁾ 일본이 만주 결전에서 승리하였다. 윤치호는 센양 전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71) 양옥, 윗글

“1. 2주일 동안 힘겨운 전투를 끝낸 뒤 일본은 선양에서 러시아를 몰아냈소. 따라서 연이은 성공이 일본의 군대에 왕관을 씌우고 있다오. 그러는 동안 조선의 황제는 관직을 팔아넘기고, 장난감 같은 궁궐을 짓고, 일본에 반대해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 산과 강의 정령들에게 기도하는 데 돈을 낭비하느라 바쁘다오.

2. 일본인은 이근택, 조병식, 이근상(李根湘), 박용화 등을 통해 궐内の 부패와 폭정을 부추기고 있소. 조병호(趙秉鎬)는 의정부 의정대신에 임명되었소. 조병호는 부패를 이유로 용감하게 조병식을 해임했소. 일본인들은 즉시 황제를 움직여 조병호를 해임하고 조병식을 그의 자리에 임명하게 만들었소! 따라서 일본인은 자신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정직한 인물들을 통한 조선의 안녕이 아니라 부패한 악당들을 통한 조선의 강탈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오.

3. 일본인은 외국에 나가 있는 조선 공사들을 복귀시키고 우체사(郵便司)의 관리를 일본 당국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오.” 『윤치호 일기』, 1905. 3. 21.

위의 인용문을 보면 일본은 힘겹지만 만주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보았다. 전력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고비마다 일본은 승리하였으며 센양 전투의 승리로 일본의 승리는 확실해졌다고 보았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수탈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조선 외교관들의 소환을 요구하고 통신 관리권도 일본이 차지하려 하였다. 수교국들의 외교관들도 떠나고 있었다. 나아가 조선 주둔군 대장을 황제가 맞아야 했으며⁷²⁾ 러시아의 위협에서 벗어난 일본인들은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었다.⁷³⁾ 일본은 승패가 완전히 갈리지 않은

72) 『윤치호 일기』, 1904. 10. 13.

73) “러시아인들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일본 민간인과 군인들은 전혀 숨길 생각도 없이 막걸리를 따르내고 있다. 일본인이 가는 곳은 어디서나 칼싸움 방화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중략- “일본인의 야비함과 일본인의 음모, 그리고 이권을 추구하는 정책은 아닌 척 위장하지만 그럼에도 확고부동하게 반일 태도를 취하도록 수많은 조선인을 몰아세우고 있다.” 『윤치호 일기』, 1904. 10. 20.

상황에서도 이미 승리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황제와 관료들은 매관매직에 몰두하며, 궁궐 짓기에 재정을 쏟아 붓고, 패배하는 러시아를 위해 무당을 동원하는 등 쓸 데 없는 일에 매몰되어 있었다. 일본의 조선 지배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남은 것은 러시아를 떠나 동아시아로 향하던 발틱함대(제2 태평양함대)와 일본 해군의 결전뿐이었다. 윤치호는 발틱 함대가 아프리카를 돌아 타이완 주변에 이르렀음을 주시하였다. 행여 러시아가 이겨 조선의 상황이 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윤치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⁷⁴⁾ 윤치호는 동해해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5월 27일과 28일에 발틱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완전히 파괴되었소. 이 사건은 일본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군사작전이 되었다오! 나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연속된 성공을 기뻐할 특별한 이유가 없소. 일본이 거두는 승리는 모두 조선의 독립이라는 관에 박히는 못이라오. 일본인이 조선인을 일본의 지배라는 수레바퀴에 단단히 사슬로 묶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정말로 야비하오. 하지만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조선, 또는 나는 일본의 영광스러운 성공에 자부심을 느낀다오. 일본은 우리 황인종의 명예를 높이고 있소. 이제부터는 허풍쟁이 미국인도, 오만한 영국인도, 허영심 많은 프랑스인도 황인종이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오. 중국인이 산업이나 상업 면에서 다른 인종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듯이, 일본인은 자존심 강한 서구가 극동의 육군과 해군의 비범함을 인정하게끔 만들었소.” 『윤치호 일기』, 1905. 6. 2.

윤치호는 동해해전의 승리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결론지었고 조선은 일본의 지배사슬에 묶이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윤치호는 동양의 약체 국가 일본이 서구의 강국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승리했기에 자랑스러운 것이라 하면서 서구 열강들의

74) 『윤치호 일기』, 1905. 4. 20.

단점을 비판하였다. 윤치호는 일본의 군사적 승리를 논하면서 중국의 상업적 우월도 동일한 수준에서 논하였다. 동양의 우월성을 일본과 중국을 통해 강변하고 있었다. 위 인용문의 전체적 의미는 일본의 승리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다. 황인종의 승리 속에 조선을 포함시키려는 욕구가 숨겨진 것이다. 중국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일본이 서구에 승리할 만큼 군사적으로 성공하였다면 조선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문제는 조선의 근대화를 주도할 국왕과 관리들이 부패하여 일본의 침략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된 것을 참담해한 것이다.

러일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윤치호는 전투의 고비마다 일본의 승리에 주목하였고 그때마다 조선의 운명에 노심초사하면서 대책 없는 황제와 관료들을 비판하였다. 윤치호는 관료로서의 개혁에 최선을 다하려 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 결과인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를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제국주의 열강들도 이를 인정하였다. 윤치호는 일본 침략 아래 조선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외부대신 승진을 사양하고 퇴직하였다.

5. 맺음말

기존의 연구들은 윤치호의 개화사상을 독립을 유보한 문명국 지배하의 근대화론으로 보고 있으며, 일제 말 윤치호가 친일파로 전향한 것도 그의 사상적 귀결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윤치호는 근대화를 이루려면 국가의 독립이 필요하고 독립하려면 외세의 침입을 막아야하고 외세의 침략을 막으려면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군사력의 강화를 개혁의 제1과제로

생각한 윤치호는 이를 위해 제도의 개혁과 산업화 즉 근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치호가 구상한 근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조선의 군사개혁은 국왕의 안위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윤치호는 조선이 군사력 강화에 실패한 이유를 3가지로 보았다. 먼저 조선왕조의 유교적 문치주의가 상무정신을 말살하여 군대양성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보았다. 다음은 근대적 군사개혁을 외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국제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지원세력이 변하면서 제도가 안착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군대 개혁이 일관성이 없어 인적 물적 자원만 소비하고 군사력 강화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세와 연관된 조직들이 잔존하여 조직적 통합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런 가운데 관료들의 부패와 맞물려 군인들의 기강도 해이해져 근대적 군사개혁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군대가 개혁을 빙자하여 새로운 부패와 수탈의 통로를 첨가했다고 보았다. 결국 조선은 근대적 군대양성에 실패하여 국제적으로 벨기에형 중립화(=보호국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반면 일본은 무사들이 사회를 주도하여 상무정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되었다. 그 결과 각 지역 번주들이 일찍부터 서구 열강의 군사제도를 수용하고 실험하여 중국에는 일본적 군사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세계 최고의 영국 해군과 독일 육군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근대적 무기와 작전으로 무장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청군은 양무운동으로 근대적 군사 장비는 소유하였으나 봉건성을 탈피하지 못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보았다. 윤치호는 근대적 군사장비의 수입이 군대의 근대화로 이어지려면 또 다른 근대화 즉 군사문화의 근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윤치호

는 러일전쟁에 대해서도 군사문화의 근대성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력의 차이를 맹신한 러시아는 지리적 약점과 보급선의 불완전함을 내세워 전투에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허용하였다. 일본은 러시아가 허용한 공간과 시간을 적극 이용하는 근대적 합리성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벨기에형 중립화라는 조선에 대한 국제여론을 이용해 조선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을 강요하였다. 윤치호는 제2차 한일협약이 조인되는 것을 보고 “보호국” 관직을 사양하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혁을 찾아 나섰다.

(원고투고일 : 2020. 7. 6, 심사수정일 : 2020. 8. 14,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개화기, 윤치호, 군사문제, 조선의 군사개혁, 일본의 군사개혁,
청일전쟁, 러일전쟁, 뤼순전투, 센양(봉천)전투

〈참고문헌〉

- 윤치호, 『국역 윤치호 일기』 1883-190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8759139>
- 김영희, 『좌옹윤치호선생약전』, 좌옹윤치호문화사업위원회, 1999.
- 강명숙, 「윤치호와 남감리교 선교-개성지역을 중심으로」, 『사학연구』24 (2016. 12), 135-172, 한국사학회,
<http://uci.or.kr//G704-001261.2016..124.0011>
- 김기주, 「개항기 조선정부의 대일유학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29 (2004. 여름), 113-137, 한국근현대사학회,
<http://uci.or.kr//G704-001258.2004..29.008>
- 김도형, 「한말 일제하 기독교 지식인 윤치호(1865~1945)의 ‘文明論’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연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 완충체계 이론을 중심으로」,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788893>
- 김현철, 「박영효의 정치개혁사상」, 『軍史』34(1997. 6.), 237-273, 국방부군사연구소
<http://uci.or.kr//G901:A-0001158114@N2M>
- 김현철, 「러일전쟁기 黃海海戰과 일본 해군의 전략·전술」, 『軍史』51, (2004. 4), 251-281,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http://uci.or.kr//G901:A-0001887042@N2M>
- 박인화, 「구한말 도일 관비 유학생에 관한 고찰」, 『녹우회보』24(1983. 3), 87-113, 이대사회생활과,
<http://uci.or.kr//G901:A-0000521225>
- 박희호, 「구한말 한반도 중립화론」,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서영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 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 학계의 시각」, 『軍史』100 (2016. 9), 119-146,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http://dx.doi.org/10.29212/mh.2016..100.119>

- 심헌용,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관계사: 영토확장 · 청일전쟁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19159>
-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243386>
- 심헌용, 「러일전쟁시기 러 · 일 양국군의 한반도 내 군사 활동」, 『아시아문화』 21(2005. 8.), 9-34,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http://uci.or.kr//G300-jX1092704.vn21p9>
- 양 욱, 「동북아의 운명을 결정지은 쓰시마 해전. 3-뤼순포위전과 만주의 대접전」, 『국방저널』통권 509(2016. 5.), 56-59, 국방홍보원.
- 유바다, 「청일전쟁기 朝-淸 항일 연합전선의 구축과 동학농민군」, 『동학학보』 51 (2019. 6.), 305-339, 동학학회,
<http://uci.or.kr//I410-ECN-0101-2019-100-001026635>
- 유영렬, 「개화기 윤치호 연구」, 고대 박사, 1985.
<http://uci.or.kr//G901:A-0004414201>
- 유영렬, 「개화지식인 윤치호의 러시아 인식 : 그의 문명국 지배하의 개혁론과 관련하여」, 『한국민족운동사연구』41(2004. 12), (94-12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http://uci.or.kr//G704-000827.2004.41..008>
- 유영익, 「갑오 · 을미년간(1894-1895) 박영효의 개혁활동」, 『국사관논총』36 (1992. 10.), 1-30, 국사편찬위원회
- 유영익, 박영재, 조재곤, 『한국사-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국사편찬위원회, 2000.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91439>
- 이광린, 「윤치호의 일본유학」, 『동방학지』59, (1988. 6), 171-191, 연대국학연구원,
<http://uci.or.kr//G901:A-0002379942>

조병한,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東洋史學研究』88, (2004. 8), 131-168, 동양사학회,

<http://uci.or.kr//G704-000250.2004..88.001>

조세현, 「水師에서 海軍으로 : 청말 양무운동 시기 함선과 대포의 해외구매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56(2012. 12), 103-137,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http://uci.or.kr//G704-001440.2012..56.006>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http://uci.or.kr//G706+KPEF01-F.organRecomBookInfo.0000017662>

한승훈, 「19세기 후반 조선의 대영정책연구(1874-1895); 조선의 균세정책과 영국의 간섭정책의 관계 점검과 균열」, 고대 박사학위논문, 2015,



(Abstract)

Yun Chi-ho's Understandings about Military Affairs during the period of enlightenment for Joseon Dynasty

Kang, Myung-sook

When we studied about the questionable figure Yun Chi-ho who was social reformer in late Joseon dynasty, it is said that Yun had been more concerned about the modernization than the independence of the country. Therefore his thoughts had been considered as pro-japanese tendency from the start. Finally Yun became one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in 1938, when he was 74 years old, related the 'Hung-up Club Accident'.

However, Yun insisted that modernization could not promote without preventing the aggressions of imperial countries. His career background was related deeply to military field, thanks to his family, especially his father's assignments, which were the officer of Bulgigun(kind of Government military forces) and minister of National Defence. As Yun stressed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country so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of the country.

Chosun Dynasty had promoted the military reformations for strengthening the king's security above all. But the reformations were not successful. There were three major reasons for that as below

Firstly, the military fields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as compared with the civilian service field by the confucian principle in Joseon dynasty. Therefore there had been not good military experts due to the social trends and thoughts in Joseon. Secondly, the surrounding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Qing, and America initiated the military reformations. The influence of these countries on the military systems had been frequently changed, therefore the reformations of Joseon would stop at those times. As a result, troops could not get the modern power. Thirdly, soldiers were

indisciplined and corrupt to make money. For those reasons, the military reformations of Joseon were failure. The international opinion about Korea was belgian neutrality in order to keep the korean independence.

On the contrary, the military reformation of Japan had been successful. Japanese society had respected martialism traditionally, so it was natural for Japan to adopt western military systems flexibly from early times. Therefore Japan had strong modern troops.

Japan got the victory in Sino-Japanese War and reformed Korea on the face of it. Actually, Japan invaded and plundered the Korean peninsula. Korea wanted to use Russian powers to eliminate the japanese control. Russia and Japan competed bitterly in Korea. Finally, Japan won in Russo-Japanese War. Japan should dominate over the Korea. During the two wars, Yun would make comparisons and analyses between China and Japan, Russia and Japan in the military powers and fighting efficiencies. Yun watched and appreciated the battles and war situations in crucial times. Yun concluded that Japan should dominate over Korea. He gave up the official public services and looked for other reformations with people.

Keywords : Yun Chi-ho, the period of enlightenment, Military affairs, Korean Military reformation, Japanese Military reformation, the Sino-Japanes War, the Russo-Japanese War, the Battle in Lu-shun, the Battle in Shenya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99-135
<https://doi.org/10.29212/mh.2020..116.9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난중일기』의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 검토

이수경*

1. 머리말
2. 장흥 白沙汀과 碧沙驛
3. 장흥 軍營仇未와 船所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역사 속에서 학계 내외의 관심이 가장 큰 사건 및 인물을 꼽자면, 임진왜란과 이순신이 상위에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그에 관련한 지리적 비정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고 또한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 중에는 엄

* 지역유산연구원 대표,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박사.

밀한 사료 고증이나 현장 조사가 결여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장흥 땅 白沙汀과 軍營仇未의 위치를 고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곳은 정유재란 시기 칠천량해전 직후 수군 재건을 위한 이순신의 행보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곳에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백의중군로(2010년)¹⁾ 조선수군재건로(2013)를 조성하여 남도 이순신길을 개발하였다. 전남의 8개 지역, 구례·곡성·순천·보성·장흥·강진·해남·진도가 해당된다.²⁾ 8개 지역은 『난중일기』를 근거로 해당 지역의 거점을 고증하였다. 그 결과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보성군 회천면 일원으로 비정한 후 해당 장소에 관광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2013년 이후에도 필자를 포함한 연구로 인하여 보성군 회천면 일원이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로 고착되었다.³⁾

이순신의 필사본 일기와 『이충무공전서』(1795년)에 수록된 「난중일기」에는 「到長興地白沙汀秣馬 到軍營仇未[龜尾]」로 기록되어 있다. 백사정과 군영구미 위치에 관계된 사료 및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1) 백의중군로는 구례~순천 약 119km 구간을 2012년 11월 조성이 완료되었음(박창규 외, 『백의중군로 콘텐츠사업 기초조사』, 전남도립대학교·전라남도청, 2010).

2) 조선수군재건로는 1597년 8월 3일 이순신이 전남 구례에 입성하여 조선 수군을 재 정비하여 9월 16일 우수영에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시점까지 이동한 구간을 의미함. 조선수군재건로는 전남 연해안 8개 시·군을 연결하는 500km의 길이다(박창규 외,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 전남도립대학교·전라남도청, 2013, 35쪽).

3) 노기욱 외, 「이순신의 '상유십이' 수군보존 현장 보성군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제22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4; 『명량 이순신』, 전남대학교출판부, 2014, 196쪽; 이수경, 「이순신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활용방안-보성군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3쪽; 「정유재란시기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보성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제3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207쪽; 정현창, 「조선후기 전라도지역 船所址와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262~293쪽.

근래에 출간된 자료집은 기존의 ‘비정’을 무비판적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료와 자료의 생산 시기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수군진의 수군 외 읍수군의 운영상을 검토하면서 이곳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느꼈다.

필자는 制勝方略制, 임진왜란 시기인 16세기 沿海郡縣의 戰船 배치와 운용,⁴⁾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소속의 船所를 다룬 연구를⁵⁾ 접하면서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에 대해 천착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地誌類와 고지도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장 답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임진왜란 시기의 유적지·전적지를 고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올바른 지방사 정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사료 고증과 현장 조사의 결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2. 장흥 白沙汀과 碧沙驛

조선수군재건로는 『난중일기』 1597년 8월 3일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어 전남 구례에 들어온 사실을 토대로 구례 지역에서 시작되어, 9월 16일 명량해전이 펼쳐진 해남과 진도 지역이 마지막 구간이다.

1597년 7월 16일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하면서 당시의 통제사 원균은 전사한다. 그 후 신속한 조치로 22일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

4)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제4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8.

5)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 연구」, 『軍史』 제105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2017.

된 이순신은 경남에서 전남의 해안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수군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구례, 순천, 낙안, 보성, 장흥 지역을 순차적으로 돌면서 전선, 군사, 군량, 무기 등을 수습한다. 그중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통제사의 이동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

- 1597년 8월 16일 맑았다. 아침에 보성 군수와 군관 등을 屈岩으로 보냈다. 피해 떠났던 관리 등을 찾아내게 했다. 선전관 박천봉이 되돌아가기에, 나주 목사와 어사 임몽정에게 답장을 써보냈다. 朴士明의 집으로 사령 등을 보냈는데, “사명의 집은 이미 비어 있다.”고 했다. 오후에 공장 지이와 태귀생, 선의와 남해 현령 박대남 등이 들어왔다. 김희방과 김봉만이 왔다.⁷⁾

- 1597년 8월 17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白沙汀에 이르렀다. 점심 후에 軍營仇未로⁸⁾ 가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수사 배설은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의 군량 감색이 군량을 모두 훔쳐 관리들이 나누어 가져갈 적에 마침 와서 붙잡게 되어 重杖을 내렸다. 그대로 여기서 잤다.⁹⁾

- (續¹⁰⁾) 1597년 8월 17일 이른 새벽에 길에 올라 白沙汀에 이르러

6) 『亂中日記』의 국역은 이은상, 『(國譯注解)李忠武公全書』(上), 충무공사업회, 1960; 박혜일 외, 『(번역)이순신의 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송찬섭, 『난중일기』, 서해문집, 2004;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완역본)』, 동아일보사, 2005·2016(여해); 박중평,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를 참조함.

7) 『亂中日記』 丁酉年 8월 16일.

8) 이순신이 쓴 친필본 정유일기, (속)정유일기에는 軍營仇未라고 적혀 있으나, 1795년 『이충무공전서』 「난중일기」에는 軍營龜尾라 적혀 있다.

9) 『亂中日記』 丁酉年 8월 17일.

10) 이순신의 친필본 일기 중 정유년의 일기는 두 권이 전한다. 두 일기를 비교하면 겹치는 일자(8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상당하나 기록된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한 본은 정유년 10월 8일까지의 기록에서 끝나며, 한 본은 1598년 1월 4일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내용도 자세하다. 따라서 후자의 일기를 (속)정유일

말을 쉬게 했다. 軍營仇未에 이르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었다. 수사 배설이 내가 탈 배를 보내지 않았다. 장흥 사람들이 많은 군량을 임의대로 훔쳐 다른 곳으로 가져갔기에 잡아가다 곤장을 쳤다. 날이 벌써 저물어 그대로 머물러 잤다. 배설이 약속을 어긴 것이 서운하였다.¹¹⁾

번역자 및 연구자들은 위에 제시된 『난중일기』를 기반으로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다음처럼 비정하였다.

〈표 1〉 백사정 및 군영구미 위치 비정¹²⁾

연구자	백사정	군영구미
이은상(1960) ¹³⁾	.	강진군 고군면 병영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1974) ¹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문영구(1978) ¹⁵⁾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조성도(1989) ¹⁶⁾	.	강진군 고조면
박혜일 외(1998) ¹⁷⁾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벽사역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송찬섭(2004) ¹⁸⁾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강진군 병영
노승석(2005) ¹⁹⁾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박형상(2007) ²⁰⁾	보성군 회천면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전남도립대학 · 전라남도(2013)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 해수욕장 ²¹⁾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²²⁾
노승석(2016) ²³⁾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박종평(2018) ²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기라고 본문에서 지칭함을 밝혀둔다. 참고로 『이충무공전서』(1795)의 「난중일기」는 1597년 10월 8일까지 기록된 전자의 일기만을 수록하였다. 본고에서는 친필본 두 본을 같이 참조하였다.

11) 『亂中日記』(續) 丁酉年 8월 17일.

12) 이은상은 백사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군영구미는 강진군 고군면 병영으로 보았다. 조성도는 군영구미를 강진군 고조면으로 보았다. 보성군 향토사학자 박태전은 『보성군 향토사』(1974)에서 백사정은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군영구미는 전일리 군학마을로 추정하였다. 문영구는 『보성군 향토사』에 수록된 백사정

언급되고 있는 백사정, 군영구미를 현재의 보성군 회천면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이순신의 從事官으로 활동한 정경달(丁景達, 1542~1602)이 지은 亭子 白沙亭이 장흥부 회천면 바닷가에 있었다는 18세기 후반의 기록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회천면의 행정구역이 조선시대에는 장흥부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개편 이후 보성군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회천면 군학마을에 城 터라고 주장하는 유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97년

과 군영구미의 위치 비정에 찬성하면서 더 구체화시켰다. 예를 들어, 명교마을 535번지 터 白沙亭으로 언급한 것을 들 수 있다. 박태전과 문영구는 하얀 모래사장 백사정이 아닌 정자 백사정으로 비정하였다. 1990년대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여러 번역자에 의해 번역되었다. 박혜일은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장흥군 원도리 碧沙驛과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로 보았다. 백사정을 조선시대 驛站 일을 보던 察訪이 있었던 벽사역으로 본 최초의 연구자이다. 그 근거를 잘방역이 있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송찬섭, 노승석은 선행된 지명을 반반씩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시되지 않았다. 박종평은 선행된 연구 성과를 일괄 소개하였다.

- 13) 이은상, 앞의 책(1960), 562쪽.
- 14)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종교와 문화-제3절 會寧浦城과 龜尾營』, 『보성군 향토사』, 호남문화사, 1974, 116쪽, 118~120쪽; 이 자료는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명교마을, 군학마을이라 비정한 기록이다.
- 15) 문영구, 『전라좌수영 및 관하 五官·五浦의 사적』, 『여수 수전대논문집』 제92권, (사)대한건설진흥회, 1978.
- 16) 조성도,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 명문당, 1989, 317쪽.
- 17) 박혜일 외, 앞의 책(1998), 241쪽 도판, 285쪽, 299쪽; 박혜일은 일기의 본문에서는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언급하지 않고, 후반부에 수록된 도판과 지명을 비정하면서 이를 수록하였다.
- 18) 송찬섭, 앞의 책(2004), 320쪽, 378쪽.
- 19) 노승석, 앞의 책(2005), 435쪽.
- 20) 박형상, 「이충무공과 전라도 장흥의 관계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제9호,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292~297쪽.
- 21)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6쪽; 전술하였듯이 이순신은 '到長興地白沙汀秣馬 到軍營仇未龜尾' 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보성 白沙亭'으로 항목을 설정하였다. 정자 白沙亭과 물가 白沙汀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77쪽에는 군대 연변장과 흡사한 모래사장이 있다고 기술함.
- 22)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35쪽
- 23)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2016, 455쪽.
- 24) 박종평,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469쪽, 558쪽

8월 17일 이순신 일행은 장흥부 회천면에 있는 정경달이 지은 정자 백사정에 들러 사람과 말이 쉬었으며, 인근 龜尾營城 터가 남아 있는 군학마을에서 하루 유숙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강진, 보성, 장흥 지역의 문헌 조사와 수차례의 현장 답사를 하였다. 먼저 백사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백사정은 하얀 모래사장 혹은 하얀 모래톱의 의미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흥 땅 백사정이란 곳도 장흥의 하얀 모래사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형상 장흥의 하얀 모래사장은 강변이나 바닷가로 특정한 곳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제시한 1597년 8월 17일의 일기를 정리하면, ① 장흥 땅 白沙汀에서는 점심을 먹을 수 있어야 하며 ② 보성읍성에서 일찍 출발하여 군기를 싣고 온 말도 쉬게 해야 했다. 통제사 일행이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말도 쉴 수 있는 곳은 당시 驛·院이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행보를 이순신의 『난중일기』에서 간추려 보았다.

〈표 2〉『난중일기』 ‘點心, 點’ 용례 검토

날 짜		내 용	관련 장소
1592년 3월 14일		…간신히 先生院에 가서 말을 먹이고 해농창평에 이르니 길가에 물 깊이가 거의 석 자나 괴어 갇은 고생 겪으며 순천부에 다다랐다…	순천 선생원
1 5 9 6 년	윤8월 18일	일찍 출발하여 陽江驛에 도착하니 종사관 김용은 서울로 올라갔다. 점심을 먹은 뒤, 산성[남양]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보아 각 포구와 여러 섬들을 손으로 짚어가며 살펴보고, 그 길로 흥양으로 향했다(…).	흥양[고흥] 양강역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	장흥 백사정
	윤8월 29일	비가 조금 내렸다. 이른 아침에 男女驛에 ²⁵⁾ 도착했다. 점심을 먹은 뒤에 해남현에 이르렀다. 소국진을 본영으로 보냈다.	해남 남녀역 (남리역)
	9월 1일	일찍 출발하여 石梯院에 도착하여 점심을 먹고 이경에 영암으로 가서 향사당에서 잤다…	강진 석제원
	9월 3일	아침에 떠나 나주 新院에 이르렀다. 점심을 먹은 뒤 나주 판관을 불러 고을의 일들을 물었다.	나주 신원
	9월 6일	먼저 무안으로 가겠다고 체찰사에게 고하고 길에 올랐다. 古莫院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나니 나주 감목관 나덕준이 뒤쫓아와서 서로 만났다…	나주 고막원
	9월 8일	…저물녘에 東山院에 와서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말을 재촉하여 임치진에 이르니….	무안 동산원
	9월 9일	…아침 식사 후에 뒷성으로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고 東山院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은 뒤 함평현에 가다가 도중에….	무안 동산원
1 5 9 7 년	4월 27일	일찍 출발하여 송치에 이르니 구례현감이 사람을 보내어 점심을 지어 먹고 보내게 했다. 순천 松院에 이르자 이득종과 정선이 와서 문안하였다….	순천 송원
	8월 4일	아침 식사 후에 鴨綠江院에 이르러 점심밥을 짓고 말의 병을 고쳤다….	곡성 압록강원
	8월 17일	일찍 아침 식사 후에 곧장 장흥 땅 白沙汀에 이르렀다. 점심 후에 軍營仇未로 가니, 온 경내가 이미 무인지경이 되었다.	장흥 백사정

앞의 표는 1592년 이순신이 전라좌수사 시절 순천부로 향하는 일정, 1596년 통제사 시절 체찰사와 체찰부사를 모시고 전라 좌·우도 지역을 순찰하는 일정이다. 1597년은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전라 우도 쪽으로 향하는 일정이다. 통제사가 점심을 먹은 장소, 지어 먹은 장소,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장소가 대개 驛과 院이었다. 백사정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하므로, 이곳은 역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소, 혹은 역과 원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필자도 통제사 일행이 점심을 먹고, 말이 쉴 수 있는 白沙汀을 벽사역과 가까운 물가로 추정한다. 8월 17일의 일기를 구체화시키면, ‘이순신 일행은 보성읍성에서 장흥 벽사역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중 벽사역 인근 물가 백사정에 이르자 먼저 말에게 물을 먹이고, 벽사역으로²⁶⁾ 들어가 조선 수군 일행도 점심을 먹었다.’고 설정하겠다. 그렇다면 백사정은 벽사역 인근의 장흥 沔陽江[현재는 耽津江으로 불림]의 강변 둔치로 추정된다.

25) 南利驛이나 이순신은 男女驛으로 기록하였다.

26) 벽사역은 고려시대에 ‘碧山驛’이었다(『고려사』 권82, 「志」 권36, 참역, 昇羅州道 掌三十(승라주도 소속 30개 역은 靑巖(羅州), 仙巖·敬陽(光州), 德奇(潭陽), 慶新·淸淵·龍溪(務安), 廣里(南平), 仁物(綾城), 永新(珍原), 烏林(鐵冶), 嘉林(和順), 緣沙(靈光), 丹巖(長成), 靑松(茂松), 街豐(咸豐), 德樹(牟平), 永保(靈巖), 通谷(道康), 淩山(海南), 碧山(遂寧), 別珍(竹山), 南里(黃原), 軍知(福成), 嘉新(實城), 波淸(兆陽), 樂新(樂安), 益新·蟾居(光陽), 栗陽(昇州)이다). 1426년(세종 8)의 기록에서는 ‘碧沙驛’이 출전되므로 세종시기 무렵 역명이 벽산역에서 벽사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世宗實錄』 권32, 8년 4월 甲申). 1462년(세조 8) 벽사역을 비롯하여 보성의 可申驛·波靑驛, 홍양의 楊江驛, 낙안의 洛昇驛, 강진의 鎭原驛·通路驛, 해남의 緣山驛·別珍驛·南利驛 등 모두 10개가 있었다. 벽사도는 장흥에서 서쪽의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으로 이어지는 역로, 장흥 동쪽의 보성군 및 고흥군으로 이어지는 역로, 그리고 장흥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역로 등을 관할했다. 벽사역은 조선시대의 호남지방에 있던 6개의 찰방역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역졸을 거느린 곳이었다. 1747년 『장흥읍지』의 벽사역은 말이 총 95 필이었으며, 벽사역에 소속된 驛吏는 515명, 驛奴는 1,757명, 驛婢는 92명이었다. 이 역도는 1896년 폐지되었다(『호남읍지』(1871년, 奎12175) 장흥도호부; 『世祖實錄』 권29, 8년 8월 丁卯; 『湖南驛誌』(1872년, 奎12175); 『長興邑誌』 부동방 역원 조 참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백사정을 보성 회천면 벽교리의 명교마을 앞 해안가 넓은 모래 둔치라 비정하였다.²⁷⁾ 그러나 말에게 바닷물을 먹일 수는 없다. 120명이 넘는 군사가 모여서²⁸⁾ 바닷가 백사정이란 정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말과 사람이 쉴 수 있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 역을 예상하였고, 보성 읍성에서 장흥 벽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장흥 땅 백사정은 벽사역 인근 예양강의 모래 둔치로 판단된다.²⁹⁾

1872년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大路와 小路가 확인되며, 대로는 국도 2호선에 해당하며, 소로는 웅치면 帝岩山 곰재[웅치]를 넘는 길이다. 대로는 1918년 제작된 장흥 지형도에서도 관찰된다.³⁰⁾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보성읍성에서 출발하여 장흥 웅치면, 장동면, 용계면을 거쳐 부동면 벽사역까지 약 21km를 이동한 셈이다. 당시 120여 명의 군사와 무기를 실은 말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은 대로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소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로를 타고 이동하면 제암산의 웅치를 넘어야 한다. 대로와 소로 중 당시 어느 길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 추후 고증이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조선수군 일행이 대로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여긴다. 보성읍성에서 대로를 타고 벽사역을 향해 이동할 때 만나는

27) 노기욱 외, 앞의 논문(2014); 앞의 책(2014), 196쪽; 이수경, 앞의 논문(2016), 33쪽;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62~293쪽.

28) 『행록』에 따르면 1597년 8월 초부터 18일 사이에 순천에서는 병정 60여 명을 얻고, 보성에 이르러서는 120명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29)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81~82쪽에서는 『湖南驛誌』 「碧沙圖」(1895)에 기록된 堤防, 방축(현재 장흥읍 축내리 축내저수지)으로 보았다.

30) 보성군청에서 대로와 소로를 도보 답사한 결과 약 21km의 거리가 측정되었다. 대로는 보성군청-보성을 원봉삼거리-국도 2호선 구간인 웅치면-장동면-장흥읍 원도리까지 약 21km이다. 소로는 보성군청-보성을 원봉삼거리-웅치면사무소-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입장-관리사무소-곰재 등산로-곰재 사거리-제암산 주차장-장흥읍 원도리까지 약 21km를 도보로 7시간 동안 답사하였다(2020.05.01.). 통영 길문화연대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감사 인사 올립니다.

장흥 땅 백사정은 예양강[탐진강] 인근의 강변 둔치이다. 만약 소로를 타고 이동하였다면 벽사역 방향으로 이동할 때 만나는 장흥 땅 백사정은 제암산에서 발원하여 흐른 驛川[현재는 부동천으로 부름] 인근의 강변 둔치이다. 따라서 백사정을 넓게 보면 벽사역에 도착하기 전의 예양강 강변 둔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하면서 걸어본 결과 대로와 소로의 이동 거리는 비슷하였으나, 군사의 이동이기 때문에 재를 넘는 소로보다는 대로를 통한 행보로 결론짓겠다. 즉 대로로 이동하면서 만나는 장흥 예양강 둔치가 하얀 모래, 백사정이다.

장흥부 고지도를 통해 대로와 소로, 그리고 예양강과 역천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1750년경 비변사인방안
장흥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2〉 1872년 장흥부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10439.

위의 장흥부 고지도에는 邑城을 중심으로 큰 강이 그려졌다. 이 강이 沔陽江·沔江(현재 탐진강)이다. 읍성 東門 앞에서 예양강과 합수하는 작은 물줄기는 驛川(현재 부동천)이다. 1918년의 장흥 지형도와 지금의 지형도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1918년 장흥지형도



* 출처: 국토정보지리원.

〈그림 4〉 현재의 장흥



* 출처: 구글지도 편집

다음은 지리지에서 살펴보겠다. 『長興邑誌』(1747) 府東坊의 閭里條에서 驛村은 벽사역이 있는 곳을 칭하며, 부동방의 山川條에 기록된 驛川은 벽사역 뒤로 흐르는 강을 칭한다. 부동방의 橋梁條에는 驛川橋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강폭이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천은 현재의 부동천에 해당되며, 역천교는 현장 조사 결과 현재의 원도교이다. 조선시대 이 일대는 부동면 沙上里·碧沙中里·下里에 해당된다.³¹⁾ 이곳이 1912년에는 부동면 上里·中里·冬柏里·元道里로 개편되었고, 1932년 11월 부동면이 장흥면과 합병됨에 따라 현재는 장흥읍에 속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그전에도 장흥 백사정을 방문하였다. 1596년 윤8월 당시는 홍양[현재의 고흥] 녹도진에서 배를 타고 백사정으로 들어왔다. 다음의 일기를 보자.

- 1596년 윤8월 19일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체찰사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녹도에 도착하여 잤다.³²⁾
- 1596년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31) 『戶口總數』(1789) 府東面.

32)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19일.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³³⁾

위의 일기는 1596년 체찰사, 체찰부사, 통제사 일행이 홍양 녹도진에서 장흥부로 들어오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당시 일행은 녹도진에서 머물렀으며, 다음 날 녹도진에서 전선을 타고 장흥부로 들어왔다. 기존의 주장은 체찰사 일행을 모시고 회천면 벽교리 명교 바닷가 백사정에서 하선하여 점심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문맥상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597년 8월 17일의 백사정도 전선의 정박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순신이 굳이 군영구미로 가서 전선을 탈 필요가 없어 보인다. 즉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경우는 전선을 某處에³⁴⁾ 정박하고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백사정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해수욕장이라는 典據를 검토함으로써 필자가 주장하는 것과 비교해 보겠다. 1914년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기 전 보성군 회천면은 장흥에 소속되었다. 그래서 1914년 이전의 자료는 장흥부에서 살펴보았다.

〈표 3〉 조선시대 지리지에서 白沙汀, 白沙亭 용례 검토

문헌	내 용
『長興邑誌』 (1747)	會寧坊 ³⁵⁾ 臺榭 白沙亭 在浦村東數里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腸 詠作白沙亭歌與記其後卞時會來兩進士 ³⁶⁾ 自寶城移居汀畔時時遊詠 ³⁷⁾

33)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20일.

34) 후술할 군영구미에 해당된다.

35) 1914년 4월 1일 장흥군 회령면·천포면·웅치면이 보성군에 편입되었다. 회령면과 천포면은 통합되어 회천면이 되었다.

조선 후기 『장흥읍지』에는 회령방의 정자 백사정에 관한 기록이 있다. 정경달이 지은 정자이다. 물가 백사정에 대한 기록은 검토되지 않았다. 이유는 백사정은 하얀 모래사장이므로 어느 특정한 곳을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닷가, 강변의 모래사장은 모두 백사정이므로 지리지에 특별히 오를 이유가 없다.

〈표 4〉 근·현대 지리지·마을유래지에서 白沙汀, 白沙亭 용례 검토

문헌	내 용
『長興邑誌』 (1910)	會寧坊 臺樹 白沙亭 在浦村東數里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 鰲詠作白沙亭歌與記其後卞時會來兩進士自寶城移居汀畔時時遊詠 ³⁶⁾
『寶城郡誌』 (1924) ³⁹⁾	기록 없음
『寶城誌』 (1966)	會寧坊 臺樹 白沙亭 在浦村東數理明沙四面清江海棠青松隱映左右果以勝地南中有名丁景達有詩 鰲詠作白沙亭歌與記 丁酉再亂李忠武來此水軍備處 其後卞時會卞時來兩進士自寶城移居遺詠 ⁴⁰⁾
『보성군 향토사』 (1974)	‘이충무공의 난중일기를 보면 정유년 8월 17일에 보성에서 장흥 땅 白沙亭에(지금의 회천면 명교리 앞에 있었음) 이르러 말을 먹이고 군영구미에 이르니 일대가...’라고 하였다. ⁴¹⁾
『보성군 마을유래지』 (1990)	‘백사정이 회천군 명교리이며 마을 앞 해변에 있었다고 한다. 이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보면, 정유년 8월 17일에 보성(당시는 장흥 땅)에 이르러 말을 먹이고 군영구미에 이르니, 이곳 일대가 모두 무인지경이 되었으며 여기서 전열을 정비한 다음 왜적과 싸워 전승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 ⁴²⁾

36) 『庚午式年司馬榜目』-변시래(卞時來, 1668년~?)의 자(字) 내숙(來叔), 본관 초계(草溪), 거주지 낙안(樂安), 부(父)는 변유망(卞惟望), 형(兄)은 변시회(卞時會), 변시중(卞時中), 제(弟)는 변시최(卞時最)이다. [진사] 숙종(肅宗) 16년(1690) 경오(庚午) 식년시(式年試) [진사] 3등(三等) 21위(51/100)이다; 『乙酉增廣別試司馬榜目』-변시회(1657년~?)의 자(字)는 회숙(會叔), [생원] 숙종(肅宗) 31년(1705) 을유(乙酉) 증광시(增廣試) [생원] 3등(三等) 22위(52/100). 따라서 변시래, 변시회는 임진왜란 시기 활동한 인물이 아니다.

37) 『長興邑誌』(1747).

38) 『長興邑誌』(1910).

39) 『寶城郡誌』(1924), 朴南鉉 等編.

1910년대 이후 발간된 장흥과 보성 지역의 지리지에는 백사정을 정경달이 보성군 회천면 바닷가에 지은 정자 백사정으로 보았다. 이 유는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과 정경달의 관련성을 두었기에 때문이다. 이순신이 한산도 통제영에서 종사관으로 거느린 바 있던 정경달의 생활근거지가 이곳이었기 때문이다. 백사정으로 나아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이곳에서 약 10리 거리에 있는 전선이 출입할 수 있는 옛 軍港地인 군영구미(군학)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았다.⁴³⁾ 2013년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에서도 정자 백사정을 운운하고 있다.⁴⁴⁾ 즉 정경달이 바닷가에 지은 정자 백사정으로 단정하고 그곳으로 비정한 것이다. 그러나 『난중일기』에는 정자 백사정이 아니라 물가 백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정경달의 年譜와 『盤谷集』에 의하면 정경달은 임진왜란 이후 1599년에 장흥 회령 白沙에 靑嵐臺와 海隱堂을 지었다.⁴⁵⁾ 정자를 지은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이다. ‘1599년 3월 17일, 나귀를 타고 白沙亭에 이르러서 통발을 묶어두고 시를 읊조린 뒤에 돌아왔다. 온갖 꽃이 피고 숲이 무성하니, 한 잔 술에 거나하게 취했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정경달은 회령 백사정[청람대, 해은당]에 관한 시를 남겼다. 그의 문집에는 白沙亭歌가 수록되지 않았다. 다만 청람대와 해

40) 『寶城誌』(1966), 보성향교 발행.

41)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종교와 문화-제3절 會寧浦城과 龜尾營」, 『보성군 향토사』, 호남문화사, 1974; 이후 문영구는 백사정을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마을 535번지터의 정자 白沙亭이라 함. 명교마을 앞 백사장 북쪽 약 백 미터 언덕에 반곡 정경달이 세운 정자가 있었다는데 중년에 헐어지고 지금은 林295평 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함(문영구, 「全羅左水營 및 管下 五官·五浦의 史蹟」, 『여수논문집』제9~12권, (사)대한건설진흥회, 1978).

42) 보성문화원, 『보성군 마을 유래지』, 1990.

43) 문영구, 앞의 논문(1978), 63~64쪽.

44)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6쪽·77쪽.

45) 『盤谷年記』, 『盤山世稿』, 서울아세아문화사, 1987, 358쪽; 丁景達, 『盤谷集』권 1, 詩, 靑嵐臺謾興臺在會寧白沙. 自號靑嵐君士; 海隱堂序(余堂于白沙, 扁以海隱. 客曰, 何謂隱? 曰隱於海也. 曰何用隱爲? 曰居世不樂, 而入海有樂).

은당을 노래한 시가 있다. 정경달 사후에 변시래, 변시희 형제가 이곳을 방문하여 백사정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백사정이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해수욕장이라는 전거를 검토한 결과, 1966년에 발간된 『보성지』의 ‘白沙亭이 정유재란 시기 이순신의 수비처였다.’라는 기록은 보성군 향토사(1974), 문영구(1975)의 연구, 보성군 지명유래지(1990), 조선수군재건로를 고증한 기초조사 보고서(2013)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596년 윤8월 20일의 일정은 고흥 녹도진에서 전선으로 장흥 모처에 도착, 말을 타고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해결하였다. 반면, 1597년 8월 17일은 예양강 인근의 백사정에서 말을 쉬게 한 후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고, 다시 말을 타고 이동하여 군영구미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597년 8월 17일 보성읍성을 출발한 이순신 일행은 驛路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이다. 행로는 보성읍성-보성 가신역-장흥 벽사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행로는 현재의 국도 2호선의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보성군청에서 지방도로 광주~보성 도로를 타고 4km 정도 이동하면 보성군 원봉삼거리(옛 可申驛 인근으로 추정됨)가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국도 2호선을 타고 장흥 방향으로 18km를 이동하면 장흥읍 원도리 벽사역 터에 도착한다. 현재 벽사 일대의 흔적은 장흥읍의 觀德里와 元道里 일대이다. 이 일대에 벽사역 관아 및 馬房 옛터가 있다.⁴⁶⁾

일부 연구자가 주장한 보성군청에서 봇재를 넘어 회천면 울포해수욕장, 명교 해수욕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 약 20km로 측정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거리도 약 20km이다.⁴⁷⁾

46) 장흥문화원, 『장흥읍지-2편 마을사』, 2018, 관덕마을 연혁(837쪽), 원도리 1구 마을 연혁(1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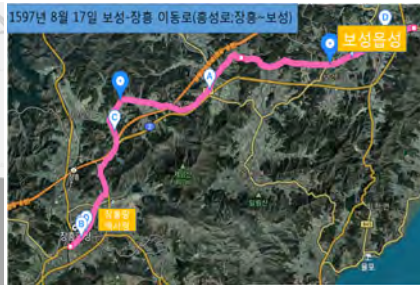
47)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보성군청에서 웅치면 곰재를 넘어 장흥 금산저수지를 경유하여 벽사역 터까지 도보한 결과 20km의 거리가 측정되었다. 이는 고지도상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이동경로를 정리하면, 보성군청에서 출발하여 장흥읍 원도교를 지나 관덕리·원도리 일대에 도착한 일정이다. 이를 현재의 지도에 표시하면 흥성로 구간에 해당된다.⁴⁸⁾

〈그림 5〉 기존 조선수군재건로 중
보성 구간(17km)⁴⁹⁾



〈그림 6〉 1597년 8월 17일 보성-장흥
이동로(20km)



3. 장흥 軍營仇未와 船所

다음은 군영구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1597년 8월 17일 장흥 땅 백사정, 예양강변을 거쳐 벽사역에서 점심을 먹은 조선 수군 일행은 軍營仇未에 이른다. 일기 번역자 및 연구자들이 비정한 군영구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은상은 강진군 고군면 병영으로 보았고, 조성도는 강진군 고조면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조면은 강진군에 존재하지 않은 面이다.

소로에 해당된 길이다. 대로에 해당된 길은 지방도로와 국도 2호선으로 차량으로 거리를 측정하였다.

48) 보성읍성에서 장흥 벽사역 관아 터까지 이르는 옛 길을 고증하는 일은 차후의 과제로 삼고자한다. 현재 흥성로(장흥과 보성을 잇는 길)를 따라 대략 표시해 둔다.

49)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133쪽.

‘군영’을 염두하여 강진군 병영으로 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용된 일기를 놓고 보면 첫째, 통제사 이순신이 타야 할 전선이 육군의 병영에 있는지의 여부이다. 둘째, 일기의 내용 상 백사정, 군영구미는 장흥에 소속된 곳이다. 장흥 땅 백사정에 도착하였다는 점, 군영구미에 도착하니 장흥 사람들이 군량을 옮겨간 것에 대한 기록, 다음날 8월 18일 장흥에 소재한 회령포진으로 이동한 기록을 놓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군영구미는 강진군 병영으로 볼 수 없으며 장흥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향토사학자들이 비정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면, 1974년 『보성군 향토사』에 수록된 군학마을의 口傳되는 龜尾營 이야기를 토대로 군영구미를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로 비정하였다. 게다가 이곳에서 배설의 전선을 인수한 회령포진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1990년대 박혜일은 군영구미를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로 보았다. 그 근거로 仇未와 九修의 音價가 통한다고 보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여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급한 지리지와 고지도에는 그 직접적 근거로 삼을만한 내용이 없다.⁵⁰⁾ 전술하였듯이 장흥 사람들이 군량미를 옮겨간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을 전제하면 강진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013년의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에 수록된 군영구미는 다음과 같다.⁵¹⁾

50) 박형상, 앞의 논문(2007), 293쪽.

51) 박창규 외, 앞의 보고서(2013), 57쪽~58쪽.

- 옛 지명은 회리포로 불렸음. 마하수 장군이 군선을 가지고 와 군수 물자를 이동한 곳임
- 1457년 이곳에 수군만호진이 개설됨으로써 군영구미라 불려오다 1554년 호남진지 회령포진지에 의하면 회령면 회리포라 부른 기록이 있음(호남진지2, 회령포진지)
- 군영구미 옛터에는 김명립 비와 성지가 남아 있음
- 군학마을은 경주김씨 이전에도 여러 성씨가 살았다는 설이 있으나 사적은 없고 경주김씨 낙향 선조이신 김명립이 1558년 경기도 광주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음
- 군영구미는 회천면 군학마을로 회천면 전일 2리이다(이충무공전서 10권 행장)
- 임란시기 구미영성이라 칭함. 이충무공은 군학에서 배에 올라 회령포(장흥 회진)로 향하였음
- 고려시대 태조 23년 영현인 대로현이 회령현으로 바뀌었음. 인종 2년에 영현인 회령현이 영암군 소속에서 부로 승격되어 독립된 장흥 부로 소속을 옮김
-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보성군에 이속됨. 1931년 조선총독 부령 제100조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1932년 3월 장흥군 회령면과 천포면을 합하여 회천면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음

위의 군영구미에 대한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문헌 『이충무공전서』와 『회령포진지』, 김명립의 비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관련 문헌과 김명립의 비문에는 군영구미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우선 -仇未에 대해 풀어나가겠다. 이순신의 일기 등에는 軍營仇未, 梨木龜尾, 元頭龜尾, 花樽龜尾 등 여러 -구미 지명 나온다.⁵²⁾ 먼저 -구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가 있다. 박형상은 다음과 같이

52) 『亂中日記』 壬辰年, 2월 19일; 乙未年 7월 23일; 壬辰年 9월 1일.

주장하였다.⁵³⁾ -구미에 대해서는 국어학계의 지명연구서에도 체계적인 설명이 없고, 『표준국어대사전』 등 남한의 국어사전에도 없다. -구미에 관한 지명 연구자의 주된 견해는 『난중일기』에 나타나는 여러 구미들의 행간적 문맥, 장소적 맥락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이 순신은 -구미에 이르러 말에서 배로 갈아타거나, -구미를 통하여 선박 이동을 하였다. 박형상도 이러한 사례를 장흥 땅에서 찾았다. 장흥 회진의 ‘삭금 포구’ 역시 ‘삭그미-삭금이-삭금’으로 변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군영구미 유래를 ‘장흥 안양 海倉 앞바다의 似龜[자라섬]’명칭에 착안하여 龜尾로 비정한다고 하였다.⁵⁴⁾

정현창은 다음처럼 주장하였다. 구미=仇未=기미=진(津)의 관계와 상통한다. 구미와 기미는 동일 語辭의 異形 관계이거나 유추에 의한 혼용이다. ‘개’와 같은 의미인 浦, 津, 金, 串과 모두 상응한다. 즉, 浦=개=구미=곶(串)=갑(甲)등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군영구미는 군영포다. 그리고 이곳에는 조선시대 翰船인 揮擻船을 만들었던 조선소의 자리도 전하고 있다. 이곳의 선소는 현 보성군 전일리 군학마을 선착장이었을 것이며, 이곳은 수심이 깊어 良港으로 이름난 곳이다. 군영구미 동쪽 언덕 아래 해안 쪽으로 새우양식장을 만들려다가 중단한 석둔이 있는 곳 부근은 옛 휘리기미 마을과 그 아래 조선소가 있던 자리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⁵⁵⁾

53) 박형상은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장승옥은 ‘구미’를 ‘바닷가나 강가에서 물이 땅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곳, 灣으로 보았다. 허재영은 ‘구미’는 ‘곶의 異형태’라고 하면서 ‘곶’이 ‘뺨어 나온 지형’도 되지만, ‘움푹 파인 곳, 구무, 굴’도 된다고 보았다. 천세영은 ‘鳩尾’에서 단서를 찾아 ‘명치, 인체의 굽소’를 뜻하는 ‘지리상 요처’로 보았다. 그리고 『조선말 큰 사전』에는 ‘구미’는 바닷가나 강가의 곶이 길게 뻗고 후미지게 휘어진 곳, ‘곶’은 바다로 뺨어 나온 모양을 한 곳이라 지칭하였다. 김형주는 ‘金, 九昧는 바닷가 지형이 ㄱ처럼 오목하게 들어간 지형으로, 곶이 또는 구지 지형의 반대 형이다.’고 말하였다.

54) 박형상, 앞의 논문(2007), 243쪽.

55)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43~251쪽.

필자 또한 그동안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군학마을에서 전래되고 있는 城머리, 사장터, 불무골, 鎭밖골 등 지명이 남아 있어 현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곳을 군영 터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현재 군학마을의 옛 지명이 휘리구미라 전해지고 있어서 군영구미를 보성군 회천면 군학마을로 추정하였다.⁵⁶⁾ 결국 회령포진의 옛터를 군영구미로 이해한 것이다. 그러나 회령포진의 옛터는 옛터일 뿐이다.

따라서 ‘-구미의 어미의 뜻으로 보아 이순신은 -구미에 이르러 말에서 배로 갈아타거나, -구미를 통하여 선박 이동을 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다음은 軍營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1597년 8월 17일의 일기를 통해 ① 장흥 땅 군영구미는 전선이 닿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포구, 선소, 나루터 뜻을 포함한 구미여야 한다. ② 군량과 그 군량을 관리하는 군량 감색이 있어야 한다. 즉 軍倉과 官吏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통제사 및 조선 수군 일행이 머물러 잘 官廳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곳이 군영이다. 당시 장흥부의 軍事와 관련된 營을 살펴보면, 수군진 회령포진과 장흥부 船所⁵⁷⁾ 뿐이다. 모두 수군과 관련된 영이다. 육군과 관련된 시설은 당시에 장흥에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의 일기를 보자.

- 1596년 윤8월 19일 녹도로 가는 길에 도양의 둔전을 살펴보았다.

56) 이수경, 앞의 논문(2016), 207쪽.

57) 선소는 시기와 기능에 따라 船倉(倉, 滄, 廠), 待變亭, 御變亭, 戰船所 등으로 별칭되었으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군선의 건조·수리, 정박처, 그리고 수군 보급품의 보관·지급하는 공간이었다. 아울러 조운선·상선의 정박·점검·수리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바닷길의 무사함을 비는 祭儀의 공간이자 포구로서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다. 이러한 선소는 조선시대 수군력, 수군활동, 수군사, 해양문화 등 연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송은일, 앞의 논문(2017), 317쪽).

체찰사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다. 녹도에 도착하여 잤다.⁵⁸⁾

- 1596년 윤8월 20일 일찍 출발하여 배를 타고 체찰사와 부찰사와 함께 종일 앉아 군사 일을 이야기했다. 늦게 白沙汀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뒤에 그 길로 장흥부에 이르렀다. 나는 관청의 동헌에서 잤는데, 김응남이 와서 만났다.⁵⁹⁾

위의 일기는 1596년 홍양 녹도진에서 전선을 타고 장흥부로 들어오는 장면이다. 일기의 내용대로라면 전선의 정박처를 백사정으로 오인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백사정은 벽사역 인근 예양강의 강변이다. 전선의 정박처가 아니다. 일기에는 장흥부 선소[군영구미]가 생략된 것이다. 녹도진에서 출발한 전선은 장흥부 선소에 도착하고, 이들은 하선하여 벽사역까지 말을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벽사역 서쪽으로 5리에 있는 장흥부 읍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만약 백사정이 전선의 정박처라면 굳이 군영구미까지 이동하여 배설이 보낼 전선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수군진 회령포진에 전선을 정박한 후 이동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장흥부의 선소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의 1592년 홍양[고흥]에 방문한 이순신의 일기이다.

- 1592년 2월 22일 아침에 공무를 본 후 녹도로 가는데 황속도도 같이 갔다. 먼저 홍양 戰船所에 이르러 배와 기구를 직접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갔다. ...⁶¹⁾

58)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19일.

59) 『亂中日記』 丙申年 윤8월 20일.

60)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전라도 장흥도호부 역원조; 벽사역은 부의 동쪽 5리에 있다.

61) 『亂中日記』 壬辰年 2월 22일.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전라좌수영 구역을 돌며 순찰하는 일정 중 홍양현에 도착하여 전선과 기구를 점검하는 날의 기록이다. 홍양 전선소[선소]에는 전선과 기구가 있으므로, 이곳은 전라좌수사의 순찰 대상지였다. 이곳은 바로 홍양 현감이 관리하는 홍양현 소속[읍 수군]의 전선이 정박해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홍양현에는 4곳의 수군진인 녹도진, 발포진, 여도진, 사도진이 있었다. 이곳에는 각각의 전선이 있었으며, 사도첨사를 비롯하여 각각의 만호가 이 전선을 관리하였고, 모두 전라좌수영 관할로 좌수사의 통제를 받는 곳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작성한 『임진장초』를 통해 순천부사, 보성군수, 낙안군수, 홍양현감, 광양현감이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좌도 연해안 5개 고을[5官]이 전라좌수사 관할에 소속이 되어 유사시 해전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의 수군진과는 별도로 평소 읍성 가까운 포구에 전선을 마련하여 무기를 갖추고, 격군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軍營이라 할 수 있다. 순천부사 이하 고을 수령이 주관하는 전선을 정박해 놓은 곳이 선소이다.

이는 장흥부에도 적용되었다. 전라우수영에 소속된 장흥 부사도 유사시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평소에 전선을 장흥부 선소에 정박시켜 두고 전선 및 군기를 단속하여야 했다. 장흥부 선소는 장흥부의 전선 정박처이며, 이곳에는 군량 창고 및 군기고와 이를 관리하는 군량 감관 및 색리[監色], 그들의 집무 공간인 관청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이 군영이다.

사실 15세기 전반부터 왜구를 막기 위해 연해 지역 방어 체계를 정비하였다. 해상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를 추격하기 위해 대규모의 수군이 편성되었다.⁶²⁾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세기 후반부터는, 육

62) 임용한, 「조선 건국기 수군개혁과 해상방어체제」, 『軍史』 제72호,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2009, 70~77쪽.

군이 단순히 수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연해 군현이 직접 해상 작전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1474년(성종 5) 홍양현 일대를 침범한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홍양 현감이 선박에 군사를 태워 왜적을 추격하였다.⁶³⁾

16세기 중반 조선은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해안지역의 방어 및 수군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왜선이 점차 대형화에 대응하여 전선인 판옥선을 건조하였고 이를 전국에 배치하기에 이르렀다.⁶⁴⁾ 충청도의 경우에는 1557년(명종 12) 태안 일대의 왜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⁶⁵⁾ 경기도의 경우에는 1559년(명종 14) 京江 전선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군현에 전선이 배치된 것이 확인된다.⁶⁶⁾ 경상도의 경우에는 1559년 경상관찰사의 節制에서,⁶⁷⁾ 전라도의 경우에는 같은 해 군산 일대의 왜선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군현에 전선이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⁸⁾ 따라서 연해 군현의 전선은 을묘왜변 직후 전국적으로 해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三南 같은 주요 연해 지역에는 적어도 1559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전선의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⁶⁹⁾

16세기 중엽, 진관체제가 제승방략체제로 바뀌면서 전라좌수영은 관할 수군진 뿐만 아니라 연해 지역 각 읍에 수군기지를 설치하여 수군 훈련과 군선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수군진 이외에 순천부, 보성군, 낙안군, 광양현, 홍양현, 장흥부까지 관할 지역이 확대되었다. 일례로 1587년(선조 20) 전라좌수사 李薦이 관할 지역의 왜구 수색을 위해 휘하 수군진은 물론이고 순천·낙안·

63) 『成宗實錄』 권46, 5년 8월 丁酉 ; 권56, 6년 6월 壬寅.

64) 노성호, 「明宗代 水軍 強化政策 研究」,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23~ 27쪽.

65) 『明宗實錄』 권23, 12년 6월 壬寅.

66) 『明宗實錄』 권25, 14년 5월 己卯, 戊戌.

67) 한성일, 앞의 논문(2018), 243쪽.

68) 『明宗實錄』 권25, 14년 6월 丙午.

69) 한성일, 앞의 논문(2018), 243쪽.

보성·홍양 등 연해 읍까지 소집 명령을 내렸던 것은 그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⁷⁰⁾ 이에 따라 각 읍에 읍 수군이 창설되었고 읍 수군이 주둔할 수 있으면서도 전선을 건조하고 계류시킬 수 있는 장소로 선소가 들어섰다. 여하튼 장흥도호부의 경우 회령포진과 장흥읍 수군의 선소 두 곳이 장흥 땅 군영에 해당되며 이곳이 당시 수군 기지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연해 군현은 읍 수군의 전선 정박처를 갖추고 있었으며, 장흥부도 읍 수군의 기지가 있었고, 그곳이 군영구미, 장흥부 선소이다. 장흥부는 大邑으로 선소 또한 군[中邑], 현[小邑]의 규모와 달랐을 것이다.⁷¹⁾

필자는 장흥부 선소를 고증하기 위하여 이순신의 『난중일기』가 작성되던 시점을 전후한 시기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한다. 그러나 자료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확보한 조선 후기의 자료를 근거로 추적해보겠다. 선소와 함께 군량창고나 군기고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군영으로 보겠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 마을에 1646년(인조 24) 전함과 軍備를 갖춘 待變廳이 설치되었고, 1649년(효종 즉위년) 김해 부사 박경지가 여기에 주둔한 수군들의 군기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해창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⁷²⁾

70) 『宣祖實錄』 권21, 20년 6월 己未; 전라좌수사 李薦은 소집명령 시간을 어겼다는 이유로 순천부사 성응길과 보성·낙안·홍양·광양 등의 수령들에게 매를 때렸는데, 보성군수가 사망했다. 이는 보성 등지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임을 입증한다(송은일, 앞의 논문(2017), 320쪽).

71) 田土의 규모에 따라 부 이상은 대읍, 군은 중읍, 현은 소읍에 해당한다.

7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해창; 해창은 조선 후기까지 고을의 조세 현물을 수납하여 보관하였던 창고이다. 그러나 이곳은 서낙동강 물줄기가 서남쪽으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었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전선이 배치되고 지자총(地子銃)·장군전(將軍箭) 등도 구비되어 있는 수진(水陣)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수물자도 함께 보관하였다.

〈그림 7〉 비변사인방안지도 장흥부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그림 8〉 해동지도 장흥부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大4709-41

〈그림 9〉 광여도 장흥부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90-58.

〈그림 10〉 1872년 장흥부지도



* 출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439.

장흥부를 그린 「해동지도」와 「광여도」에는 선소와 해창이 별도로 각각 표기된 반면, 「비변사인방안지도」와 「1872년 장흥부지도」에는 해창만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도상에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설물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1872년 장흥부지도」의 회령포진에는 수군진의 성곽시설이 그려졌으나 선소는 그려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1872년 장흥부회령포진지도」에는 전선소와 전선, 병선, 사후선이 각각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 후기 장흥부의 고지도에 해창만 표기되어

있고 선소는 표기되지 않아서 선소가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조선 후기의 장흥읍지류에 수록된 선소와 창고조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

『장흥읍지』(1747) 따르면 ‘장흥도호부 선소는 府 치소 동쪽으로 30리 떨어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⁷³⁾ 「1872년 장흥부지도」에는 海倉 건물이 부 치소에서 30리로 표기되어 있고, 바로 앞 우측으로 군기고와 석돈, 전선, 병선, 사후선이 각각 1척씩 표현되어 있어⁷⁴⁾ 조선 후기 장흥부 선소는 해창과 동일한 장소, 또는 인근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선소와 해창의 기능이 같다는 것은 아니다. 장흥도호부 선소는 포구 안쪽에 있는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일원이다. 각종 지리지와 고지도에서 장흥부 선소의 위치를 살펴보겠다.

『장흥읍지』 안양방 창고조에는 附船所가⁷⁵⁾ 기록되어 있다. ‘선소에는 대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1척 등이 있으며 좌수영에 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816년의 『장흥부읍지』 창고조에는 ‘司倉, 賑恤庫, 大同庫, 軍器庫, 海倉, 南倉, 船倉’이 기록되어 있다. ‘해창은 장흥부에서 동 30리 안양면에 있으며, 선창은 해창에 있으며 장흥부에서 동 30리 거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다면 을묘왜변 후 마련된 읍 수군의 전선 정박처인 선소의 선창은 조선 후기의 해창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장흥부의 선소는 군영구미이며 전선, 군기고, 창고가 있으므로 군영에 해당된다.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선소와 해창이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선소가 해창과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은 이곳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555년 을묘왜변 이후 장흥부 읍 수군의 군영이 조선 후기에는 해창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73) 『장흥읍지』(奎12175).

74) 『장흥부지도』(奎10439).

75) 附船所는 선소에 붙어있다고 이해된다.

사례로 여겨진다.⁷⁶⁾

읍지류의 기록에는 ‘선창[해창]은 장흥부에서 동 30리 안양면에 있다’고 하였고, 현재는 안양면 해창리 포구가 전선소로, 해창 창고 터는 해창리 156-5, 6, 7, 8, 9번지와 158-1번지로 전하고 있다.⁷⁷⁾ 연구자의 견해로는 장흥 회령포진의 포구보다 장흥부 선소가 있는 포구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1918년 장흥 지형도의
안양면 해창리⁷⁸⁾



〈그림 12〉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선소 추정지



76) 정현창, 앞의 논문(2017), 262~293쪽: 정현창은 관(읍)선소의 설치 시기와 위치를 검토하였다. 순천부 선소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라좌수영 관하 순천도호부의 수군기지로 이용되었으며, 홍양 전선소는 18세기까지 축두리에 선소가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낙안군 선소, 보성군 선소, 광양현 선소의 설치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장흥부 선소는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대에 위치하며 1703년 이전에 장흥부 선소가 안양면 해창리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러나 을묘왜변 후 실시되었던 제송방략제를 감안하면 관선소의 설치에는 더 이른 시기로 봐야할 것이다.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1차해전인 옥포해전의 장계를 보더라도 보성, 낙안, 홍양 등의 전선이 출전하여 전라좌수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필자는 임진왜란 시기 이 지역의 전선 정박처 및 군량, 무기 등을 갖추어 놓은 곳이 득량면 비봉리 선소마을, 벌교읍 선소마을, 고읍면 축두포 선소마을로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순천, 보성, 낙안, 광양현은 수군진이 설치된 지역이 아님에도 선소가 운영되었다.

77) 장흥군향토사연구회 제공.

78) 조선조 중엽에 세곡을 수집하여 선박으로 수송한 장흥군의 대항구로 장흥의 三倉(社倉[장평], 南倉[관산]중의 하나였다. 1910년 이곳에 처음 경찰 주재소가 설치되

〈그림 13〉 현재의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



〈그림 14〉장흥부사 비석군



그렇다고 조선 후기의 해창이 읍 수군의 기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조선 후기 전라도 일부 군·현 고지도에서 해창과 선소가 별도로 그려진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있으며, 1914년에는 현병파견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1914년 안상면과 안하면이 통합이 되어 면사무소가 존치되었다. 1938년에는 해창 간척공사가 완공되어 농경지가 늘어났다. 1928년경 건너편 용산면 두암리와 나룻배가 왕래하였으며, 1940년 해창의 하루 물동량이 약 100톤이 반·출입되었다 하며, 1965년 홍업에서 2차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공사를 하였다. 정묘지(1747년간)에는 해창에 김씨가 살았다고 적혀 있으며, 경술지(1910년간)에는 김해김씨와 밀양박씨가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있다(장흥문화원, 『해창리 마을의 연혁』, 『안양면지』, 1997, 612쪽).

〈그림 15〉 전라좌수영 관할 4관의 선소

순천부 선소(여수시 시전동)⁷⁹⁾



보성군 선소(득량면 선소마을)⁸⁰⁾



낙안군 선소(별교 선수마을)⁸¹⁾



광양현 선소(진원면 선소마을)⁸²⁾



- 79) 1872년 순천부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동으로 20리 거리)과 선소(읍에서 남으로 50리 거리), 선소창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다. 선소에는 전선이 그려진 반면,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0) 1872년 보성군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30리 거리)과 선소(읍에서 5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에는 전선과 관아 건물이 그려져 있으며,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1) 1872년 낙안군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20리 거리), 선소(읍에서 3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에는 전선과 水軍器庫가 그려져 있으며,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 82) 1872년 광양현 고지도에는 해창(읍에서 10리 거리)과 선소진(읍에서 50리 거리)로 위치가 다르다. 선소진에는 전선이 그려진 반면, 해창에는 창고만 그려져 있다.

전라좌수영 관할 5관 중 순천부의 선소는 현재 여수시 시전동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 여수선소유적이다.⁸³⁾ 여수는 1897년 읍지 지역에 여수군이 신설되어 순천도호부에서 분리, 독립되었다. 1897년 이전까지 이곳은 순천부의 선소였다. 장흥부의 선소를 순천부의 선소와 비교하면 비슷한 입지환경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임진왜란 시기 장흥부는 전라우수영에 속하였다. 전라좌수영의 읍 수군인 순천부, 보성군, 낙안군, 광양현의 1872년 고지도를 살펴본 결과, 이곳은 부·군·현 읍 수군 선소와 별도로 해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위치는 서로 가까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였다. 해창에는 창고만 있으며, 부·군·현 읍 수군 선소에는 관아건물, 선창, 군기고, 전선이 그려져 있으므로 군영의 역할을 읍 수군 선소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미와 군영을 분석하면서 군영구미의 위치를 고증하여 보았다.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장흥땅 백사정과 군영구미를 길로 표시하면 현재 장흥군 장흥읍 관덕리·월도리에 흐르는 예양강변 둔치와 안양면 해창리 해창마을이다. 간척되기 이전의 1918년도 지형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83) 이 선소는 1555년 이후 조성되어 1895년까지 순천도호부의 선소로 운영되었을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92호의 명칭이 합당해 보이지 않는다. 여수군명은 1897년에 신설되었다. ‘순천도호부 선소유적’이 적합한 사적 명칭으로 사료된다.

〈그림 16〉 장흥 백사정-군영구미 이동로
(1918년 장흥 지형도)⁸⁴⁾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장흥 땅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를 검토하였다. 일기 번역자, 연구자마다 백사정과 군영구미의 위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조선수군재건로를 조성하기 위해 고증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비교·분석이 미약하였다.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장흥 땅 백사정을 보성군 회천면 명교해수 욕장으로 추정하였다. 조선 후기 장흥의 지리지의 정경달의 정자 백사정에 관한 기록을 확대 해석하였다. 1966년 『보성지』에 백사정이 정유재란 이충무공수군수비처로 기록되면서 이후 보성에서 발간된 향토사, 마을유래지, 조선수군재건로를 고증한 기초조사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을 검토하였다.

84) 1918년 지형도에는 벽사도에서 안양면 해창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나타난 ‘점심’의 용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점심을 먹는 곳이나 지어 먹는 곳, 말에게 여물을 먹이는 장소가 주로 驛, 院, 汀이었다. 보성읍성을 출발한 이순신 일행은 驛路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백사정은 장흥부 벽사역에 도착하기 전의 예양강 강변 둔치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벽사역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작성한 『임진장초』를 통해 순천부사, 보성군수, 낙안군수, 홍양현감, 광양현감이 전선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라 좌도 연해안 5개 고을 수령은 전라좌수사에게 소속되어 유사시 해전에 참전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의 수군진과 별도로 읍성 가까운 포구에 전선을 정박하고 무기를 갖추었으며 격군을 운영하고 있어, 그곳은 군영이었다. 장흥부의 선소는 전선, 군기고, 창고가 있으므로 군영에 해당된다. 장흥부 고지도에서는 선소와 해창이 나란히 표현되어 있다. 선소가 해창과 같은 곳에 위치한 것은 이곳의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장흥군 안양면 해창마을을 군영구미로 추정하였다.

(원고투고일 : 2020. 6. 14, 심사수정일 : 2020. 8. 13,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이순신, 난중일기, 조선수군재건로, 백사정, 군영구미, 예양강, 벽사역, 장흥 선소, 장흥 해창

〈참고문헌〉

1. 사료(발간연도순)

『朝鮮王朝實錄』, 『長興邑誌』(1747), 『戶口總數』, 『湖南邑誌』, 『湖南驛誌』, 『長興邑誌』(1910), 『寶城誌』(1924), 『寶城郡誌』(1966)

2. 단행본

이은상, 『(國譯注解)李忠武公全書』(1960), 충무공사업회
보성군향토사편찬위원회, 『보성군 향토사』(1974), 호남문화사
조성도,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1989), 명문당
보성군, 『보성군 마을 유래지』(1990), 보성문화원
장흥문화원, 『안양면지』(1997)
박혜일 외, 『(번역)이순신의 일기』(1998), 서울대학교출판부
송찬섭, 『난중일기』(2004), 서해문집
노승석, 『이순신의 난중일기』(2005·2016), 동아일보사,
<http://uci.or.kr/G901:A-0006109426@N2M>
박종평, 『난중일기』(2018), 글항아리
장흥문화원, 『장흥읍지-2편 마을사』(2018)

3. 논문

문영구, 「全羅左水營 및 管下 五官·五浦의 史蹟」, 『여수수전대논문집』 제9~12권(1978), (사)대한건설진흥회
박형상, 「이충무공과 전라도 장흥의 관계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제 9호(200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노기욱 외, 「이순신의 ‘상유십이’ 수군보존 현장 보성군 고찰」, 『이순신 연구논총』 제22호(2014),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이수경, 「정유재란시기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보성군」,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해양』 제3호(2016),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정현창, 「조선후기 전라도지역 船所址와 활용방안 연구」(2017),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 관할지역의 船所연구」, 『軍史』 제105호 (2017), 국방부군사편찬위원회

<http://dx.doi.org/10.29212/mh.2017..10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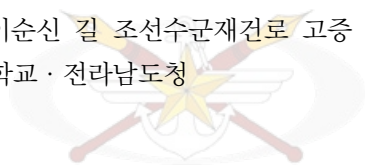
한성일, 「16세기 중·후반 연해 군현의 戰船 배치와 운용」, 『지역과 역사』 제42호(2018), 부경역사연구소

<http://dx.doi.org/10.19120/cy.2018.4.42.229>

이수경, 「임진왜란 시기의 통제영 운영과 유적 활용방안 연구」(2020),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보고서

박창규 외,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재건로 고증 및 기초조사』(2013), 전남도립대학교 · 전라남도청



(Abstract)

Reviewing the location of Baeksajeong and Gunyeonggumi
of Najungilki's
(Admiral Yi sun-sin's diary during the war)

Lee, Su-kyong

When we choose the most notable figure and events in our history,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so called Imjinwaeran and the admiral Yi Sun-sin could be shown at the top of the list. So Geographical clarifications and locating the exact point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figure and events are generating a lot of interest, leading to and accumulating various studies. However, many of these studies lack clear and exact historical evidence or on-site inspections. Geographical criticism sometimes suggests various opinions about one place for each translator's perspective of 『Najungilki』, researcher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researcher of local history.

This study is also intended to try accurate historical evidence of the pla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tudy the location of 'Baeksajeong(白沙汀)' and Gunyeonggumi(軍營仇末)'recorded in Yi Sun-sin's 『Najungilki』. This is an important point related to Yi Sun-sin's activitie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naval forces right after the Battle of Chilcheon-ryang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broken out in 1597 after Imjinwaeran in 1592. First of all, we compared and reviewed the contrasting views on the location of the Baeksajeong and Gunyeonggumi in Jangheung Land as Boseong and the views of Jangheung as Jangheung. Next, my opinion was presented through the study of ancient literature and field trips. This work is believed to help the historical sites and historical site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In addition, I hope that it will help establish a proper local histor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ese historical research and

on-site investigation will be reflected in the local government's historica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Keywords : Yi sun-sin, Najungilk, Joseon Navy jaegeonlo, Reconstruction, Baeksajeong, Gunyeonggumi, Yeyang River, Wall Ministry, Jangheung Seonso, Jangheung Haecha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37-171
<https://doi.org/10.29212/mh.2020..116.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김명진*



1. 머리말
2. 928년 삼년산성전투 배경
 - 가. 역사·지리적 배경
 - 나. 전투 전조(前兆)
3. 삼년산성전투 전개과정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태조 왕건(高麗 太祖 王建)이 친정(親征)함에 실패한 전투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중 하나가 928년 삼년산성전투(三年山城戰鬪)였다.¹⁾ 그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왕건이 수행한 전투는 때론 승리, 때론 무승부, 때론 패배로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삼년산성전투는 특별한 면이 있었다. 918년 6월에 왕건은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²⁾ 왕건의 고려는 즉위 초에 모반이 잇따랐지만 이를 초기에 수습한 후에 국세(國勢)가 상승하였다.³⁾

고려는 적어도 927년 즈음까지 국세 상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왕건은 927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던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동수전투(현 대구 팔공산)에서 대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전멸하고, 국왕 왕건은 겨우 살아남았다. 특히 고려의 명장이자 왕건의 충복인 신승겸이 이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하였다.⁴⁾ 이러한 공산동수전투 직후에 왕건이 직접 수행한 전투가 삼년산성전투였다.

왕건이 친정하여 대패한 공산동수전투는 통일전쟁기에 그 자신에게 최대 패배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그 전투 직후에 또다시 그가 직접 수행한 전투가 삼년산성전투였다. 그렇다면 두 전투가 무언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삼년산성전투는 아직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소략한 사료 때문이라 여겨진다. 고려 통일전쟁기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삼년산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성과가 있었다.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추7월 병진.

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 6월 병진.

3) 왕건의 즉위 직후 모반에 대한 이해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7~11쪽 참고.

4)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참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⁵⁾을 비롯하여 성곽 자체에 대한 검토⁶⁾ 등이 축적되었다. 그런가하면 문헌사적인 입장에서 7세기 신라·당연합군과 백제의 황산벌전투 시 삼년산성을 신라군 출발지로 본 견해가 있었다.⁷⁾ 이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삼년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한 견해라 하겠다. 928년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었지만, 전후 및 주변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성과는 있었다.

삼년산성전투 배경의 한 이유가 됐을 공산동수전투는 일찍부터 연구 성과가 쌓이었다.⁸⁾ 또한 앞선 연구는 삼년산성과 인접한 매곡성(매곡산성, 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과 일모산성(一牟山城, 연산진, 양성산성, 문의현,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통일전쟁기 동향 및 전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다.⁹⁾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제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실상은 밝혀질 때가 왔다고 판단된다. 삼년산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배경과 전투 전조(前兆)는 우선 검토 대상이다. 그 다음 이 전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전투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
- 5) 『三年山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 한국성곽학회, 『삼년산성』, 충청북도, 2008.
- 6)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 차용걸, 「삼년산성 곡성형식의 비교연구」 『인문학지』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 7)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軍史』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8) 민병하, 「申崇謙과 公山桐蔭 戰鬪」 『軍史』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향토문화』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公山戰鬪의 배경과 전개과정」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검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 9)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호서문화연구』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 928년 삼년산성전투 배경

가. 역사·지리적 배경

삼년산성(三年山城, 오정산성烏頂山城)은 현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¹⁰⁾ 이 성이 자리한 보은군은 대체로 북서쪽 청주시, 북쪽 괴산군, 동쪽 상주시, 남쪽 옥천군에 접한 곳이다. 이 성은 현 보은군청에서 동쪽으로 지도상 직선거리 약 1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고대부터 존재한 성곽들은 그 이름 및 위치가 불분명한 곳이 많은데 이 성은 이견 없이 명확하다. 삼년산성은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1,058m)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12.7km에 있는 나지막한 산자락에 위치한다.

삼년산성의 성 둘레는 1,680m이고, 높이는 10~20m이고, 폭은 5~7m이다. 이 성은 돌로 쌓은 포곡식산성이며 출입 통로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있다.¹¹⁾ 성의 서편에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청천 주변이 농경지이다. 이 성은 성 안에 약간의 농토가 있었고, 성 밖에도 나뭇 기름진 농토가 있으므로 자족 기능을 갖춘 성이라 하겠다. 성 안에 우물은 다섯 개 혹은 여섯 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¹²⁾ 성 안의 지형상 서문쪽으

10) 이 성곽의 정식 문화재 명칭은 ‘보은 삼년산성(報恩 三年山城, 사적 제235호)’이다. 도로명 주소: 보은읍 성주1길 104. 한편, 이 성의 명칭을 오항산석성(烏頂山石城)이라고 한 기록도 있다(『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보은현).

11) 삼년산성의 개황에 대해서는,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137~139쪽 참고.

12) 조선 초에 삼년산성은 둘레가 1천 2백 20보이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여섯 개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보은현). 이 성은 둘레가 3천 6백 99척이고, 높이는 18척이고, 우물은 다섯 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보은현, 고적 오정산성).

로 물을 모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보아 식수는 충분한 곳이라 하겠다.

특히 이 성은 그 갖춘 형상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격해 오는 적을 추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함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삼년산성은 470년에 축성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 (신라 자비마립간 13년)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쌓았다[삼년이라 함은 처음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일을 마쳤기에 이렇게 이름하였다].¹³⁾

위는 명확히 완공 시점을 밝히고 있다. 신라 자비마립간(자비왕) 13년, 즉 470년에 삼년산성이 완성되었다. 이 성(城)을 축성함에 3년이 소요되었기에 성의 이름을 삼년(三年)이라 하였으며, 그 자리한 위치가 산이었기에 산성(山城)이라 하였다. 성을 지은 햇수가 그 이름으로 명명된 특이한 사례였다. 그만큼 신라가 이 성을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았던 것이다. 470년에 완공되었는데 정확한 달은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축성 시작 연도는 언제일까 궁금하다.

삼년이라는 숫자로 인하여 467년이 축성 시작 연도일 것 같지만, 전통 햇수 세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삼년산성의 축성 시작 연도는 468년(자비마립간 11)이라 하겠다. 자비마립간은 재위 동안에 몇 차례 축성 및 성 수리를 하였다(6년(463) 봄 2월에 변경 2개 성 축성, 11년 가을 9월 이하(泥河, 이천泥川)에서 축성, 14년 봄 2월에 모로성 축성, 16년 가을 7월에 명활성(현 경북 경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3년, “築三年山城(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주) 수리, 17년에 일모(일모산성)·사시·광석·답달·구례·좌라 등에서 축성].¹⁴⁾

자비마립간기 축성 및 성 수리를 통해서 다음 사안이 정리된다. 명활성은 수도 금성(경주)에 있는 성이므로 시기에 상관없이 수리를 해야만 했다. 17년에 축성한 일모산성(현 양성산성,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은 그 정확한 달이 알려져 있지 않다.¹⁵⁾ 그렇다면 삼년산성의 제대로 된 축성은 대체로 가을 9월부터 봄 2월 사이에 했다고 이해된다. 특히 11년(468) 축성 내용은 좀 더 자세하다. “11년 가을 9월에 하슬라(현 강원 강릉)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되는 이들을 징발하여 이하(泥河, 이천泥川)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¹⁶⁾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축성 상황이 추정된다.

아마도 자비마립간은 468년부터 대체로 추수기가 끝난 가을 9월 이후부터 봄 2월 사이에 축성 작업을 지시했을 것이다. 추수기 이후에 민(民)을 동원해야 불만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한 축성 시기는 추수기 이후인 468년 가을 9월부터 다음 해 봄 2월, 469년 가을 9월부터 다음 해 봄 2월, 470년 가을 9월부터 세밀 이전까지로 추정된다. 이렇게 삼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터이다. 즉 468년 가을 9월부터 시작하여 470년 세밀 이전에 끝마쳤는데 중간 중간의 농번기는 제외되었으리라 여겨진다.¹⁷⁾

다음은 축성 작업에 동원된 민이 어느 군현 관할인지 생각해 보자. 이하(泥河) 축성 시 동원된 민이 남녀 구분 없이 15세 이상이라

1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5) 『삼국사기』 자비마립간조에 나와 있는 일모산성 축성 시기는 474년이 아닌 475년 일 가능성이 높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4~65쪽).

1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1년 추9월.

17) 신라 국왕들 모두가 농한기에 축성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자비마립간은 농한기에 축성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번기에는 축성 작업이 현상유지 정도만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축성 작업은 주로 성인 남자들이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15세 이상이라 했으므로 여자가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에 동원된 민은 축성지인 현 보은군은 물론이고, 인접한 현 경북 상주시와 구미시 일대에 거주하던 이들이 아닐까 한다. 현 상주시와 구미시 일대 민까지 대상 민으로 설정한 이유는 뒤에 기술하지만 일선군(현 경북 구미) 민이 삼년산성 개축 작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현 보은군·상주시·구미시는 서에서 동으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삼년산성은 그 쓰임새가 고구려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특히 백제와의 접경 지역이었기에 삼년이라는 정성을 들여쌓았다. 그렇게 삼년산성은 축성되고 16년 후인 소지마립간(소지왕) 8년(486) 봄 정월에 일선지역(일선군, 현 경북 구미)의 장정(정부丁夫) 3천 명을 징발해 고쳐 쌓았다고 한다.¹⁸⁾ 이는 그동안 드러났던 군사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수리할 부분 등을 취합하여 개축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특기할만한 큰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일대를 차지하였다.¹⁹⁾

백제는 즉시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을 중심으로 용진(현 충남 공주)으로 피란 천도하였다.²⁰⁾ 삼년산성은 보청천과 이어진 금강으로 연결성이 있었다. 삼년산성은 고구려의 계속될 남진과 백제와의 군사적 긴장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전선 배후 요새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삼년산성 개축을 촉진시킨 이유였다. 이후에 삼년산성은 더욱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1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8년 춘정월. 이때는 소지마립간 시기인데 몇 살 이상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선군 지역의 남자들만 징발되어 삼년산성(三年山城)과 굴산성(屈山城,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일대)을 고쳐 쌓았다고 한다.

1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

2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원년 동10월.

삼년산성은 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적에 주목되는 곳이었다. 554년(백제 성왕 32) 가을 7월에 백제 성왕이 관산성전투(현 충북 옥천)에서 신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대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의 주력은 신주(新州)의 군주(軍主) 김무력(金武力, 김유신의 할아버지)이 이끄는 주의 군사였다. 그리고 이 전투에 인근 군사들이 합세하였다. 이때 성왕을 죽인 신라군은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 삼년산성)의 고간(高干) 도도(都刀)였다. 백제군은 좌평(佐平) 4명과 사졸 2만 9천 6백 명이 전사하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²¹⁾ 여기에서 삼년산군은 관산성에서 가까운 삼년산성이 틀림없으므로, 이 성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관산성전투는 인식시켜 주었다.

시간이 흘러 7세기에 벌어진 신라와 백제의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그 과정에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 9월, 당나라 황제가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王文度)를 신라로 보내어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았다. 왕문도가 삼년산성에 도착하여 신라 태종무열왕(김춘추)에게 당황제의 조서를 전달하였다.²²⁾ 이러한 중요한 의식이 삼년산성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삼년산성이 신라와 백제 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 거점이었다는 것을 재차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삼년산성은 계속해서 주요한 지역 거점이 되었다.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끝나고 삼년산성이 기록에 등장한 것은 열기(裂起) 때문이었다. 김유신이 사망한 뒤에 그 맏아들인 삼광(三光)이 실권을 잡았다. 김유신 밑에서 큰 전공을 세웠던 열기는 삼광에게 군수 자리를 부탁하였다. 삼광은 이 청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과거 전공을 상기하고서 삼년산군(三年山郡) 태수

2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2년 추7월 ;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추7월.

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9월.

(太守)자리를 열기에게 주었다.²³⁾ 그 시기는 대략 700년 이전 또는 그 직후가 아닐까 한다. 김유신이 673년에 사망했고,²⁴⁾ 삼광이 열기의 전공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삼년산성(삼년산군)이 이때까지 그런대로 주요 지역 거점성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열기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삼년산성이 다시 주목되었던 것은 김헌창(金憲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중앙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뿔뿔하였다. 무진주(현 광주광역시)·청주(靑州, 현 경남 진주)·웅천주(현 충남 공주)의 도독²⁵⁾을 지낸 김헌창은 822년(헌덕왕 14) 3월에 반란을 일으켰다.²⁶⁾ 『삼국사기』에서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하여²⁷⁾ 반역했다고 한다. 이는 신라시대 최대의 반란 사건이었다. 사료의 내용에 의하면 김주원의 왕위 계승 실패가 김헌창난의 주원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과 함께 계속 지방으로만 뿔뿔된 김헌창 자신의 소외감이 더해지고, 중앙에 대한 지방민의 소외감까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난으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²⁸⁾

당시 김헌창은 삼년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라군은 김헌창의 반란군이 점거하고 있었던 삼년산성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김헌창군은 바로 옆 속리산에도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신라군에 의

23) 『삼국사기』 권47, 열전7, 열기. 삼년산군은 곧 삼년산성이라 하겠다.

24)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25) 김헌창의 도독 역임에 대해서는 ‘무진주도독은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5년 정월’, ‘청주도독(靑州都督)은 헌덕왕, 8년 정월’, ‘웅천주도독은 헌덕왕, 13년 4월’ 참고.

2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27) 선덕왕이 후사 아들 없이 사망하자, 처음에 김주원이 다음 왕으로 추대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김경신이 즉위하였으니 바로 원성왕이었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원년).

28) 김헌창의 난은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과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한국중세사학회, 2019, 16~17쪽’ 참고.

해 괴멸되었다. 이때 삼년산성에 김헌창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김헌창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헌창은 웅진(현 충남 공주)으로 피하며 항전하려 하였으나 대세가 실패로 귀결되므로 자살하였다.²⁹⁾

삼년산성은 김헌창 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접경지였을 때 중요시 되는 군사 거점이라는 것이다. 신라 중앙정부와 반기를 든 김헌창의 세력이 접경을 이루었던 곳은 삼년산성이었다. 이처럼 두 세력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 삼년산성이 자리를 잡게 되면 두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확보한 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결국 김헌창은 삼년산성전투에서 실패함으로써 패권을 잡으려는 야망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9세기 말과 10세기 초에 새로운 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삼년산성은 다시 주목되었다.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당시 나라 이름은 백제)가 대립할 적에 삼년산성은 재등장하였다.

나. 전투 전조(前兆)

신라와 백제, 신라 중앙정부와 김헌창의 반란세력, 이렇게 양 세력이 삼년산성 일대에서 대립하고 있을 적에는 동·서에 두 진영이 포진하고 있었다. 10세기 전후에는 남·북으로 포진하는 경계에 삼년산성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신라는 889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왕문도와 김헌창의 행위를 통해 삼년산성이 중요한 교통로상에 있었던 요해처라는 견해가 참고된다(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142~143쪽). 다만 세세한 교통로(진군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년(신라 진성여왕 3)을 기점으로 급속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889년에 신라 중앙정부는 여러 주(州)와 군(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오지 않자, 창고가 비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진성여왕은 사신들을 지방으로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도적들이 마치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한다. 이때 사벌주(현 경북 상주)에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³⁰⁾

이를 기점으로 지방의 상당 부분이 분열되며 자립하였다. 지역세력(호족)들이 특정 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이탈하였다. 이러한 대변화에 충청지역도 예외는 없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공주장군 홍기(현 충남 공주), 운주장군 궁준(홍규, 현 충남 홍성), 매곡성장군 공직(龔直, 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 등이다.³¹⁾ 원종과 애노가 반란한 사벌주 서쪽 가까운 곳에 삼년산성이 있다. 삼년산성 바로 서쪽에 매곡성(매곡산성)이 있고 여기에 지역세력인 공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곡성 바로 서쪽에 있는 일모산성에도 지역세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처럼 견고한 요새에 당연히 지역세력이 웅거하고 있었을 터이다.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의 지역세력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지역세력이 있는 사벌주와 매곡성 사이에 자리한 삼년산성에 지역세력이 있었을 것이란 가정은 충분히 설정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 지역세력의 이름이 안 알려졌을 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928년에 삼년산성을 공격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의 지역세력은 일찍이 후백제 견훤 휘하에 있었다는 이해가 성립된다.

30)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31) 당시 지역세력들은 과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칭장군’이라 내세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11~18쪽).

진성여왕대에 신라는 대분열하였는데 지방은 차츰 견훤과 궁예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지역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견훤 또는 궁예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918년 6월에 초심을 잃고 민심마저 잃은 궁예를 왕건이 몰아내고 즉위하였다.³²⁾ 고려 국왕으로 즉위한 왕건은 후백제 국왕 견훤과는 적대적이었지만 신라(경명왕, 경애왕)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조 속에 고려의 국세는 상승하는 형상이었다. 고려는 여러 전선에서 유리한 전과들을 올리고 있었다.³³⁾

그러다가 926년에 특이한 사건이 발발하였다. 전해인 925년 겨울 10월에 조물군(조물성)³⁴⁾에서 양국은 질자(質子)를 교환하였다. 왕건의 사촌 동생(당제堂弟)인 왕신(王信)과 견훤의 사위(외생外甥) 진호(眞虎)가 양측의 질자로 교환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인 926년 여름 4월에 후백제 질자인 진호가 병사하고 말았다. 이를 견훤은 고려가 일부러 죽였다고 분노하였다. 결국 고려 질자 왕신은 후백제에서 처형당하고 두 진영의 대격돌이 예상되었다.³⁵⁾

이러한 정세 속에서 927년에 양국은 유난히 빈번한 격돌을 하게 되었다. 후백제 입장에서 볼 때, 고려와 신라는 표면상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의 국세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후백제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였다. 더욱이 양국의 교환질자가 사망하여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927년(태조 10)에 벌어진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정리해 보자.

3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병진.

3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42~44쪽.

34) 조물성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 경북 내륙의 어느 곳으로 추정될 뿐이다.

35)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159~161쪽. 이때 왕신과 진호는 그 성격이 국외질자(외교질자)이면서 교환질자였다.

① (927년 봄 정월 을묘일, 고려 태조 왕건이) 친히 백제 용주(龍州)를 정벌하매 항복하였다. 이때에 견훤이 굳은 약속을 위반하고, 거듭 군사를 일으켜 (고려)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왕(태조 왕건)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넣어두며 참아왔다. (마침내) 견훤의 죄악이 더 쌓이어 자못 (우리 고려를) 세차게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왕이 이를 쳤던 것이다. 신라왕(경애왕)이 출병하여 우리를 도왔다.³⁶⁾

② (927년 3월 신유일) 왕(태조 왕건)이 운주(運州, 현 충남 홍성)로 쳐들어가 그 성주 궁준(兢俊, 홍규)을 성 아래에서 깨뜨렸다.³⁷⁾

③ (927년 3월 갑자일, 고려가) 근품성(近品城, 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³⁸⁾

④ (927년 여름 4월 임술일) 해군장군 영창(英昌) · 능식(能式) 등을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강주(康州, 현 경남 진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원정군은) 전이산(轉伊山, 현 경남 남해) · 노포(老浦) · 평서산(平西山, 현 경남 남해) · 돌산(突山, 현 전남 여수시 돌산읍) 등, 4개 향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획득하여 돌아왔다.³⁹⁾

⑤ (927년 여름 4월 을축일) 왕(왕건)이 웅주(현 충남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⁴⁰⁾

⑥ (927년 가을 7월 무오일) 원보 재충(在忠) · 김락(金樂) 등을 보내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親伐百濟龍州降之 時甄萱違盟 屢舉兵侵邊 王含忍久之 萱益稔惡 頗欲強吞 故王伐之 新羅王出兵助之”.

3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

3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갑자, “攻下近品城”.

3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하4월 임술,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 擊康州 下轉伊山 老浦 平西山 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4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하4월 을축, “王攻熊州 不克”.

대량성(大良城, 현 경남 합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후백제) 장군 추허조(鄒許祖) 등 30여 명을 사로잡았다.⁴¹⁾

⑦ (927년 9월) 견훤이 근품성(近品城)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이어서) 나아가 신라의 고을부(高鬱府, 현 경북 영천)를 습격하고, 신라도성(현 경북 경주) 가까이까지 위협하였다. 신라왕(경애왕)이 연식을 보내 급한 상황을 알려왔다. 왕(태조 왕건)이 시중 공훤(公萱)·대상 손행(孫幸)·정조 연주(聯珠) 등에게 이르기를, “신라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지금 (신라와 그 왕이) 위급하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하며 공훤 등을 보내 1만 명 군사로 나아가게 하였다. …… 그 때 신라왕은 비빈(妃嬪) 종척(宗戚)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 술자리를 벌여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백제) 군사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 견훤은 …… 왕을 찾아내어 군중(軍中)에서 핍박하여 자살하게 하니 …… 왕(신라 경애왕)의 외사촌 동생 김부(金傅)를 왕(경순왕)으로 세우고 …… 왕(태조 왕건)이 이를 듣고 화를 크게 내더니, 사절을 보내어 조문과 제사를 치르게 하고, 직접 정에 기병 5천을 이끌고 공산동수(公山桐蔴, 현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을 맞아 큰 싸움을 했는데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고려군) 대장 신승겸·김락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각 부대들은 패배하였으며 왕(왕건)은 겨우 몸만 피하였다. 견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대목군(大木郡, 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을 취하고 들판에 쌓인 곡식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⁴²⁾

4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추7월 무오, “遣元甫在忠金樂等 攻破大良城 虜將軍鄒許祖等三十餘人”.

4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甄萱攻燒近品城 進襲新羅高鬱府 逼至郊畿 新羅王遣連式告急 王謂侍中公萱 大相孫幸 正朝聯珠等曰 新羅與我同好已久 今有急 不可不救 遣公萱等 以兵一萬赴之 …… 時羅王與妃嬪宗戚 出遊鮑石亭 置酒娛樂 忽聞兵至 倉卒不知所爲 …… 萱 …… 索王 置軍中 逼令自盡 …… 立王表弟金傅爲王 ……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邀萱於公山桐蔴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大將申崇謙 金樂力戰死之 諸軍破北 王僅以身免 萱乘勝 取大木郡 燒盡田野積聚”.

⑧ (927년 겨울 10월) 견훤이 장수를 파견하여 벽진군(碧珍郡, 현 경북 성주)을 침략하고 대목(大木, 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소목(小木, 현 경북 구미시 인동동) 두 군의 익은 벼를 베어버렸다.⁴³⁾

⑨ (927년 11월, 후백제군이) 벽진군의 벼와 곡식을 불살랐으며 (고려의) 정조 색상(索湘)이 여기서 전사하였다.⁴⁴⁾

이상 정리한 내용은 927년에 벌어진 고려와 후백제 양국의 격돌 사례들이다. 양국이 모두 9차례나 격돌하였다. 이는 통일전쟁기에 한 해 동안 벌어진 것으로는 최다였다. ①의 정월 전투부터 ⑥의 7월 전투까지는 ⑤의 용주전투(현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고려군이 승리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8월에도 고려군에게 유리한 사건이 벌어졌다. 8월 병술일에 태조 왕건이 강주(康州, 현 경남 진주)를 순행할 적에,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 현 경북 문경) 성주 흥달(興達)이 귀부하였다. 이에 백제(후백제)의 여러 성을 지키던 관리들이 모두 항복하며 귀부하였다고 한다.⁴⁵⁾

이처럼 927년 9월부터 진행된 공산동수전투 이전에 후백제 국왕 견훤은 계속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산동수전투 이전에 벌어진 6차례 전투에서 용주전투를 제외하고 후백제가 모두 패배하였다. 용주전투도 고려군의 공격이 실패한 것이지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8월에는 고사갈이성 성주 흥달을 비롯한 일대의 여러 성을 지키던 관리들까지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견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다.

4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동10월, “甄萱遣將 侵碧珍郡 芟大小木二郡禾稼”.

4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11월, “燒碧珍郡稻穀 正朝索湘戰死之”.

4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8월 병술, “王徇康州 高思葛伊城 城主興達歸款 於是 百濟諸城守 皆降附”.

이러한 상황 이후에 벌어진 전투가 공산동수전투였다. 이 전투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직전에 발생한 여러 전투 결과 때문이었다. ⑧과 ⑨의 벽진군전투는 공산동수전투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실제 공산동수전투는 9월의 근품성 충돌부터 시작하여 11월 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공산 동수에서의 혈투는 10월에 벌어진 것이었다.⁴⁶⁾ 왕건은 공산동수전투에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최대의 패배를 당하였다. 고려 국세의 상승세는 이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꺾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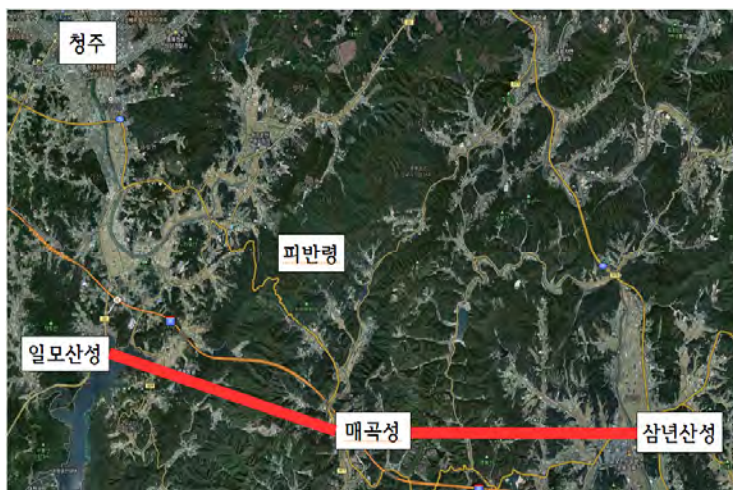
이제 왕건이 국면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⁴⁷⁾ 그리고 그는 공산동수전투에서 패배한 근본 원인 분석 및 타개책을 찾아야 했다. 왕건은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내륙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면 후백제 중심 방어선을 깨뜨려야만 했다. 한편, 삼년산성의 서편에 위치한 매곡성(매곡산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928년 당시 후백제 영역이었다. 여기에 더해 매곡성의 서편에 위치한 일모산성(一牟山城, 연산진, 양성산성, 문의현,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도 후백제 영역이었다.

삼년산성의 서편 가까운 곳의 비슷한 위도에 매곡성이 있고, 매곡성 서편 가까운 곳에 일모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모산성은 위도상 약간 북쪽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3성은 거의 동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삼년산성, 매곡성, 일모산성이 거의 일직선으로 견고한 전력선(戰力線)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 전력선은 후백제의 대 고려 방어선이자 진격 출발선이었다.

4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55~56쪽.

47) 고려는 당시 경상지역에 집중된 후백제 견훤의 군사적 관심과 활동을 타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삼년산성을 공격했다는 견해가 있다. 일리(一理)가 있는 견해라 하겠다(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2018, 46~48쪽).

〈그림 1〉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의 후백제 전력선(戰力線)



* 출처: 구글지도 편집

왕건은 남쪽 내륙으로 고려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이 3성의 후백제 방어선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림 1〉은 3성의 후백제 전력선(방어선)을 간략하게 그려본 것이다. 3성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삼년산성에서 매곡성까지 약 12.6km이고, 매곡성에서 일모산성까지 약 10.2km이다. 왕건은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 3성 중에서 삼년산성을 먼저 공격하고자 하였다.

3. 삼년산성전투 전개과정

왕건은 927년 9월부터 시작된 공산동수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대후백제 타격을 위한 목표물로 삼년산성을 선택하였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에도 앞에서 제시한 ⑧과 ⑨에 열거한 것처럼 벽진군(현

경북 성주) 일대에서 고려군은 연달아 패배하였다. 해가 바뀌어 928년(태조 11)이 되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고려군은 928년 정월에 벌어진 초팔성전투(현 경남 합천군 초계면)⁴⁸⁾와 5월에 벌어진 강주전투(현 경남 진주)에서도 후백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⁴⁹⁾ 이어서 가을 7월이 되었다.

- (928년 가을 7월 병진일)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삼년산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청주(靑州, 淸州, 현 충북 청주)로 갔다.⁵⁰⁾

통일전쟁기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주 내용은 위에 제시한 기록이 전부이다. 이 같은 소략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 전투는 그간 연구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공산동수전투 이후에 왕건이 직접 수행한 전투가 928년 가을 7월에 벌어진 삼년산성전투였다. 대체로 고려와 후백제 양국은 농한기에 전투를 벌이곤 하였다. 백성들의 식량 문제 해결, 군량미 확보, 군 인력 동원 등의 이유로 양국은 가급적 농한기에 군사를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확을 마친 9월에 군사 동원이 시행되곤 하였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산재하기도 하였다.⁵¹⁾ 국왕이 농한기가 아닌 7월에 직접 친정한 경우는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다. 그 선택지가 왜 삼년산성이었을까 궁금하다. 국왕이 친정한 대상지는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다.

삼년산성은 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자리하고 있다. 과거 신라와 백제 또는 신라 중앙정부와 김현창의 반란군이 동서로

4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춘정월 을해.

4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5월 경신.

5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추7월 병진, “自將擊三年山城不克 遂幸靑州”.

51) 왕건의 농한기 군사 동원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2~56쪽 참고.

맞서있을 때 중요 거점 요새가 삼년산성이었다. 이제 방향만 바뀌었을 뿐, 북쪽 왕건의 고려와 남쪽 견훤의 후백제가 남북으로 맞서있는 전선에서 중요 거점 요새가 삼년산성이었다. 삼년산성은 양 세력이 첨예하게 맞서있을 때 빛을 발하는 요새였다. 왕건이 친정한 삼년산성은 후백제 영역이었다. 바로 서쪽 옆에 있는 매곡성 성주 공직이 당시 후백제 견훤 휘하에 있었다. 후백제 영역인 매곡성의 바로 동쪽에 있었던 성이 삼년산성이었다.

견훤이 공산동수전투 시 맨 처음 공격한 곳이 근품성(近品城)이었다. 근품성은 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에 있었다.⁵²⁾ 견훤이 백제도성 완산(현 전북 전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여 근품성까지 진군하였다. 그 근품성과 삼년산성은 동서로 존재하고 있었다. 완산에서 출발한 견훤은 삼년산성을 거쳐서 현 25번 국도와 비슷한 경로로 속리산 남쪽 자락을 넘었다고 판단된다. 계속해서 지리 특성상 견훤은 상주를 지나 근품성으로 갔다.

앞장에서 제시한 사료 ⑦에 의하면, 견훤은 근품성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이어서 신라 고을부(高鬱府, 경북 영천)를 습격하고 신라도성(현 경북 경주)으로 쳐들어갔다. 견훤의 군사 행동은 속전속결이었다. 이러한 상황 조건에 부합하려면 견훤은 삼년산성에서 넘어와야만 했다. 따라서 왕건은 제2의 공산동수전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점령해야만 했다. 또한 삼년산성을 고려군이 깨뜨린다면 남쪽으로 계속 남진할 수 있는 유리한 전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곳은 주목되는 공격 대상이었다.

요컨대 왕건이 삼년산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로 드러낼 수 있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의 국면전환, 후백제의 경상지역 진출로 차단, 고려의 중부내륙 남진정책(= 견훤의 북진정책 차단) 등이

52) 근품성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송검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48~49쪽 참고.

그것이다.

그런데 왕건의 고려군은 어떠한 진군로로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자. 일단 후백제 영역인 남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쪽은 속리산 자체가 가로막고 있으며, 그 남쪽 자락은 후백제군의 삼년산성과 근 품성으로 연결되는 진군로가 있으므로 이 역시 제외된다. 서쪽은 근 거리에 매곡성 성주 공직이 있어서 불가하다. 더구나 삼년산성 서쪽에 보청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이 마치 해자 내지는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불가한 공격방향이다.

그렇다면 북쪽에 자리한 고려군이 삼년산성의 북방 어느 쪽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좀 더 구체적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왕건이 삼년산성 공격에 실패하고 청주로 갔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삼년산성이 있는 보은읍에서 청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이다. 서쪽 보은군 회인면에 있는 매곡성 방향으로 해서 피반령(皮盤嶺)을 넘어가는 길이 하나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북쪽의 청주시 미원면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⁵³⁾

왕건은 928년 가을 7월 병진일에 개경에서 출발하여 삼년산성으로 내려왔다. 지리적 여건상 왕건이 이끈 고려군은 청주 또는 괴산군 방면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먼저 고려군이 청주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을 놓고 살펴보자. 고려군이 청주에서 피반령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피반령은 피반대령(皮盤大嶺)이라고도 하는데 고갯길이 아홉 번 꺾이어 가장 높고 위험한 곳이다. 이곳은 매곡성(매곡산성)에서 북쪽으로 약 15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⁵⁴⁾ 〈그림 1〉에 청주와 매곡성 사이에 위치한 피반령이 나타나 있다.

고려군이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가정할 적에 후백제군의 매곡 공

53) 보은에서 청주까지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146쪽 참고.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회인현, 산천, 피반대령.

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였다. 이처럼 험한 곳을 넘어 간다하더라도 당시 후백제 영역인 매곡성 성주 공직의 저항을 받게 된다. 고려군은 삼년산성에 접근하기도 전에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이 진군로는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청주에서 현 미원면 지역을 거쳐서 삼년산성으로 오는 진군로가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주 같은 대읍(大邑)을 거쳐 삼년산성으로 오는 진군로는 적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길이었다.⁵⁵⁾

따라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삼년산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군로는 괴산(현 충북 괴산군)을 거쳐 내려오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현 괴산군(괴양) 일대는 왕건이 궁예의 휘하 장수로 있을 때인 900년에 이미 정벌하여 태봉·고려의 영역이었다.⁵⁶⁾ 고려군은 개경에서 출발하여 충주⁵⁷⁾와 괴산을 거쳐 삼년산성으로 내려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진군로가 단거리이기에 시간 단축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삼년산성에 인접한 고려군의 좀 더 자세한 진군로와 전투 실상은 다음 사료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55) 또한 청주 일대는 왕건의 즉위 초 모반과 연관이 깊었던 곳이었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정역사연구소, 2012, 7~11쪽). 비록 이 일대의 모반은 초기에 바로 제압되었지만, 큰 전투를 앞둔 왕건으로서 삼년산성 공격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도 왕건이 삼년산성으로 진군할 적에 청주를 피한 이유가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후퇴할 때 상황은 다르다 하겠다. 후퇴의 다급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을 터이다. 여기에 더해 서쪽의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다른 고려군이 왕건을 구원하러 오기에 유리한 곳이 청주였기에 후퇴 이동은 달랐다고 판단된다.

5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광화 3년 경신.

57) 특히 충주는 지역 거점이면서 왕건의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 유씨(劉氏) 고향이기에 왕건에게는 안전한 후원지역이었다. 삼년산성전투와 관련하여 충주는 적극 지원하였을 터이다.

〈그림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보은현, 고적



마현박석(馬峴薄石), 현 (보은현) 동쪽 15리에 있다. 고개 위에 넓적하고 얇은 돌 (박석薄石)이 3~4리에 펼쳐 있는데, 세상에 전하기를, 고려 태조(왕건)가 일찍이 속리산에 거둥했을 적에 닦은 어로(御路)라 한다.

오정산성(烏頂山城), 현 동쪽 5리에 있으니, 바로 삼년산성(三年山城)이다. 쌓은 지 3년 만에 일을 마쳤기에 이렇게 이름 하였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3천 6백 99척이고, 높이가 18척이며, (성)안에 우물 다섯 개가 있는데, 지금 반은 무너졌다.

고려 태조 11년(928)에 왕(왕건)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이 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청주(淸州)로 갔다. 산 아래 군장동(軍藏洞)이 있었으니, 세상에서 전하기를, 태조가 군사를 주둔시킨 곳이라 한다.

〈그림 2〉에 의하면, 오정산성은 곧 삼년산성이라 하였다. 보은현

에서 동쪽 5리에 삼년산성이 있고, 동쪽 15리에 마현박석(馬峴薄石)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에서 마현박석까지 거리는 불과 10리이다. 삼년산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마현박석은 그 정도 위치이면서 속리산 가는 길 도중에 현재 말티고개(마티, 말티, 말티재, 박석티, 마치馬峙)가 있다.⁵⁸⁾ 삼년산성에서 보은군 속리산면(속리산)으로 넘어가는 굽은 고개 길이 말티고개, 마현박석인 것이다. 이는 왕건이 군사들의 이동을 쉽도록 길이 질퍽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석을 펼쳐 깔았다고 이해된다.

〈그림 3〉 고려군 진군로 : ① 괴산으로 가는 길(괴산거로槐山去路) →
② 마치박석령(馬峙薄石嶺) → ③ 삼년산성⁵⁹⁾



*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58) 『한국지명총람』3, 중북편, 한글학회, 1970, 147쪽 갈목리.

59) <그림 3>는 『보은군지도』(1872년, 조선 고종 9)의 관련 부분을 확대하여 필자가 숫자를 기입한 것이다. 원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에서 확인 인용하였다(2020년 6월 29일).

〈그림 3〉의 고지도를 통해서 왕건의 고려군 진군로가 이해될 수 있다. 왕건의 고려군이 괴산에서 내려와(①), 마치박석령(②)으로 올 수 있다는 진군로 설정이 가능해진다. 마치박석령(마현박석)은 현 말티고개이므로 고려군은 이곳에서 삼년산성(③)으로 나아가 공격했던 것이다. 당시 비가 많이 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석을 깔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군장동(軍藏洞)은 현재 그 정확한 장소가 잊혀졌지만 삼년산성에서 마현박석 사이 어느 곳에 고려군이 몰래 주둔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짐작된다.

고려군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을지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말티고개라는 지명에서 말, 기병이 고려군의 주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쪽에서 제시한 사료 ⑦의 927년 공산동수전투 시 왕건이 이끌고 간 군사 수가 정기오천(精騎五千)이었다. 또한 934년 9월의 제2차 운주전투 시 왕건이 친정했는데, 이때 고려군의 총 수는 경기(勁騎) 수 천 이상이었다.⁶⁰⁾ 그리고 뒤에 제시하지만 청주까지 추격한 후 백제군 숫자가 3천이었다. 이러한 삼년산성전투 전후의 사정을 보아 고려군의 숫자는 정예 기병 3천 명 정도였다고 헤아려진다.

고려군은 개경·충주·괴산을 거쳐 말티고개 가까운 곳까지 이동한 후에, 말이 미끄러지지 않게 박석을 깔고 근거리에서 삼년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말티고개를 넘어 매복하였다. 고려군이 말티고개에서 삼년산성 사이의 어느 곳에 매복한 후에 공격했기에 ‘군장동’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었을 터이다. 전투 소요 시간은 하루 이틀 이내로 끝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군은 장기간 지체하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 매곡성과 일모산성, 그리고 남쪽에서 후백제군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왕건은 속전속결로 공격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6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갑오 17년 추9월.

앞에 제시한 사료들을 기본 자료로 하고 당시 정치 상황과 지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삼년산성전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28년 가을 7월 병진일⁶¹⁾에 태조 왕건은 개경에서 정예 기병 3천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여 충주·괴산을 거쳐 내려왔다. 많은 비가 내려 기상조건이 기병을 이끌고 온 왕건에게 불리하였다. 일단 말티고개(마현박석)에 집결하고,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에 (군장동) 속전속결로 후백제군의 삼년산성 동쪽 및 북쪽을 공격하였다. 전투 소요 시간은 하루 이틀뿐이었다. 결과는 고려군의 실패였다. 왕건은 오래 머무를 수 없었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후백제 장수 김훤·애식·한장(金萱·袁式·漢丈) 등이 지휘한 3천여 명의 군사들이 청주를 공격하였다. 후백제군이 삼년산성을 공격한 왕건을 추격하여 왔던 것이다. 이때 마침 유금필이 탕정군(현 충남 아산)에서 축성(築城) 작업을 하고 있다가 왕건을 구원하러 청주로 왔다. 유금필이 이끈 고려군은 후백제군과 싸워서 격파하고, 독기진(禿岐鎭)까지 추격하였다. 이때 유금필이 후백제군을 죽이고 사로잡은 전과가 3백여 명이었다.⁶²⁾

8월에 왕건은 충주(현 충북 충주)로 피하였고, 유금필은 독기진에서의 전과를 충주로 찾아가서 왕건에게 보고하였다.⁶³⁾ 한편, 후백제 장군 김훤·애식·한장 등이 후백제군을 이끌고 청주를 공격해

61) 왕건이 즉위한 날이 병진일(丙辰日)이었다. 아마도 왕건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이 즉위한 병진일을 택하여 삼년산성전투를 직접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6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자 11년 7월 ;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독기진(禿岐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온양군, 고적 남산(南山)조에서 독기령(禿岐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독기령에 있었던 진이 독기진이었다고 이해된다. 독기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청주에서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 이 3성으로 향하는 고개 중 하나가 독기령이고 그곳에 독기진이 있었을 터이다.

6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8월 ;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왔으므로 이들은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 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은 매곡성의 장군(성주)이었다. 따라서 이 세 장수들은 삼년산성 장군(성주) 또는 일모산성 장군(성주)일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아무튼 국왕 왕건이 실패한 것을 유급필이 그나마 체면을 세워주었다. 같은 달, 왕건은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삼년산성전투는 마무리 되었다.

삼년산성전투의 고려군 전체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경 → 충주 → 괴산 → 말티고개(마현박석, 군장동) → 삼년산성 → 청주 → 충주 → 개경 순이다.

이후 왕건은 삼년산성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였다. 무리하게 삼년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929년(태조 12) 12월부터 930년 정월 사이에 고창군(현 경북 안동)에서 큰 전투가 발생하였다. 고창군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⁶⁴⁾ 국면전환에 성공한 왕건은 930년 8월에 천안부(현 충남 천안)를 설치하며 충청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 삼았다.⁶⁵⁾

이러한 판세 변화에 부응하여 매곡성 장군 공직이 932년(태조 15) 6월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⁶⁶⁾ 왕건은 여세를 몰아 같은 해에 일모산성 공략에 성공하였다.⁶⁷⁾ 일모산성과 매곡성이 고려의 수중에 들어왔으니 삼년산성은 그 입지가 좁아졌다.⁶⁸⁾ 이러한 판단을

64) 고창군전투에 대해서는, 류영철, 「고창전투 전후의 양국관계」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참고.

6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추8월 을해.

66) 공직의 고려 귀부에 대한 연구는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湖西文化研究』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와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가 참고된다.

6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8) 삼년산성, 매곡성(매곡산성), 일모산성, 이 3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체로 일직선 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매곡성과 일모산성이 고려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니 삼년산성은 ‘군사지리’ 적으로 보아 고립된 형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근거는 매곡성과 일모산성이 고려의 영역으로 넘어 온 뒤로 이 일대에서 후백제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⁶⁹⁾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 전선(戰線)이 견고하게 된다. 그런데 삼년산성 홀로 후백제 영역이다 보니 그 견고함이 무너지지게 되었다.

이윽고 왕건은 934년 9월에 견훤을 상대로 제2차 운주전투(현 충남 홍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여파로 웅진(현 충남 공주)이 북 3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⁷⁰⁾ 왕건은 통일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삼년산성은 더욱 고립되며 통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936년 9월에 고려가 통일을 완성하고,⁷¹⁾ 이후 940년인 태조 23년에 삼년산성(삼년산군, 삼년군)은 그 고을 이름이 왕건에 의해 보령군(保齡郡, 현 충북 보은군)으로 명명되었다.⁷²⁾ 이제 삼년산성은 통일고려의 평범한 한 군현으로 남게 되었다.

4. 맺음말

고려 태조 왕건(高麗 太祖 王建)이 친정(親征)함에 실패한 전투 중 하나가 928년 삼년산성전투(三年山城戰鬪, 현 충북 보은군)였다.

6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83~84쪽.

7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9월 정사. 운주전투는 총 두 차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참고.

7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72)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상주목, 보령군조에서는 ‘보령군(保齡郡)’이라는 고을 이름이 고려 초에 정해졌다고 했는데, 『대동지지』 권6, 충청도, 보은, 연혁조에서는 고려 태조 23년(94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년산성은 신라 자비마립간대에 468년부터 470년까지 주로 농한기에 헛수로 삼년동안 쌓았던 성이다. 이 성은 신라가 백제와 대립할 적에 군사적 요충지이자 거점 역할을 하고자 축성한 곳이었다. 삼년산성은 특히 양 세력이 대립하면서 그 경계상에 있을 때에 존재감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신라와 백제, 신라 중앙정부와 김헌창의 반란세력 등이 맞서 있을 때에 잘 드러났다.

시간이 흘러 10세기 초에는 남·북으로 포진하는 경계에 삼년산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북쪽 왕건의 고려와 남쪽 견훤의 후백제가 이 성을 경계로 맞서 있었다. 삼년산성은 일찍이 견훤의 수중에 있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즉위한 후에 대체로 국세가 상승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다가 926년에 특이한 사건이 발발하였다. 전해인 925년 겨울 10월에 양국은 질자(質子)를 교환하였다. 왕건의 사촌 동생인 왕신(王信)과 견훤의 사위 진호(眞虎)가 양국의 질자로 교환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인 926년 여름 4월에 고려에 온 후백제 질자인 진호가 병사하고 말았다. 이를 견훤은 고려가 일부러 죽였다고 분노하였다. 결국 고려 질자 왕신은 후백제에서 처형당하고 두 진영의 대격돌이 예상되었다.

특히 927년에 양국은 무려 9차례나 격돌하였다. 그 중에서 공산동수전투(현 대구 팔공산)가 벌어지기 전에 양국은 6차례 격돌하였는데 웅주(현 충남 공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려의 승리였다. 견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927년 9월부터 시작된 공산동수전투를 감행하였다. 결과는 왕건의 고려군이 대패를 당하였다. 이 전투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려군은 후백제에게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왕건의 군사적 행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타개책으로서 왕건은 삼년산성 진정을 택하였다. 왕건이 삼년산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의

국면전환, 후백제의 경상지역 진출로 차단, 고려의 중부내륙 남진정책(= 견훤의 북진정책 차단) 등이 그것이다.

928년(태조 11) 가을 7월 병진일에 왕건이 직접 이끈 고려군은 개경에서 출발하여 충주와 괴산을 경유하며 속리산 서쪽 자락인 마현박석(말티고개)으로 내려왔다. 고려군의 숫자는 정기(精騎) 3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고려군은 마현박석에서 삼년산성 사이의 어느 곳(군장동)에서 매복한 후에 근거리에 있는 삼년산성의 동쪽 및 북쪽을 속전속결로 공격하였다. 후백제 원정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에 하루 이틀에 걸쳐 공격하였다. 그러나 왕건의 삼년산성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왕건의 고려군은 청주로 물러났다. 하지만 후백제군은 3천의 군사로 왕건을 추격해 왔다. 이때 탕정군(현 충남 아산)에 있던 고려 유금필이 원정군을 이끌고 와서 후백제군을 막아 독기진까지 쫓으면서 패퇴시켰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왕건의 삼년산성 친정은 실패하였다. 삼년산성전투의 고려군 전체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경 → 충주 → 괴산 → 말티고개(마현박석, 군장동) → 삼년산성 → 청주 → 충주 → 개경 순이다. 이후 왕건은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는 무리하게 삼년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929년 12월·930년 정월에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왕건은 견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930년 8월에는 천안부(충남 천안)가 설치되어 충청지역의 군사적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판세 변화에 부응하여 삼년산성 서편에 있는 매곡성장군(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 공직이 932년(태조 15) 6월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왕건은 여세를 몰아 같은 해에 매곡성(매곡산성) 서편에 있는 일모산성(현 충북 청주시 문의면) 공략도 성공하였다. 일모산성과 매곡성이 고려의 수중에 들어왔으니 삼년산성은 그 입지가 좁아졌다.

이윽고 왕건은 934년 9월에 견훤을 상대로 제2차 운주전투(현 충남 홍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여파로 웅진(현 충남 공주)이 북 3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삼년산성은 더욱 고립되며 통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936년 9월에 고려가 통일을 완성하고, 이후 940년인 태조 23년에 삼년산성(삼년산군, 삼년군)은 그 고을 이름이 왕건에 의해 보령군(保齡郡, 현 충북 보은군)으로 명명되었다. 이제 삼년산성은 통일고려의 평범한 한 군현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0. 6. 30, 심사수정일 : 2020. 8. 14,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고려, 왕건, 후백제, 견훤, 삼년산성, 삼년산성전투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대동지지』
『보은군지도』(1872년, 조선 고종 9)
『한국지명총람』3, 충북편, 한글학회, 1970.
『三年山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문화유적분포지도 - 보은군』, 보은군 · 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한국성곽학회, 『삼년산성』, 충청북도, 2008.

2. 논문

-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07..22.001&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416.2012..30.007&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작의 역할」 『軍史』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http://dx.doi.org/10.29212/mh.2012..85.61>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3..35.003&res_svc_cd=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http://dx.doi.org/10.29212/mh.2015..96.173>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6..46.003&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송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56, 한국중세사학회, 2019.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향토문화』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

민병하,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軍史』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http://uci.or.kr//G901:A-0001014171@N2M>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198.2004..91.001&res_svc_cd=

_____,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軍史』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http://dx.doi.org/10.29212/mh.2010..76.1>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2..34.002&res_svc_cd=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味谷城(懷仁)將軍 龔直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호서문화연구』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848.2008..51.003&res_svc_cd=

차용걸, 「삼년산성 곡성형식의 비교연구」 『인문학지』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3. 단행본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2018.

4. 기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20200629 확인 인용)

<http://kyu.snu.ac.kr/>



(Abstract)

Review of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fortress) led by Taejo Wang Geon of Goryeo Dynasty

Kim, Myeong-jin

It was the Battle of Samnyeon fortress, which located in Boeun county of Chungbuk province, in 928 that had been only to fail among the combats that Goryeo Taejo Wang Geon took lead directly. Constructed in the reign of King Jabi, the fortress 'Samnyeon Sanseong' would be used as a military base in the event of hostilities between Silla and Baekje dynasty. This fortress had a noble key role in the event of two hostile forces's conflict. Its presence most notably revealed itself when there were confrontations between Silla and Baekje dynasty, an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f Silla and the rebellious forces led by Kim Heonchang.

Over time, early in the tenth century, the fortress was situated on the south-north borders, where Wang Geon's Goryeo in the north and Gyeon Hweon's Hubaekje(the late Baekje dynasty) in the south confronted each other. This fortress was in control of Gyeon Hweon at that time, and there had been so many spate of violent clashes in 927 clashes between the two sides. The largest one of them all was the Battle of Gongsan Dongsu (located in current Daegu), where Wang Geon suffered a crushing defeat. Wang Geon's eagerness to redeem his defeat led him to launch a military operation against this fortress, known as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The attack on the fortress in july of 928 by the Goryeo's army, led by Wang Geon, was a failure. After that, he changed his strategy to focus on isolating the fortress, instead of forcibly

attacking it. Due to his isolation strategy for the fortress, there had been long deadlock status until the end of war. In 936, Wang Geon finally completed the re-unification after the victory of campaign against the late Baekje dynasty. he named the town of Samnyeon Sanseong as Boryeong County in the year of 940. This resulted in Samnyeon Sanseong remaining not notable among the counties and prefectures of the Unified Goryeo.

Keywords : Goryeo, Wang Geon, Hubaekje, Gyeon Hwon, Samnyeon Sanseong,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73-187
<https://doi.org/10.29212/mh.2020..116.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한국의 도성방위체계를 집약한 연구서

백기인 저,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발전』(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송영대*

1. 도성방위에 대한 이해

국가 단위의 전쟁에서 주요 목표는 다른 국가의 중심지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이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중심지는 수도이며, 때문에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어진점 역시 수도라고 할 수 있다.

수도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며, 최고 지도자 즉 왕이 국정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다. 고대의 전쟁에 있어서 상대국의 멸망을 목적으로 할 경우, 상대국 왕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

* 건국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다. 상대국 왕의 신변을 확보한다면 이를 담보로 하여 기존에 확보한 것 이상의 재물이나 영토를 요구할 수 있다. 혹은 왕을 교체하여 그 나라의 정치까지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왕의 신변 보호는 가장 중요한 방어 목표가 된다. 왕이 머무르는 수도 역시 방어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곳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수도는 국가 방어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수도는 방어의 요지이기도 하면서도 국가 운영의 중심지여야 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매우 보기 드물었다. 때문에 평소에는 왕이 국정을 펼치는 곳에 있다가, 유사시 왕이 거처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을 마련해두고, 이곳에서 항전하거나, 적이 감히 쳐들어가기 힘든 먼 곳으로 대피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세계사에서도 수도의 함락은 곧 국가의 멸망 혹은 왕조의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다. 한국사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국가의 방어 전략에서 수도는 언제나 중심지가 되었다. 수도 방어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이후 각 지역의 방어 전략 및 거점 방어와 국경 방어 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된 백기인 교수의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연구서는 이러한 도성방위에 주안점을 두고 저술되었다. 저자는 그동안 조선과 근현대의 군사사상의 분야에서 여러 연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연구서에서는 저자 본인의 연구와 기존의 한국 도성방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집약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분량의 부록을 포함시켰다. 한국의 도성방위체계 및 그 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 권으로 응축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에서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제2장, 제3장, 제4장이 주요 내용에 해당한다. 제2장은 고대 삼국의 도성방위, 제3장은 고려의 도성방위, 제4장은 조선의 도성방위이다. 즉 한국사를 크게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구분하여, 전근대의 도성방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서론에서는 도성의 구성 및 도성방어 변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를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였다.

2. 도성방위의 형성,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전략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전략과 관련하여 크게 삼국의 건국과 방위전략,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에 대해 다루어졌다. 고구려·백제·신라는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현재 그 왕도의 위치를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의 방위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도성방위전략의 파악을 위해서는 군제를 분석해야 하지만, 사료적 한계로 인하여 주로 도성제를 통해 고찰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이 연구서에서는 도성이란 도읍(都邑)이라고 하는 왕도(王都)이며, 왕도 전체를 에워싸는 나성(羅城)이 축조되어야 도성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용한 점이지만, 사실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다. 나성으로 대표되는 외곽성의 존재는 여러 도성에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제의 사비성과 고구려 평양성에 해당하며, 고려와 조선 또한 외곽성이 존재하였다. 다만 백제 초기 도성이나 고구려 초기 도성, 신라 도성에는 외곽성의 존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외곽성은

도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건이라고 할 순 있지만, 도성임을 구분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곽성의 존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수도와 수도 외곽의 구분이라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

이 장에서는 도성방위라는 관점에서 외곽성이 존재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었다. 전체적으로 각 국가의 역사 전개와 천도 혹은 수도 방어 사례를 바탕으로 도성방위 사례를 검토하였다. 삼국시대의 경우 기록의 한계 때문에 고고학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도성방위를 설명하였다.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천도가 고구려 국가성장기의 기본적인 도성방위전략의 일환이었다고 하였다. 주지하듯이 고구려는 졸본성(환인) → 국내성(집안) → 평양성(평양)으로 수도를 이전하였으며, 각 지역마다 각자의 방어체계를 갖추었다. 고구려의 방어체계는 평지성과 산성의 2성 체제이며, 환인에서는 하고성자와 오녀산성, 집안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동천왕 때에는 동황성으로 피난성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내성·환도산성의 2성 체제에서 보조적으로 운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동황성은 기록에서는 “平壤東黃城”으로 나타나기 때문에,¹⁾ 그 위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목覓山(木覓山)이 고구려 때 황성(黃城)의 옛터라고 하였고,²⁾ 「대동여지도」에 보면 ‘黃城’이라는 지명이 평양 주변에서 확인된다. 때문에 애초에 ‘東黃城’이 아니라 ‘黃城’으로 파악하고 그 위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소위 동황성의 위치를 강

1) 『三國史記』 권18, 「高句麗本紀」6, 고국원왕 13년. “秋七月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

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1, 「平安道」平壤府, 山川. “木覓山[在府東四里 有黃城古址 一名絳城 世傳高句麗故國原王居丸都城 爲慕容皝所敗移居于此]”.

계(江界) 쪽으로 볼 경우, 백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공격한 곳 역시 강계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평양지역을 동천왕 때부터 영유하였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고국원왕 때에는 평양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대성산성과 장안성 축조와 천도로까지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한다.

백제 한성기의 도성으로 풍납동토성(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을 거론하였다. 또한 이를 방어하는 존재로 한강 이북의 아차산성과 한강 이남의 사성(산성동토성)이 축조되었다고 하였다. 책에서는 백제 최초 한강권에 도읍한 백제의 수도방위가 2개의 상대국으로부터 군사적으로 침공을 당하는 위협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성기의 백제는 고구려와 대치하고 있었고,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것은 그보다 훨씬 이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웅진성은 나성이 없기 때문에 도성이라 하기 어렵고, 임시적인 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웅진은 사비 천도 이후로도 오방성(五方城) 중에서 북방성(北方城)이라는 주요 거점으로 활용되었다.³⁾ 또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당시, 최후로 피난하여 저항한 곳이 웅진성이었다는 점도 상기할 수 있다. 웅진성은 금강이라는 자연 해자가 둘러진 요새로, 백제 문주왕은 국난의 위기에서 이곳으로 천도하였고, 조선의 인조는 이괄의 난 때 이곳에 몽진하였다. 부여의 부소산성에 비해 방어에 더 용이하였다는 점에서 의자왕의 피난성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백제 사비기 방어체계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신라의 경우 월성을 주로 왕성으로 보고 있다. 주지하듯이 경주

3) 『周書』 권49, 「列傳」41, 異域 上, 百濟. “治固麻城 其外更有五方 中方曰古沙城 東方曰得安城 南方曰久知下城 西方曰刀先城 北方曰熊津城”.

에는 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도성의 기준을 나성의 유무로 따지게 된다면, 천년의 수도였던 경주가 정작 도성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경주는 분지형의 지형이며, 경주평야의 주변에는 명활산성·남산신성·서형산성을 축조하여 왕성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신라 왕경의 경우 조방제(條坊制)를 실시한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경주분지 내의 영역을 도성으로 볼 수 있다. 즉 도성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삼국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제2절에서는 좀 더 심화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천도와 도성방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수도 평양성 방어전에 비중을 할애하여 당시의 전투 상황을 바탕으로 도성방위의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는 도성 자체의 방어와 함께 도성외곽방어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식의 내·외선 작전을 병행하는 2선작전에 의한 수성전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나당연합군은 도성포위작전을 펼쳤지만, 고구려 내부의 내통이 있기 전까지는 난공불락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군사학적인 측면에서 평양성전투를 분석한 점이 인상 깊게 다가온다.

백제 멸망기의 전투 분석과 관련하여, 백제의 도성방어전은 전략적인 기습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치러졌고, 도성외곽방어를 위시한 지역방어에 치중하여 수도방어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사실 백제의 입장에서 당군의 공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바였기에, 나당연합군의 의표를 찌르는 전략이 적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백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으로 양쪽의 대군을 상대해야 하였고, 당시 어떤 방향으로 쳐들어올지도 명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방어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백제는 나성의 축조와 사비도성 주변

성곽의 축조를 통해 도성방위체제를 철저하게 마련하였지만, 결국 다수의 군대 앞에서 중과부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고대사는 부족한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하며, 사료의 일부 기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학자들끼리 의견이 엇갈린다.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사료의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때마다 기존 학설이 무너지고 새로운 학설이 세워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고대사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한국고대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도성방위체제를 살펴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든다. 부여나 가야의 경우, 도성방위체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발해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가 남아 있다. 상경용천부(上京龍泉府)의 경우에는 중국의 도성 제도를 참고하여 도성을 축조하였으며, 주변의 여러 성곽을 통하여 도성방위체제를 복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발해사의 한국사 귀속 문제를 생각한다면, 발해 역시 우리의 역사로서 도성방위를 다루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후삼국시대의 태봉과 후백제의 경우에도 도성방위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 태봉의 경우 철원도성의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제대로 살펴보기 어렵더라도,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후백제의 경우 전주의 동고산성과 남고산성으로 대표되는 유적이 남아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방위체제를 살펴볼 수 있다. 아무래도 삼국시대의 관련 연구 자료가 많지 않다보니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하나, 발해와 후삼국시대까지 포괄하여 기술하였다면 더욱더 좋은 연구서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3. 도성방위의 정립, 고려시대의 도성방위전략

고려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서는 고려의 건국과 북진정책 및 도성방위체제와 수도이전 전략에 대해 다루었다. 고려는 송악에 수도를 정하는 한편 건국 당시부터 평양을 중시하였다. 특히나 평양은 고구려의 옛 수도이자 북진정책의 거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삼국시대에 비해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서 기록을 바탕으로 도성체제 및 방위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 책에서는 고려 초기에 평양성 도성화 사업과 대동강 이북과 청천강 이남 지역에 대한 성곽 축조를 통하여 북진정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실제 전쟁의 사례를 들면서 서경(西京) 즉 평양이 북방의 거점으로 사용되었던 사례를 밝히면 더 좋았으리란 생각이 든다. 거란의 제1차 침입 당시 고려 성종은 서경으로 행차를 하고 이후 안북부(安北府)까지 올라가서 거란에 대응하려고 하여 신하들이 만류하기까지 하였다.⁴⁾ 이러한 기록은 고려가 거란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왕이 직접 서경에 가서 대적할 정도로 평양이 북진의 중심지였음을 밝혀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는 삼국에 비해 궁궐과 수도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이 기록들을 통하여 당시 성곽과 성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경의 도성 건설은 현종대의 나성 축조를 계기로 궁성-황성-나성으로 연결되는 3중성 방어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고려는 성곽별로 규모와 문의 수에 대한 기록까지 남아 있으며,

4) 『高麗史』 권3, 「世家」3, 성종 12년 윤10월. “閏月 丁亥 幸西京 進次安北府 聞契丹蕭遜寧攻破蓬山郡 不得進乃還 遣徐熙請和 遜寧罷兵”.

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에서 도성 체제와 관련되어 살펴볼만한 표를 인용하거나 저자가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간편하게 보기 좋도록 구성하였다는 점이 장점이다. 다만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큰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여 제시하였으면 더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도성 방위 병력을 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사원이 중요한 군사적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았다. 삼국시대의 경우에서도 도성에 여러 사원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의 사례를 적용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려에서의 도성방위체제와 관련하여 실제 수성전으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 홍건적의 난 당시 개경 전투의 경우가 개경성을 배경으로 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고려사』 기록을 바탕으로 성곽 포위와 기습작전, 진내 공성작전 및 성곽 회복작전 등을 펼치면서 고려군의 도성 수복전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였다.

도성방위체제 마련 결과가 실전에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도성 방위를 제대로 펼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제1차 전쟁에서는 요격을 하고 협상을 통해 영토를 확보하였다. 거란의 제2차 침입 당시에 현종은 나주로 몽진하였으며 개경성이 함락되었고, 제3차 침입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인하여 거란군이 개경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는 강화도로, 홍건적의 침입 당시에는 안동으로 몽진을 가는 등 피난을 통하여 왕의 신변을 보호하였다. 즉 도성방위체제는 국가 단위의 큰 전쟁에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피난을 통한 방어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고려의 사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조선의

사례에도 해당한다. 피난을 통해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였다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계속 확인된다는 사실에서, 이 또한 방어체제의 일환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고려의 치소성 전략을 강조하면서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한 성을 표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거란과 여진, 몽골과의 싸움에서 활용된 성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전쟁 양상을 보였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다만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각 전쟁에서 활용된 성을 지도에 표시하여, 적군의 공격 루트에 따른 고려의 방어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혹은 여기에서 제시된 성을 바탕으로 추후 전쟁 양상의 분석에 있어서, 적군의 공격 루트가 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라 고려가 2차, 3차 방어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였고, 실전 사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려의 수도 이전 전략과 관련하여 몽골과의 전쟁에 있어서 강화 천도와 개경으로의 환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당시의 천도는 긴급한 전세의 필요와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강화도에 고려는 내성·중성·외성의 3중 구조로 된 성곽을 축조하여 도성제도를 구축하였지만, 몽골의 요구로 내성과 외성을 파괴하게 되었다. 각 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오늘날의 지명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역시도 지도를 첨부하여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 좋았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몽골과의 화의가 성립된 이후 고려 조정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었다. 개경 환도 이후의 상황과 남경(南京) 즉 양주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설명을 주로 하였다. 고려 말기 한양 천도 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사례를 서술한 점은 좋지만, 개경 환도 이후 개경의 도성방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게 생각된다.

4. 도성 방위의 발전, 조선의 도성방위전략

조선의 도성 방위에 대해서는 조선의 한양 정도, 조선 초기의 도성방위, 조선후기의 도성방위체제에 대해 다루었다. 조선의 한양 정도는 주로 『태조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상황을 기술하였다.

조선 초기의 도성 방위는 한양도성 건설과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이라는 내용으로 저술되었다. 한양 도성 건설에서는 이인도감과 도성조축도감을 두어 한양도성이 어떤 식으로 축조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전국의 인력을 동원하여 각 구간을 나누어 담당하여 축조하였으며, 5부(部)의 총 52방(坊)에 방명표를 세우도록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의 명칭도 기입하였다. 조선은 삼국이나 고려에 비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조선 초 도성방위전략은 조선 초의 군제개혁을 바탕으로 알 수 있다. 사병 혁파 이후 모든 군대를 국가의 공병(公兵)으로 흡수하고 편제하였다. 태조부터 세조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해당 개혁의 조치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 개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변화 양상 및 의의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

다. 특히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군제개혁의 적용 사례를 설명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중앙의 군제와 함께 지방군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북방의 몽골이나 여진의 공격과 남방의 왜에 의한 공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왜구와의 싸움과 관련하여 도성 방위의 차원에서 경기 수군의 존재에 대해 다루었다. 북방에서는 익군체제(翼軍體制)를 마련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즉 양계에 설치한 익군을 중심으로 방어체계를 마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조선 초의 국가방위 개념은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단계적으로 요해처(要害處)에서 병참선이 신장된 적의 전략을 약화시켜, 도성방어단계에 이르러서는 적의 전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전략적 관건이라 지적하였다. 즉 국경지역의 1차 방어선과 이에 연하는 2차 방어선, 도성지역의 3차 방어선의 3단계 연결선의 단계적 방어 전략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다만 국경지역 방어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 국경지대에 병력이나 군수물자가 집중되었고, 이 때문에 양계 후방의 국방태세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적과의 전쟁이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련된 방어 전략이었지만, 대규모 병력이 침공하는 상황에서는 약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기존의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방어 전략에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도성방위체제에 대해서는 북한산성과 도성외곽 축조 및 삼군문 도성수비체제의 형성을 주로 살펴보았다.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의 조정은 강화도로 피신하려고 하였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고, 이곳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여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는 강화도

의 요새화를 이루면서 북한산성을 축조하여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북한산성 축조에 대해 깊게 다루면서 그 계기와 축조 과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북한산성 축조를 바탕으로 조선 초기와 후기의 방위 전략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종래에는 강화와 남한산성 등을 중시하던 보장지(保障地) 중심의 도성방위전략이, 도성외곽의 관방 외에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를 통해 ‘도성 자체 방어’에 무게중심을 두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도성과 북한산성 축조를 통해 자기 보존적 방어 전략을 펼쳤다. 도성을 모성(母城), 북한산성을 자성(子城)으로 하는 이중방어수단을 확보하여 전략적 탄력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북한산성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의 방어 전략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의 군제를 바탕으로 방위전략을 설명하였다. 숙종대의 북한산성 축조와 함께 금위영을 추가 설치하여 도성방위의 전략적 운용성을 강화한 오군영체제를 완비하였다. 군제 개편과 군액 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제변통절목」으로 훈련도감 개편 및 금위영 설치를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후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을 중심으로 삼군문에 의한 도성수비체제를 이룩했다고 지적하면서 「오군문개군제절목」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도성방위체제의 완비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서적들을 간행하면서 전략전술적 체계를 구체화하였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는 국토방위전략이 최초로 국경 중심에서 보장처 중심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도성 방어 중심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서적으로 제시한 것이 『수성기요(守城紀要)』이다. 도성수비 편성을 도성수비체제 운영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각 수성 작전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 『수성기요』의 사료적 가치를 중시하여 이 책의 말미에 원문을 제시하여, 연구자들이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연구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맺음말을 통해 잘 요약되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싶은 독자는 맺음말을 먼저 읽을 것을 추천한다. 맺음말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별·시대별 도성방위체제가 어떠하였는지 그 양상을 일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시대별 도성방위체제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서의 방법론은 군제 연구를 통해 도성방위체제를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의 적용은 사실상 고려와 조선의 사례에 국한되었다. 신라의 군제 기록이 남아있긴 하지만 고려나 조선에 비해서는 다소 소략한 편이며, 고구려와 백제의 군제에 대한 내용은 신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때문에 삼국시대의 도성방위체제는 고고학 자료를 참고하여 도성제를 통해 고찰하며,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시의 양상을 살펴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국 도성방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록하며, 독자들이 이를 보고 더 많은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배려를 하였다. 특히나 도성방위와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용어해설을 설정하였다는 점 또한 주요한 배려에 해당한다. 특히 수성전과 관련된 용어들을 서술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례들도 적시해 놓았다.

저자가 참고한 서적과 논문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 책의 주석에서도 이미 주요 논의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표시해 놓았는데, 참고문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두었다. 색인 작업도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독자들의 배려 차원에서 마련해 놓았다. 더구나 조선 후기 방위전략과 관련하여 『수성기요』의 원문을 영인본의 형태로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바로 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 도성방위는 시대별,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도성방위라는 주제로 엮어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더구나 책에서는 다양한 학설들을 최대한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가 곳곳에 배치되었다. 부록은 전체 분량의 1/3을 차지한다. 이 또한 연구자들에게 있어 이 책이 연구서의 가치가 있음은 물론,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는 저자의 배려가 작용한 부분이다. 한국 도성방위의 형성과 변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어볼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연구서를 통해 수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89-220
<https://doi.org/10.29212/mh.2020..116.1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자료소개]

이춘범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

주동완*

- 
1. 서론
 2. 컬렉터와 컬렉션에 대한 소개
 3. 이춘범 컬렉션 내용
 4. 이춘범 컬렉션의 사료적 가치
 5. 결론: 해외 자료들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언

1. 서론

금년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의 해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에서 각종 학술회의와 전시회 및 공연 등이 개최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

* 코리아안리서치센터 원장

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¹⁾ 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함께 “지켜낸 70년, 함께 만들어갈 한반도 평화”라는 비전을 갖고 “국내외 참전용사와 국민이 함께 하는 사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또 동 위원회는 ‘기억’, ‘함께’, ‘평화’라는 세 단어를 슬로건으로 하여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기억), “상처를 치유하고, 포용과 화합을 이루겠습니다.”(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평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1)6·25전쟁 70주년 행사(6.25.)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게는 전후 70년에 걸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국민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22개국 참전용사를 기억하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7.27.)을 거행하여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최첨단 IT 기법으로 표현, 문화 강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3)유엔의 정신으로!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11.11.)을 개최하여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하는 행사로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시키는 다른 한편으로 (4)내 가슴 속 빛나는 불멸의 영웅! 감사 메달 수여식을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감사 표명을 통한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6월)시킨다는 계획이다.³⁾

1) 현재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다.

2)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c/role>

3) 국내의 구체적인 행사계획으로는 ① ‘175,801, 꺼지지 않는 불꽃’, 호국영웅 다시 부르기 ② ‘국군전사자 70년 만의 귀환’, 미 DPAA 보관 중인 국군 유해 봉환 행사 ③ 보훈관서·지자체·군부대가 함께하는 지방기념식 및 위로연 ④ 기념일 법제화(‘20.3.5.) 후 첫 행사, ‘UN세계평화의 성지’ 선포 등이 있다.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참전국 현지 Thank U 행사’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계획했다. (1)대한민국 셀럽과 함께하는 현지 감사 행사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셀럽과 함께하는 감사행사를 통해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참전’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반기)하고 (2)참전국 현지 위로연과 함께하는 투어 음악회(‘음악, 바다를 건너다’)의 일환으로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이 4개국을 순회하며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며⁴⁾, (3)국외 참전 시설 건립 행사(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로 참전국 중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없는 국가인 인도에 한국전 참전기념 조형물이 건립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제막식 개최 등을 지원(5월)하며, (4)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감사행사로 유엔 참전용사 및 유가족(650여 명) 등을 초청, 감사와 경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 홍보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6~11월)시키고, (5)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 사진전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하여 유엔 참전용사의 참전 사진 및 재방한 행사 사진 등을 전시, 참전국 간 우호 증진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5~11월)시키는 등의 주요사업을 계획했다.⁵⁾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차원에서 주도하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들은, 이제는 90대의 나이에 들어선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기억과 감사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내용들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고 있다. 즉, 6·25전쟁 자체에 대한 과거의 기억과 기록 보존보다는 평화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6·25전쟁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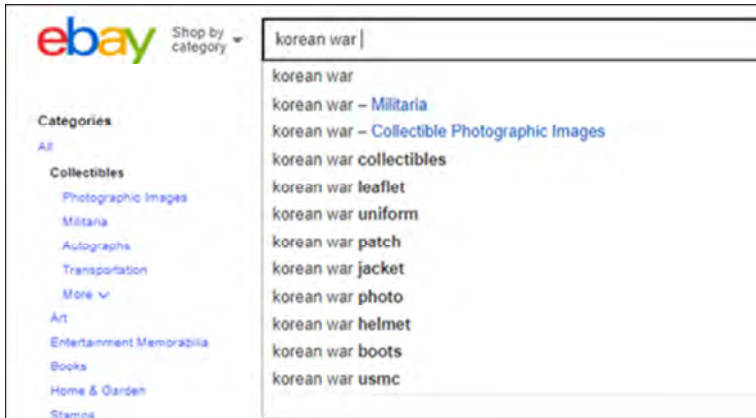
4)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캐나다(6월 예정), 태국(8월), 미국(9월), 영국(11월 예정) 등.

5)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c/role> “70주년 주요 사업”

사업들에 더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참전 용사들이 간직해온 그들의 기억이 담긴 기록들에 관한 고려이다. 그 기록은 사진, 편지, 일기, 글, 영상,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참전 용사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개인의 소멸과 함께 그 역사적인 자료들도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 자료들 가운데 일부는 그 참전 용사의 후손들에 의해 세상에 다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묻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평화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기념사업들과 함께 참전 용사들의 기억과 기록들을 더 늦기 전에 발굴하여 보존하는 사업도 참전 용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뜻 깊은 중요한 일들이 될 것이다.

6·25전쟁 참전 용사의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상의 빛을 보는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 시장에 판매되는 물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6·25전쟁 자료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은 ebay라고 하는 온라인 매매 및 경매 사이트이다. 이곳에서 Korean War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이 6·25전쟁과 관련된 여러 물품들의 항목들이 나타난다.

〈그림 1〉 ebay사이트에서 Korean War와 관련된 물품 항목들



ebay에 매매나 경매를 위해 나오는 6·25전쟁 관련 물품들은 6·25전쟁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철모에서부터 시작해서 군복과 군화까지 다양하다. 매매 또는 경매를 위해 각 항목별로 ebay에 나와 있는 물품 수를 보면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115점이 나와 있는데⁶⁾, 특히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진 이미지 1,293점과 일반 사진 853점을 합해 사진 자료가 2,146점이나 된다. 이는 전체 물품 수 4,115점의 52.5%에 해당한다. 이처럼 특히 사진 자료가 많은 것은 6·25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카메라를 손쉽게 가지고 다니며 생전 처음 가 본 한국의 신기한 풍물과 전쟁 상황을 찍었기 때문이다.⁷⁾ 그들은 찍은 사진을 미국으

6) 검색일 2020.5.22. 이 숫자는 매매 또는 경매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7) 6·25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미군들은 당시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참전했다고 하는 증언을 많이 남기고 있다. VOA, [뉴스포경]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전은 기억될 전쟁” 2019.6.28. 기사 중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증언. “여덟 살 미국인 소년의 이름은 제임스 N 부처. 누이와 형제를 도우며 살던 소년은 17살 청년이 되자 미 육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가 파병된 곳은 태어나 이름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제 7사단 17연대 폭스소대에서 복무했던 제임스 부처 중사는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군의 제인 러셀 전투와, 이듬해 4

로 돌아가 인화하여 가족들에게 자신이 참전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참전 용사들이 이제는 90대의 나이가 되어 많은 경우 이미 타계하여 그 후손들이 자신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참전했던 6·25전쟁 관련 물품들을 ebay에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1〉 각 항목별 매매 및 경매 물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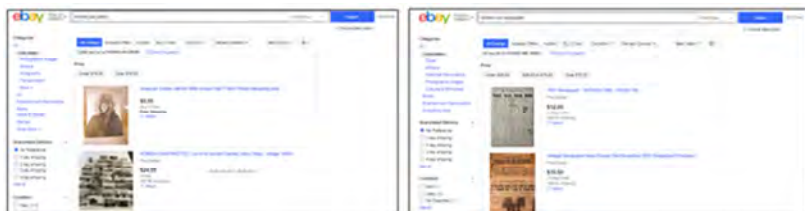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물품 수
Collectible Photographic Images	수집할 만한 사진 이미지	1,293
Leaflet	전단지	59
Uniform	군복	317
Patch	부대명찰	757
Jacket	자켓	380
Photo	사진	853
Helmet	철모	80
Boots	군화	35
USMC	미국 해병대 관련 물품	290
Newspaper	신문	51
계		4,115

본 논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로로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이며 한미문화유산선양회의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그 자료들의 사료적 가치와 어떻게 이러한 자료들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월 연천군에서 벌어진 포크 찰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두 전투에서 총 2만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했고, 3천여 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4977630> (검색일: 2020.5.23.)

〈그림 2〉 ebay에서 검색된 6·25전쟁 관련 사진과 신문들



2. 컬렉터와 컬렉션에 대한 소개

이춘범 회장은 1946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69년 졸업과 동시에 영자신문사인 코리아 헤럴드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2년에 한국 방위산업체의 하나인 풍산금속으로 직업을 바꿨다. 풍산금속 무역부에서 1년을 근무한 후, 1973년에 개설한 풍산금속의 뉴욕지사로 옮겨 근무하다가 1974년 퇴직과 동시에 결혼하였다. 이 회장의 부인은 한국에서 간호사로 있다가 이 회장보다 1년 일찍 전문직 종사자 취업이민으로 미국으로 와서 뉴욕의 세인트 조셉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결혼 후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 보험과 부동산 판매면허를 취득했다. 보험과 부동산 판매를 한지 1년만인 1975년에 부동산 브로커 면허를 다시 따서 혼자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개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이 회장은 평생 부동산업에 종사한 후 은퇴하여 지금은 뉴욕의 코리아타운인 플러싱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한미문화유산 선양회를 설립하여 자라나는 한인 2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사업에 뜻을 두고 있다.

〈그림 3〉 이춘범 회장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이 회장 자택 지하실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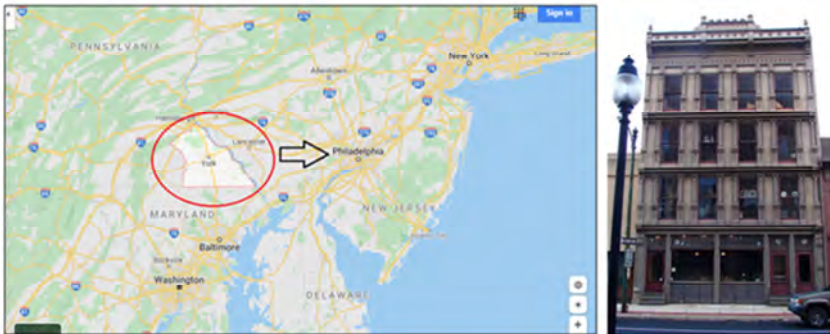
이춘범 회장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 관련 자료들을 취미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주로 한국 도자기와 한국식 전통 장, 밥상 그리고 간단한 생활 도구 등이었다.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 생활했던 미군이나 미국인들이 미국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물품들이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 우연한 기회에 6·25전쟁과 관련한 자료를 ebay에서 발견하고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회장이 6·25전쟁과 관련하여 ebay에서 처음 발견한 자료는 6·25전쟁과 관련한 사진 자료 한 점이었다. 그 자료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더 자료가 있는지를 물어보니 그 사진 자료 판매자는 알아보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판매자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⁸⁾의 오래된 사진 자료들을 대신 팔아주는 브로커였다. 결국 그 브로커를 통해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가 갖고 있던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수시로 ebay를

8)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 신문사는 1847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문사로 지금도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신문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https://www.chicagotribune.com>

검색하여 한국과 관련된 다른 많은 사진 자료들을 구입했다.

그러던 중 이 회장은 2007년경에 6·25전쟁과 관련된 신문 자료가 ebay 나온 것을 발견했다. 신문명은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였다.⁹⁾ 1950년 6월 한 달치의 신문이 하드커버로 묶여진 신문 자료였다. 이 회장은 그것을 ebay 내놓은 사람을 수소문하여 관련 자료가 더 있는지 문의하여 1950년 6월 6·25전쟁 발발시부터 1953년 9월까지 6·25전쟁 전 기간의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를 구입할 수 있었다.¹⁰⁾

〈그림 4〉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가 소재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요크 카운티의 위치와 신문사 건물



그 후 얼마 있다가 이 회장은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가 또

9)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사는 1876년 펜실베이니아 주 요크 카운티에 설립된 신문사로 특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신문으로 출판되고 있는 요크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특히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 건물(15 and 17 E. Philadelphia St., York, Pennsylvania 소재)은 1887년에 건설되어 1978년에 국립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된 고색창연한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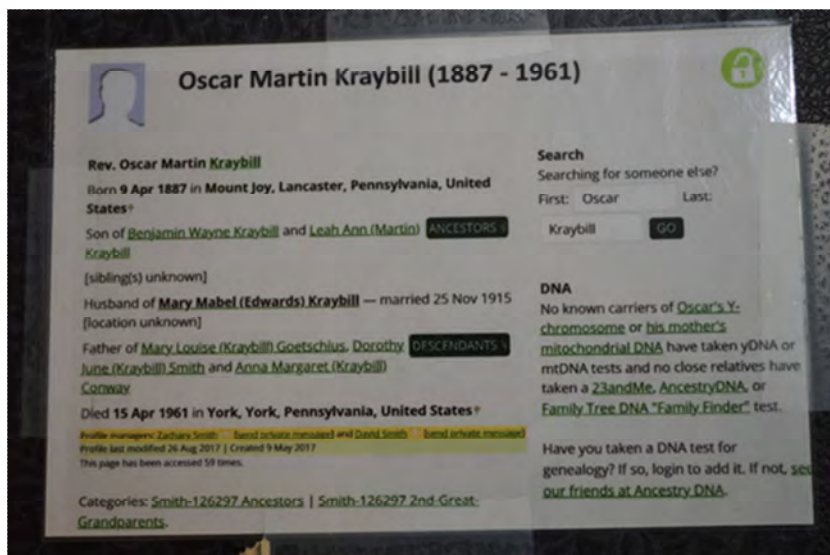
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 (검색일: 2020.5.23.)

10) 이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1950년 6월부터 1953년 9월까지의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 자료 가운데 1952년 2월, 3월, 9월, 10월, 그리고 1952년 12월 자료가 결본되었다.

ebay에 나온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신문에서 6·25전쟁과 관련된 기사만 오려 스크랩북으로 만든 자료였다. 신문 기사 자료들은 대부분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의 기사였으며, 간혹 AP(Associated Press), UPI(United Press International), 소련의 TASS통신, 프랑스의 AFP통신사 등의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스크랩북을 ebay에 내놓은 사람은 젊은 미국인이었다. 역시 그 젊은이도 처음에는 스크랩북 한 권만을 ebay에 올려놨었다. 이 회장은 그 젊은이를 만나 자료가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1950.6.25.부터 1954.1.27.까지의 수십 권으로 된 6·25전쟁 관련 기사들의 스크랩북을 모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그 젊은이에게 그 스크랩북들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봤다. 그 젊은이는 자신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수집한 자료라고 하는데 그 외증조할아버지의 이름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단지 그 젊은이는 자신의 외증조할아버지가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 출신의 목사였으며 성이 크레이빌(Kraybill)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결과 그 젊은이의 외증조할아버지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Oscar Martin Kraybill) 목사였다는 것을 찾아냈다. 다음 [그림 5]에서 보듯이 크레이빌 목사는 1887년 4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랭카스터시의 마운트 조이라는 타운에서 출생하여 1961년 4월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요크 카운티에서 사망했다.

〈그림 5〉 이춘범 화장이 찾아낸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의 기록



이 회장에 이어 필자가 조금 더 크레이빌 목사의 가계에 대해 찾아본 결과 크레이빌 목사는 메리 메이벨 에드워즈(Mary Mabel Edwards: 1888.7.29.~2004.5.30.)와 결혼하여 메리 루이스 크레이빌(Mary Louise Kraybill), 도로시 준 크레이빌(Dorothy June Kraybill) 그리고 안나 마가렛 크레이빌(Anna Margaret Kraybill) 등의 세 딸을 두었다. 크레이빌 목사는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결국 3명의 외손자와 10명의 외증손자만을 두었다.¹¹⁾ 이 10명의 외증손자 중 한 명이 그의 외증조할아버지인 크레이빌 목사가 3년여에 걸쳐 모아놓은 6·25전쟁 스크랩북을 ebay에서 판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크레이빌 목사가 3년여에 걸쳐 이토록 6·25전쟁에 관한 기록을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것이었을까? 이춘범 회장은 아마

11) Wikitree 웹사이트, <https://www.wikitree.com/genealogy/Kraybill-Descendants-12> (검색일: 2020.5.22.)

크레이빌 목사의 아들 가운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었다. 하지만 필자가 더 찾아본 결과 크레이빌 목사는 세 딸만 두었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전한 아들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혹시 사위 중에 한국전 참전 용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크레이빌 목사의 첫째 사위는 에멧 M. 괴치우스(Emmett M. Goetschius: 1916~2004)였고, 둘째 사위는 존 토마스 스미스(John Thomas Smith: 1924~2009)이었으며, 셋째 사위는 해롤드 E. 콘웨이(Herold E. Conway; 1924~2006)이었다. 첫째 사위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지만, 둘째 사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랭카스터 바이블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셋째 사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¹²⁾ 어쨌든 이 3명의 사위의 성(Last Name)인 Goetschius, Smith 그리고 Conway를 이춘범 회장에게 제시하니 이 회장은 자신에게 6·25전쟁 스크랩북을 판매한 젊은이의 성이 스미스(Smith)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존 토마스 스미스라는 둘째 사위는 도로시 준 크레이빌이라는 크레이빌 목사의 둘째 딸과 결혼하여 3자녀를 두었다. 그리고 이들 3자녀 밑에서 모두 10명의 손자가 나왔다. 앞서 밝힌대로 이 10명의 손자 가운데 한 젊은이가 바로 스크랩북을 이 회장에게 판매한 사람이다.

12) 위 Wikitree 웹사이트.

〈그림 6〉 크레이빌 목사의 둘째 딸, 도로시 준 크레이빌과
둘째 사위, 존 토마스 스미스 목사



6·25전쟁과 관련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과 통신사들의 기사를 3년여에 걸쳐 수집하여 여러 권의 스크랩북을 잘 만들어 놓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가 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지 그 이유를 본 연구에서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크레이빌 목사의 가계를 분석하여 그 스크랩북이 어떠한 경로로 이춘범 회장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대강의 경로를 알게 되었다.

그밖에 이 회장은 6·25전쟁과 관련된 더 모빌 레지스터(The Mobile Register), 데일리 뉴스(Daily News), 보스턴 선데이 헤럴드(Boston Sunday Herald) 등의 신문 기사들과 여러 가지 단편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의 조선의 모습과 관련된 사진 자료와 구한말 시대와 관련된 신문 자료, 포스터 등을 소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한국의 전통 고가구

와 도자기 등도 수십 점 수집했으며, 특히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대통령들의 친필 글씨 액자와 한국의 동양화 및 민속 유물들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필자는 2020년 3월 2일 이춘범 회장 댁에서 이 회장을 인터뷰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었다.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춘범 회장 인터뷰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다음 절에서 이춘범 컬렉션의 몇몇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춘범 컬렉션 내용

가.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대부분의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들은 흑백사진인데, 이 회장은 이 사진 자료들을 유리 액자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액자는 큰 액자와 작은 액자 두 종류가 있는데 큰 액자에는 다음 [그림 7]과 같이 하나의 긴 설명서에 관련된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액자에 넣어 놓았고, 또 어떤 사진들은 각각의 설명서가 붙어 있기도 했다. 큰 액자에는 보통 6~8장의 사진들이 모여져 있었으며, 작은 액자에는 사진이 보통 한 장씩 넣어져 있다.



〈그림 7〉 이춘범 회장 소장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



작은 액자의 사진 자료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액자 개수를 파악해보면, ①주로 북한과 중공군 전쟁 포로들 사진 액자가 20개, ②피난민 행렬 및 피난민들의 모습 사진 액자가 22개, ③전투 장면 사진 액자가 46개, ④항공기 폭격 관련 사진 액자가 51개, ⑤

휴전 회담 관련 액자가 45개 그리고 ⑥미 분류된 액자가 169개 정도 있다. 특히 휴전 회담 관련 사진은 휴전 회담 초기의 모습부터 마지막으로 휴전 협정문에 서명하는 모습까지, 거의 휴전 회담 전 과정의 사진들이다.

큰 액자의 사진 자료들은 주로 ①6·25전쟁 난민, 고아들 사진, ②전쟁 중에 예배를 보는 군인들, ③홍남 철수 사진, ④전투 장면, ⑤피난민 행렬 등이다. 이 사진 자료 액자들이 보관된 방법을 보면, 큰 액자들은 이 회장의 지하실 벽면에 걸려 있거나 불박이장에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작은 액자들은 [그림 8]과 같이 선반 위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사진 자료는 대략 600장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진 자료들은 전투하는 모습에서부터 폐허화된 전장의 모습 등 6·25전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선반 위에 쌓여져 있는 작은 액자들의 사진 자료들



나.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 관련 신문 자료는 크게 3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는 더 요크 디스패치(The York Dispatch) 신문 전체 모음이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9월까지 가운데에서 5개월을 제외한 매일매일의 모든 신문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두꺼운 표지에 제본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신문 자료는 단순히 6·25전쟁 관련 기사 자료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내 사정과 세계 정치에 대한 정보들을 다 살펴볼 수 있다.

6·25전쟁의 발발에 대해 더 요크 디스패치에 처음 실린 1950년 6월 26일자¹³⁾ 신문의 1면 제목은 ‘U.S. rushes military aid to southern Korea’(미국, 한국에 군사 원조를 서두르다.)으로 6·25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 정부는 군사적 원조를 서둘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신문 안쪽 기사에서는 한국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다. 그 다음 날짜인 6월 27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의 1면 톱뉴스도 ‘Truman orders armed forces to aid Korea.’ (트루먼은 한국을 돕기 위해 군대에 명령내리다.)라고 하여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행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려 했지만, 바로 옆 기사는 ‘Congress split on Korean War.’ (의회는 한국 전쟁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라고 하여 미국 내 정치상황은 6·25전쟁에 대한 미군의 참전을 초기부터 전적으로 지지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3)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은 당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발행되고 있어서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일요일자 신문은 발행되지 않았다.

〈그림 9〉 1950년 6월 26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지에 실린
6·25전쟁 발발에 대한 첫 보도



〈그림 10〉 여러 면에 걸쳐 6·25전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한
1950년 6월 27일자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이렇게 매일매일의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전체가 한 달씩 묶여

져 잘 제본된 신문 자료가 약 3년 3개월 치가 수집되어 있다. 이 자료는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에서 신문사 보관용으로 제본하여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동일한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신문사의 보관용 자료가 어떤 경로로 ebay에서 판매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5개월 치가 결본된 것 이외에 거의 모든 신문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관되어져 있다가 마침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던 이춘범 회장 손에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자료 보존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림 11〉 월별로 제본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과 관련된 두 번째 신문 자료는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가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놓은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자료들이다. 이 스크랩북 자료는 1950.6.25. 부터 1954.1.27.까지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을 중심으로 하여 AP, UPI, TASS, AFP 등의 기사들을 추가하여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만을 모아 놓은 자료이다. 이 스크랩북 자료 역시 두꺼운 표지의 바인더로 되어 있어서 보존 상태가 좋다.

〈그림 12〉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의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모음 스크랩북



크레이빌 목사는 가위로 오린 신문 기사 자료들을 2개의 구멍이 뚫린 종이에 하나하나 완전하게 폴로 붙여 놓았다. 그리고 뚫린 구멍마다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구멍 보조지를 덧대어 자료 유실을 막았다. 크레이빌 목사는 신문 기사들을 바인더에 날짜 순서대로 끼어놓고 각 바인더 표지에 날짜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겨 놓아 자료를 찾기 쉽게 해놓았다. 이렇게 스크랩북의 자료 보존 상태를 보면 크레이빌 목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자료를 모았는지를 볼 수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이유로 크레이빌 목사가 이렇게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을 정성껏 모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 스크랩북 자료들과 함께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

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춘범 회장은 크레이빌 목사의 스크랩북들을 한국 전통 장 속에 [그림 13]과 같이 보관하고 있다.

〈그림 13〉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 목사의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 모음 스크랩북 보관 상태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세 번째 신문 기사 자료는 더 모빌 레지스터(The Mobile Register), 데일리 뉴스(Daily News), 더 보스턴 헤럴드(The Boston Herald) 신문들에 게재된 6·25전쟁 관련 기사들이다. 더 모빌 레지스터 신문 자료만 1950년 7월 한 달치의 신문이 묶여져 있는 자료집이고 나머지 신문 기사 자료들은 낱장으로 되어 있다. 이 낱장으로 된 신문 기사들은 주로 6·25전쟁 당시 중요한 순간들에 관한 자료들이다. 낱장으로 된 신문 기사 자료들은 대부분 커다란 유리 액자에 넣어져 보관되고 있다.

〈그림 14〉 더 모빌 레지스터 신문 자료 모음



〈그림 15〉 6·25전쟁 관련 기타 신문 자료들



그 외 이춘범 회장이 수집한 6·25전쟁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신문 자료는 아니지만 아주 가치 있는 하지만 슬픈 자료도 있다.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전 참전 용사의 전사 통지서이다. 윌리스 M. 아놀드 일등병이 6·25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1950년 7월 20일에 전사했다는 통지서이다.

6·25전쟁이 발발한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윌리스 M. 아놀드 일등병은 자신이 알지도 못 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싸우러 왔다가 이름 모를 한국의 어느 골짜기나 별판에서 고향의 가족을 그리며 전사했을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양양했던 어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오빠였고, 형 또는 동생이었을 아놀드 일등병이, 한 장의 전사 통지서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을 본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그림 16〉 6·25전쟁 전사통지서



다. 기타 자료들

이춘범 회장이 소장하고 있는 기타 자료들은 ①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진, 특히 2대 대통령 취임 사진, ②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사진, ③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관련 사진 그리고 ④4.19혁명 관련 시위군중들이 데모하는 사진, ⑤1975년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는 순간의 문세광 관련 사진 등등 한국 현대 역사의 한 장면이 담겨있는 다양한 주제의 사진, 포스터 자료들이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진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 특별한 자료 가운데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1907년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할 당시 인쇄된 졸업식 참석 초청장이다.

〈그림 17〉 한국의 현대사 관련 자료들



이춘범 컬렉션에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진작가들이 찍은 한

국의 풍경 사진들과 한국과 관련된 일본의 엽서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기도 수원지역의 사진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다. 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한국의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하고 받은, 손기정 선수 사진이 포함된¹⁴⁾ 우승 인증서도 보관되어 있으며, 외국 선교사들과 관련된 사진 및 평양 전도대회 사진도 여러 장 수집되어 있다.

〈그림 18〉 한국 근대 일제 강점기 때의 자료들



그 외에 기타 신문 자료로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시대의 자료로는 1894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신문 자료도 있다. 1894년 8월 12일과 8월 25자로 발행된 르 뽀띠 빠리지앵(Le Petit Parisien)이란 신문의 일요일 부록판으로 발행된 타블로이드판 신문이다. 이

14) 손기정 선수 일장기 말소 사건(日章旗抹消事件)은 193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지방판 조간 2면 및 조선중앙일보의 4면, 다시 동아일보의 8월 25일자 2면에 1936년 하계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의 우승 사실을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이다. 이후 동아일보는 일제에 의해 8월 29일자부터 무기 정간 처분을 당하면서 1920년 4월 창간된 이래로 네 번째로 무기 정간이었다. 8월 13일자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던 조선중앙일보[1]에서는 9월 4일에 자진하여 ‘근신의 뜻을 표하고 당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휴간한다’ 운운의 사고(社告)를 게재함과 동시에 휴간에 들어갔지만 신문사의 내부 분열로 결국 신문을 폐간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일장기_말소_사건 (검색일: 2020.5.25.)

신문은 여러 페이지의 전면에 걸쳐 당시 조선의 국왕과 조선의 풍습 등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고 있다.

〈그림 19〉 르 뽀띠 빠리지앵(Le Petit Parisien) 신문에 게재된 조선의 모습



〈그림 20〉 조선시대 사진 자료와 도자기 및 서예작품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춘범 회장은 1980년대부터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여러 점의 도자기와 한국식 전통 가구 및 생활 집기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 한국

의 역대 대통령들의 친필 글씨 액자와 동양화, 병풍 등 한국 전통 예술 작품들도 다양하게 수집해왔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이춘범 회장의 집의 곳곳을 장식하고 있으며 지하실에 빼곡히 들어차 있어 집 전체가 하나의 수장고요 전시장 같다.

4. 이춘범 컬렉션의 사료적 가치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6·25전쟁 관련 사진 및 신문 자료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이춘범 컬렉션은 우선 그 양적인 면에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600여 장에 달하는 사진 자료와 6·25전쟁 전 기간에 걸쳐 있는 2종류의 신문 자료 및 그 외 6·25전쟁 기간 중 중요 사건들을 다룬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 자료들은 그 양이 6·25전쟁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다.

더구나 질적인 면에서도 이춘범 컬렉션은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먼저 사진 자료의 경우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사에서 체계적으로 모아진 사진 자료들이어서 모든 사진들이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다. 즉, 거의 모든 사진 자료들이 그 사진이 언제 어디서 찍혔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갖고 있어서 역사적 사료로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 또한 6·25전쟁 전 기간에 걸친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는 당시의 미국 사회와 나아가 전 세계의 뉴스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시대적 맥락 속에서 6·25전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크레이빌 목사가 스크랩북으로 만든 6·25전쟁 관련 신문 기사들만을 모은 자료는 6·25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어 6·25전쟁에 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 자료가 6·25전쟁

을 횡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해준다면 크레이빌 목사의 신문 자료는 6·25전쟁을 종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25전쟁 시기의 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휴전협정에 관한 이춘범 컬렉션의 사진 자료들은 휴전협정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습이 망라되어 있어서 그 휴전협정 사진 자료들만 갖고도 훌륭한 아카이브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면에서 이춘범 회장의 6·25전쟁 관련 자료 컬렉션은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우수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춘범 컬렉션의 사진 및 신문 자료들은 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사진 자료들도 대부분 시카고 트리뷴의 전문 기자들이 찍은 것이 대부분이고 신문 자료들도 더 요크 디스패치 신문사와 오스카 마틴 크레이빌이라는 한 목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정리 정돈되고 단단한 커버의 바인더에 잘 보관되어져서 모든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5. 결론: 해외 자료들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에서는 이춘범 회장의 6·25전쟁 자료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그 사료적 가치를 논했지만, 그 외에도 현재 미국 내에는 많은 6·25전쟁 관련 자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판매 또는 경매를 위해 현재 ebay에 나와 있는 4천여 점에 달하는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미국 내 어느 지역이든지 차를 몰고 가다가 앤틱 숍(Antique Shop)이라고 써어 있는 골동품 가게를 들어가 보면 예외 없이 수많은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들이 각 가정에 갖고 있는 양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이러한 참전 용사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들이어서 자료들 하나하나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훈장 하나, 사진 하나하나에 참전 용사들의 전장에서의 기억이 담겨 있는 유물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와 유물들에 대해 그동안 한국과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쟁기념관이나 박물관에 가보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기록들이나 대형 무기류 또는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유물들만 주로 전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쟁은 국가적인 과제인 동시에 개인적인 실체의 경험이다. 그러한 실제 경험 속에서 가져온 유물들에 대한 각 개인의 기억은 전쟁을 이해하는데 더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전 용사들의 개인적인 유물들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수집과 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5전쟁 참전 용사들의 개인적인 유물을 수집 및 보존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6·25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들을 꼭 한국으로만 모두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 내 현지에 그 자료나 유물과 관련된 참전 용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가치를 더 나타내고 의미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이렇게 개인들이 소장한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이춘범 회장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본인이 소장한 모든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전시할 공간만 허락된다면 모두 기증하여 한인 2세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볼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으로서는 어렵다. 따라서 이춘범 컬렉션을 비롯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6·25전쟁 관련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즉 6·25전쟁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뉴욕의 한인 커뮤니티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뉴욕에 상주하는 한국계 기업들의 재정적 지원도 기대할 수 있고 한국 정부 나아가 미국 정부의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미국 참전용사들이나 그 후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을 기증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6·25전쟁기념관 또는 박물관은 단순히 자료와 유물을 전시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며 그 참전용사들이 아직 생존해 있으므로 그들과 함께 6·25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6·25전쟁 기념행사가 될 것이다. 뉴욕에 설립되는 6·25전쟁기념관과 박물관은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는 도서관(Library)의 기능과 수집된 자료를 기록 관리하며 연구하는 아카이브(Archive)의 기능과 그리고 전시하여 알리는 박물관(Museum)을 동시에 하는 3가지 기능을 갖춘 기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3가지 기능을 갖춘 기관을 라키비움(Lachiveum)이라 한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6·25전쟁 라키비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이미 상당수 참전용사들이 90대에 들어선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이들이 갖고 있는 유물과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라키비움의 기능을 하는 플랫폼으로서 우선적으로 사이버 상에 마련할 수 있다. 그 사이버 상의 6·25전쟁 라키비움을 위키백과 형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림 21]은 6·25전

15) 해외동포 또는 해외 6·25전쟁 자료들의 보관 및 자원화 방법에 대해서는 주동완, 「해외 한인문화의 자원화 방안 연구」(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8 참조

쟁 사이버 라키비움의 한 예로 ‘이춘범의 6·25전쟁 컬렉션’ 위키백과를 간단히 만들어 본 것이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춘범의 6·25 한국전쟁 컬렉션’ 위키백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¹⁶⁾

이렇게 우선 사이버 상의 위키백과와 같은 형식으로 6·25전쟁 라키비움을 만들어 6·25전쟁 자료와 참전용사들의 구술 자료들을 모아 놓고, 한인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모금과 참여로 6·25전쟁 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미국에 진출해있는 한국계 기업들의 지원과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관심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6·25전쟁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평화’를 향한 기념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에서 ‘잊을 수 없는 전쟁’(Unforgettable War)으로 참전용사들은 물론 자라나는 한인 2세, 나아가 한국과 미국의 국민들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6) 디지털자료 보존 방법에 대한 논의는 김현 외, 디지털인문학입문, HUEBOOKS, 2016, 참조.

〈참고자료〉

김 현, 김바로, 임영상. 『디지털인문학입문』. HUEBOOKS, 2016.

주동완. 「해외 한인문화의 자원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8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웹사이트

<http://koreanwar70.go.kr>

더 요크 디스패치 웹사이트.

<https://www.yorkdispatch.com/>

시카고 트리뷴 웹사이트.

<https://www.chicagotribune.com>

위키피디아. The York Dispatch.

https://en.wikipedia.org/wiki/The_York_Dispatch

VOA. [뉴스풍경] 한국전 참전용사들 “한국전은 기억될 전쟁” 2019.6.28.

Wikitree 웹사이트.

<https://www.wikitree.com>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2020-1차 군사사연구포럼

- 일자/장소 : 2020. 6. 5.(금) / 군사편찬연구소
- 세부진행

* 사회 :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13:30~13:40	개회 및 인사 말씀
13:40~14:20	제1발표 : 임진전쟁기 유성룡의 평안·황해도 군비확충 방안 발표 : 김한신(고려대), 토론: 김진수(육사)
14:20~15:00	제2발표 : 나당전쟁기 칠중성과 매소성 전투 발표 : 서영교, 김병희(중원대), 토론 : 서영일(한백문화재연구)
15:00~15:40	제3발표 : 명 태조의 不征之國에 대한 재검토 발표 : 임상훈(순천향대), 토론 : 김경록 (군편소)
15:40~16:30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폐회

○ 약포 정탁선생 “약포 정탁선생의 임진전쟁과 기록” 학술회의

- 일정/장소 : 2020. 6. 30.(화) / 군사편찬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약포정탁선생기념사업회, 예천박물관 등 관계자 50여 명

* 사회 : 신범규(군사편찬연구소)

13:30~13:50	개회 및 인사 말씀
13:50~14:40	제1발표 : 약포 정탁선생과 『임진기록』 편찬 발표 : 김경록(군편소), 토론: 손성욱(선문대)
14:40~15:30	제2발표 : 구비문학에 표현된 약포 정탁선생과 임진전쟁 발표 : 정은영(부산대), 토론: 최고경(서울대)
15:40~16:30	제3발표 : 정탁과 유성룡의 교유와 전란기 대책 발표 : 김한신(고려대) 토론 : 정해은(한국학중앙연구원)
16:30~18:00	종합 토론 및 청중 질의, 폐회



<약포 정탁선생 학술회의 기념사진>



2. 인 사

○ 전출

- 백기인(군사사부) : '20. 7. 1.부 / 공로연수

○ 신규임용 / 전입

- 김상규(전쟁사부) : '20. 7. 1.부
- 김재경(국제분쟁사부) : '20. 8. 24.부 / 국제분쟁사부장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http://uci.or.kr/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imhmnd.2017.105..103.010>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
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김태현)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부분개정 2017. 8.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30
제 2 조	적용대상		230
제 3 조	적용범위		230
제 4 조	용어의 정의		230
제 5 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231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 6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232
제 7 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233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234
-------	--------------	-----

제 9 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234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234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235
제12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235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236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236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237
제16조	판 정	237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237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238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238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239
부 칙		23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자와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제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경⁺세상

유동안보
튼튼한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심헌용(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결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오영섭(연세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이신재(군사편찬연구소)	이한우(서강대학교)
전호수(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홍석륜(성신여자대학교)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0/9(第116號)

2020년 9월 7일 印刷

2020년 9월 15일 發行

發行處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印刷處_ 국군인쇄창 (M20080667)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